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 비판연구

:가치론의 존재론·인식론 확장을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 현 수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 비판연구

:가치론의 존재론·인식론 확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전 재 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김 현 수

김현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신 욱 희 (인)

부위원장 박 성 우 (인)

위 원 전 재 성 (인)

국문초록

“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그들의 분석 논증과 상이한 존재론·인식론 기반을 가지는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자유 작전 구상 이후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 광고를 게재했다. 본 성명 광고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국제정치 구조의 국가 행동 제약 능력으로 이론가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이 해당 성명 광고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후 체계이론을 주장하는 신현실주의가 현실 정치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처방하는 실천 논증을 펼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과연 이론의 분석 논증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 대한 기존 비판 연구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내어놓은 예측이 현실화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설명력 비판이고 두 번째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 혹은 인식론 기반 중 하나가 실천 논증에서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개략적인 비판이다. 설명력에 관한 첫 번째 비판 연구는 미어샤이머가 지적했듯 이론의 비결정론적 특징에 따라 비판으로 수용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론은 모든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방어 논리 하에 설명력 비판은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판 연구 또한 메타 이론이라는 철학 기반 전반을 온전히 탐구하

지 않은 채 단순한 불일치성을 밝힘으로써 왜, 어떻게 공격적 현실주의의 철학 기반이 확장 혹은 모순 가운데 있음을 논의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 대한 기존 비판 연구는 문제 해결적 가치에 기반하는 패러다임 내에서만 비판되어 왔고 온전히 실천 논증의 한계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가치론이 미시적 문제 해결적 가치로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가치를 어설프게 수용하면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존재론(마음-세계 이원론)과 인식론(현상론)이 변화를 보이게 되었음을 비판한다. 실재하는 대상의 속성과 지식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가치론의 능동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메타이론 기반 확장을 비판한다.

주요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메타이론, 가치론, 존재론, 인식론

학 번: 2019-24368

목 차

제 1장 서론 ····· 1

제 1절 들어가며 ····· 1

제 2절 기존연구 검토 ····· 7

1.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및 실천 논증 불가능성 비판 ····· 8

2.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예측 불가능성 비판 ····· 12

3.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간 존재론, 인식론 불일치 비판 · 15

4. 소결 및 논문의 구성 ····· 19

제 2장 분석적 차원에서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구성 ····· 23

제 1절 존 J. 미어샤이머에 의한 공격적 현실주의 태동 ····· 24

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 ····· 24

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설 ····· 26

제 2절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32

제 3절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설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45

제 4절 소결 ····· 62

제 3장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 재구성 ····· 64

제 1절 9.11 테러와 그 후 ····· 65

제 2절 이란 핵개발 ····· 71

제 3절 중국의 부상 ····· 78

제 4절 소결 ····· 85

제 4장 실천 논증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가치론의 존재론·인식론 확장 ····· 88
제 1절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 · 88
1. 국제정치학에서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이란, ····· 88
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기반하는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은 무엇인가, ·· 97
(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 기반: 마음—세계 이원론 ····· 98
(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인식론 기반: 현상론 ····· 100
(3)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치론 기반: 문제 해결적 가치 ····· 102
제 2절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실천 논증의 가치론 변화와 존재론·인식론의 확장 ····· 104
1.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포착된 존재론과 인식론은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 105
(1)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존재론: 마음—세계 이원론의 확장 ····· 105
(2)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인식론: 현상론의 확장 ····· 110
2. 실천 논증에서 비판 가치 수용이 촉발한 마음—세계 이원론과 현상론의 확장 113

제 5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1

Abstract ····· 146

표 목 차

[표 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에 대한 비판 연구
[표 2-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을 공유하는 국제정치 이론가
[표 2-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설을 공유하는 국제정치 이론가
[표 3] 철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표 4]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표 5]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 및 인식론 기반

그 림 목 차

[그림 1]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관계도
[그림 2]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 구성 요소
[그림 3]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 재구성 지도
[그림 4] 가치론의 존재론·인식론 확장

Ⅰ. 서론

1. 들어가며

2002년 조지 W. 부시(Geroge W. Bush, 이하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 구상 이후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실은 광고를 게재하였다.[1] 반대 성명이 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신현실주의자(neo-realist)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 이하 월츠),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이하 미어샤이머) 그리고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 이하 월트)가 이 성명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참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국제정치 구조가 자연스레 국가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론가들의 현실 정치 참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체계이론가들의(system theorists) 막상 실천적 참여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체계이론을 주장하는 신현실주의가 실천 논증[2]을 펼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과연 체계 이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신현실주의자들의 실천 논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현실주의자의 실천 논증에 대한 초기 비판의 대상은 주로 신현실주의자들 가운데 방어적 현실주의자(defensive realist)인 월츠였다.[3]

---

1) The New York Times, "War with Iraq Is Not in America's National Interest," September 26, 2002. https://radioopensource.org/wp-content/TimesAd_01.pdf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2) 본 연구에서 실천 논증이라 함은 이론가들이 현실 정치 문제를 다룰 때 제기하는 담론 전체를 의미하며 이는 이론가의 가치론(axiology)이 발현되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실천'의 정의는 에드워드 카아(Edward H. Carr)의 개념을 따른다. 실천은 '인과법칙에 따라 예측되는 제한적인 현실'과 '정치이론이 규범으로서 제시하는 처방적인 현실'을 모두 포괄한다. **구체적인 실천 논증의 개념화는 제3장 서론을 참고하라.** Edward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1964), pp.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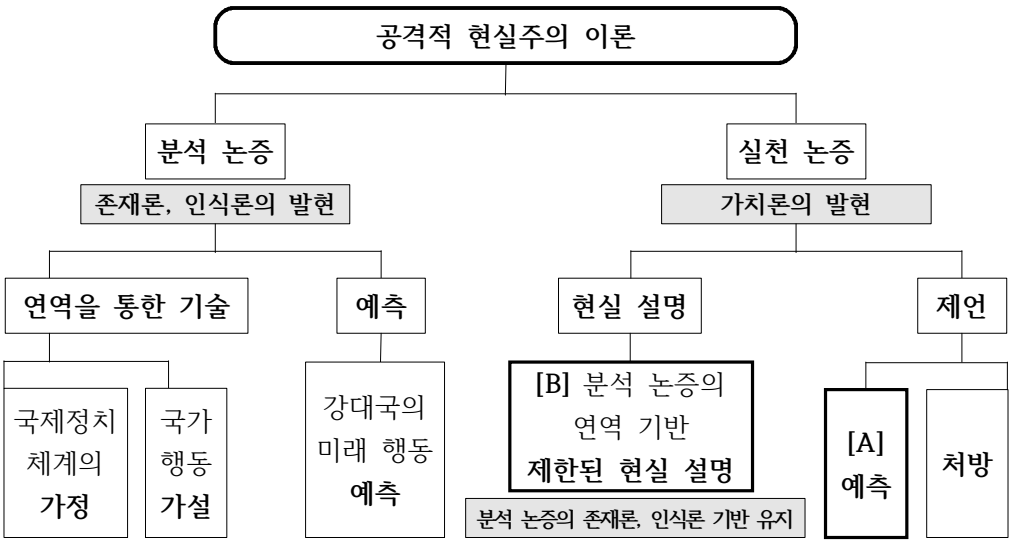
3) 월츠에 대한 기존 비판 연구는 두 가지 방향성을 띤다. 하나는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에 실천 논증이 내재되어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예로, 체계 이론을 통해 연

공격적 현실주의자(offensive realist)를 비판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이들은 단순히 미어샤이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실천 논증 전반이 아닌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가정과 가설만을 비판하는데 그치고 있다.[4] 미어샤이머가 이라크 전 반대 성명 이후에도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이란 핵 합의)를 촉구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성명[5]을 이끄는 등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미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비해,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실천 논증 비판 연구는 여전히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역적 분석을 전개함으로써 포착한 세력균형의 특성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적당한 힘을 추구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추구해야한다는 규범적인 실천 논증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Martin Griffiths, *Realism, Ide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a reinterpretation* (UK: Routledge & CRC Press, 1992), pp. 114; John J. Mearsheimer, "Is It Love or The Lobby? Explaining America's Special Relationship with Israel," *Security Studies,* Vol. 18, Iss. 1 (2009); Tim Dunne • Lene Hansen • Colin Wight, "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2013); Adam R. C. Humphreys, "Waltz and the World: neorealism a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International Politics,* Vol. 50, Iss. 6 (2013); Hugh C. Dyer, *Moral Order/World Order: the role of normative theory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UK: Palgrave Macmillan, 1997), p. 87. 다른 하나는 월츠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분석이 그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과 불일치하다는 비판이다. 월츠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체계 수준의 분석이 실천 논증에서는 국가, 개인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Griffiths, 1992, p. 104; Michael C. Williams, "Waltz, Realism and Democrac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Iss. 3 (2009); Ian Hall, "The Second Image Traversed: Walt'z theory of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9, No. 3 (2014); Christopher D. LaRoche and Simon F. Pratt, "Kenneth Waltz is not a Neorealists (and Why That Matter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4 Iss. 3 (2018).

4) 구체적인 비판 연구 내용은 제1장 제2절의 1.을 참고하라.

5) The New York Times, "The Iran Nuclear Agreement is in America's National Interest," September 8, 2015. https://www.mearsheimer.com/wp-content/uploads/2019/03/NYT-Ad-Supporting-Iran-Nuclear-Deal.September-8-2015.pdf (검색일: 2021년 9월 8일).



<그림 1>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관계도 (※ 출처: 작성자)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에 대한 비판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로 이라크 전쟁 반대에 대한 미어샤이머의 실천 논증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가 실천 논증에서 내어놓은 예측이 현실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설명력 비판'이다.[6] 이는 <그림 1>의 실천 논증에서 [A] 부분에 해당하는 비판이다. 두 번째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ontology)[7] 혹은 인식론(epistemology)[8] 기반이 실천 논증에서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개략적인 철학 논증에 대한 비판'이다.[9] 즉, <그림 1>의 실천 논증에서 [B]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의 설명력[A]을 비판하는 연구는 미어샤이머가 반박하듯 이론의 비결정론적(indeterminate) 특징에 따라 비판 연구로서 더

6) 구체적인 비판 연구 내용은 제1장 제2절의 2를 참고하라.
7) 존재론은 실재하는 것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이론으로 자연적 물질과 인간 관념의 실재성과 관계에 대해 주목한다. 구체적인 존재론 개념은 제4장 제1절의 1)을 참고하라.
8) 인식론은 참된 지식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이론으로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의 중요성과 관계에 대해 주목한다. 구체적인 인식론 개념은 제4장 제1절의 1)을 참고하라.
9) 구체적인 비판 연구 내용은 제1장 제2절의 3을 참고하라.

이상의 발전적인 논의 전개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이론의 분석 논증은 모든 현실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비결정론적 특징을 주장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방어 논리 앞에서 설명력에 대한 더 이상의 비판은 발전적 함의가 결여되어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철학 기반[B]을 논하는 비판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메타이론 기반 전반을 온전히 탐구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적 가치(problem-solving axiology)기반의 패러다임 내에서 단순히 불일치성을 조명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철학 기반 전반이 실천 논증에서 어떻게 확장되었고 왜 모순에 직면했는지 논의할 수 없게 한다.

두 가지 한계뿐만 아니라 공격적 현실주의에 관한 기존 비판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미어샤이머다'는 잘못된 전제이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월츠 이론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흐름에서 나타난 하나의 거대 이론으로 미어샤이머 한 사람의 주장이 거대 이론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미어샤이머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공격적 현실주의'를 비판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자라면 우선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단일 연구자가 아닌 범주화 가능한 연구자들의 철학 기반을 포착하고 비교하는 메타이론 개념을 온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문제 해결적 가치 기반의 패러다임 내에서 전개된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의 한계점을 딛고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그 분석 논증이 기초하는 철학 기반 전반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가치론이 발현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에서 학파의 거시적인 문제 해결적 가치가 미시적인 문제 해결적 가치로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가치(critical axiology)[10]를 일부 어설프게 흡수하였음

10) 문제 해결적 가치와 비판적 가치에 대한 구분은 로버트 콕스 (Robert W. Cox, 이하 콕스)의 분류로 콕스는 모든 이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가치 포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콕스의 가치론 논증은 국제관계학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다는 점에서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가치론 논증으로 자리잡아있다.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을 비판한다. 가치론의 변화는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체계의 일관성을 흔들었고 공격적 현실주의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변화를 가하였다. 또한 변화의 원인으로 가치론에 주목한다. 연구자의 가치는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하는데 특히 가치 실현을 위해 기존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포착과 지식에 대한 인식 과정을 변화-객관적인 대상의 특성을 인식 주관에 의해 구성하기도 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숨겨진 위계적 구조를 분석하기도 하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의 가치론은 존재론과 인식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1)]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분석 논증이 기반하는 가치론은 거시적인 문제 해결적 가치로 대표된다. 이는 엄밀한 규칙성의 발견을 통해 국제정치체계 내 일반적인 국가의 문제를 포착하고 패턴화하여 이를 해결하는 동력이 되었다. 다만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은 거시적 문제 해결의 가치를 미시적인 영역, 즉 미국의 정책에 한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시적 문제 해결의 가치는 공격적 현실주의 제언이 실제 미국 정책 결정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9.11 테러 이후 실제 미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패권적 힘을 지속함에 따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미시적 문제 해결의 가치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진 것이다.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그들의 문제 해결 안내서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힘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적 가치 기반을 고수하면서 비판적 가치를 일부 수용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가치론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공

Millennium: Journal of Studies, Vol. 10, Iss. 1 (1981), pp. 126-155; Mark Hoffman, "Critical Theory and the Inter-Paradigm Debat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6, Iss. 2 (1987), pp. 231-249; Milan Babík, "Realism as Critical Theory: the international thought of E. H. Car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5, No. 4 (2013), pp. 491-514 에서 재인용.

11)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철학 기반을 구분하여 많은 연구자들에게 활용되어온 패트릭 T. 잭슨(Patrick Thaddeus Jackson, 이하 잭슨)의 분석을 기반하여 공격적 현실주의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메타이론적 기반을 포착하고자 한다. Patrick T. Jackson,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Milton Park, Abingdon, Oxon; New York : Routledge, 2011).

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불완전한 확장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가치론의 변화는 연구자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능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을 중심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전반을 통찰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이론이 메타이론(meta-theories) 위에 설립되었음을 강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문제 해결적 가치 기반의 패러다임 틀 내에서의 기존 비판이 적시하지 못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근본적 한계를 적시할 수 있다는 국제관계학에서의 함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가 그들의 분석 논증에서 과학적 엄밀함과 분석 체계의 일관성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실천 논증에서는 이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들의 철학 기반이 어설프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2. 기존연구 검토

미어샤이머로 대표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과 실천 논증은 이론의 탄생에서부터 비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연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그 탄생에서부터 어떠한 흐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를 간략히 개괄하면 먼저 2001년 미어샤이머가 공격적 현실주의를 개념화 한 이후 그의 이론에 집중한 연구가 초기 비판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이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국제정치이론으로서 역할할 수 없으며,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적용 및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나오게 되면서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연구는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한다.[12]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활발한 실천 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두 번째 비판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명목상 수용하지만 실천 논증이 비현실적임을 비판한다. 다만 이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여러 후속 연구에 마주하면서 비판 연구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세 번째 비판 연구에 속하는 현재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는 이들의 이론과 실천 논증 모두를 긍정하지만 두 논증이 병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주로 지적한다. 이론과 실천 간 그리고 실천 논증들 간 존재론 혹은 인식론 기반이 불일치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 주제로 자리 잡아 있다.

본 장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두 차례의 비판 연구 흐름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의 비판 연구와 맞닿아있는 본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12)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론 탄생에서부터 현재(2021년)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본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연구 주제가 분석 논증에서 실천 논증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화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1)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및 실천 불가능성 비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내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분석 논증에서도 불완전하며 이로 인해 실천 논증 또한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초기 비판 연구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 내 가정(assumption)에 대한 비판, 논리 비판, 그리고 방법론 비판이다.

첫 번째로 아라쉬 파샤칸루(Arash H. Pashakhanlou, 이하 파샤칸루. 2013, 2017)와 이근욱(2002)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지적한다.[13] 미어샤이머의 저작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는 가정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파샤칸루(2013)는 세 가지 가정 중 첫 번째 가정인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가정에 주목한다.[14] 그는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가정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전제 가운데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전제가 국가들의 공격적인 안보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미어샤이머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가 생존을 제일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네 번째 전제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생존을 우선적인 목표로 추구한 이상 다른 국가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만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5]

---

13) Arash H. Pashakhanlou, "Back to the Drawing Board: A Critique of Offensive Re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7, No. 2 (2013), pp. 202-225; Arash H. Pashakhanlou, *Realism and Fear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pp. 23-44, 91-115; G. Geunwook Lee, "To be long or not to be long: that is the question: the contradiction of time-horizon in Offensive Realism"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2002) pp. 196-217.

14) 미어샤이머의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가정은 다섯 가지 전제로 이루어진다. 첫째, 국제체제가 무정부 구조라는 것, 둘째, 강대국은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셋째, 어느 나라도 상대 국가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넷째,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나라의 생존이라는 것, 다섯째, 강대국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 updated edition.* (NY: W. W. Norton & Company, Inc., 2014a), pp. 31-32.

15) Pashakhanlou, 2013, p. 206.

더욱이 파샤칸루(2017)는 국제정치체계의 다섯 가지 전제로 인해 국가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조(self-help)를 위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국가 행동 패턴에 대한 가정에서도 오류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는 두려움은 본래 심리학적 개념으로 특정 행위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무조건적으로 공격적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행동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16] 즉 파샤칸루는 두려움이 힘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이어진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가정이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 가정은 이근욱(2002)의 연구에서 시간선(time-horizon)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이미 비판 받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두려움이 힘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미어샤이머의 국가 행동 패턴에 관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작용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국가들이 근시안적(myopic) 관점으로 정책결정을 행해야만 한다. 즉, 단기 시간선이라는 조건절이 있을 때에만 두려움이 힘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는 것이다.[17]

두 번째로 조나단 커쉬너(Jonathan Kirshner, 이하 커쉬너. 2010, 2019), 스타니슬라브 미시스카(Stanislav Myšička, 이하 미시스카. 2021), 찰스 쿱찬(Charles A. Kupchan, 이하 쿱찬. 2003), 파샤칸루(2017) 그리고 이근욱(2002)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이 논리적 결함을 내포한다고 주장한다.[18] 먼저 커쉬너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패권국이 '되는 것(being a hegemon)'과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것(bidding for hegemony)'을 구별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한다.[19] 그는 강대국이 유일

16) Pashakhanlou, 2017, pp. 106-109.
17) Lee, 2002, pp. 201-207.
18) Jonathan Kirshner, "The Tragedy of Offensive Realism: classical realism and the rise of Chin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Iss. 1 (March, 2012), pp. 53-75; Jonathan Kirshner, "Offensive Realism Thucydides Traps, and the Tragedy of Unforced Errors: classical realism and US-China relations,"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Vol. 1 (2019), pp. 51-63; Stanislav Myšička, "Offensive Realism and the Future of China's Rise," *Pacific Focus,* Vol. 36, Iss. 1 (2021), pp. 63-91; Charles A. Kupchan, "Review: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by John J. Mearsheimer,"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5, No. 3 (September, 2003), pp. 750-751; Pashakhanlou, 2017; Lee, 2002.
19) Kirshner, 2012, pp. 61, 64.

한 지역 패권국(the only regional hegemon)이 되었을 시 더 큰 생존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패권국이 되는 것과 되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한다.[20] 즉 생존이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라는 전제에 입각하면 지역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강대국의 수정주의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커쉬너의 앞선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미시스카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분석 논증에서 추가적인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21] 그는 강대국이 수정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힘의 극대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들 간 안보 딜레마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시스카는 미어샤이머가 강대국의 수정주의적 의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안보 딜레마가 발생함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2]

쿱찬(2003)과 파샤칸루(2017)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서 나타난 분석 수준의 불일치를 지적한다.[23] 쿱찬은 미어샤이머가 1차 세계대전을 이끈 독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민족주의나 국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은 다루지 않으면서 독일의 군사력 증강 원인으로 국내정치적 요인에 주목했음을 지적한다.[24] 또한 파샤칸루(2017)는 체계 수준의 요인들을 고려하는 구조적 현실주의로서 공격적 현실주의가 두려움이라는 개인 수준의 변수를 이론적 개념으로 채택한 것은 비논리적임을 지적한다.[25] 이근욱(2002)은 미어샤이머 분석 논증의 여러 가정들이 동일한 시간선 위에 놓여있는 것

---

20) Kirshner, 2019, pp. 55-56.
21) Myšička, 2021, pp. 76-79.
22) Myšička, 2021. pp. 75-76.
23) 미어샤이머와 스티븐 월트의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발간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서 체계 수준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Robert C. Lieberman, "The 'Israel Lobby' and American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7, No. 2 (June, 2009), pp. 235-237; Jerome Slater, "The Two Books of Mearsheimer and Walt," *Security Studies,* Vol. 18, Iss. 1 (2009), pp. 4-57;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Chris Brown, "The Poverty of Grand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2013), pp. 492-493.
24) Kupchan, 2003, pp. 750-751.
25) Pashakhanlou, 2017, pp. 109-110.

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선을 공유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두려움이 힘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가정은 짧은 시간선을, 국가의 상대적 이득이 높을수록 수정주의적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은 긴 시간선을 요구하기에 이는 대표적인 불일치 사례이다.[26] 상이한 시간선의 혼재는 동일한 시간선을 살고 있는 국가들의 전략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하다.

세 번째로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 이하 웬트. 1995)와 양준희(2009)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27]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구축 단계에서 미어샤이머의 초기 논증인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에 대하여 웬트는 미어샤이머가 논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전개한다. 특히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미어샤이머식 과학적 방법론이 순진한 과학철학의 인식론을 공유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8] 양준희는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공격적 현실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국가 행위자들과 체계의 기본 속성이 칼 포퍼(Sir Karl Raimund Popper)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이론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9] 행위체가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거나, 합리적 정책 결정을 수행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 시간과 공간에 따라 […]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설명해주고 예측"[30]하는데 어떠한 지표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이론의 요건[31]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공격적 현실주의가 분석 논증에서 추구하는 과

---

26) Lee, 2002, pp. 214-217.

27)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Summer, 1995), pp. 71-81; 양준희,「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와 포퍼의 반증가능성.」『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pp. 159-188.

28) Wendt, 1995, p. 75.

29) 양준희, 2009, pp. 171-180.

30) 양준희, 2009, p. 176.

31) 양준희(2009)는 미어샤이머가 칼 포퍼의 과학철학이 주장하는 과학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가 자유주의적 이념보다 권력을 우선시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권력 추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념보다 우선하며 특정 상황에서 권력 추구가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그 '구체성'을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적 법칙들은 실제로 과학철학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 논리, 방법론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는 변화의 흐름을 맞이한다. 변화의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그 이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에게 사례 연구의 검증 이론으로서 활발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32] 공격적 현실주의를 적용한 후속 연구들이 빈번하다고 하여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 연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살펴본 것처럼 미시스카(2021)는 아직까지도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수많은 연구들의 등장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다음 절은 첫 번째 변화의 흐름을 겪은 후 나타난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의 예측에 대한 비판 내용을 살펴본다.

2)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예측 불가능성 비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비판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과 실천 논증에서 나타나는 '예측'의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조적 현실주의인 공격적 현실주의가 분석적 차원에서는 논증이 가능할지 몰라도 예측력있는 이론으로서는 의미

다. 양준희, 2009, pp. 175-177.

32) Danah Ali Alenezi, "US Rebalance Strategy to Asia and US-China Rivalry in South China S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ffensive Realism," *Review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REPS* (February, 2020); Emmanuel Karagiannis, "The 2008 Russian-Georgian War via the Lens of Offensive Realism," *European Security,* Vol. 22, Iss. 1 (2013), pp. 74-93; Eivind Lande, "Between Offensive and Defensive Realism – the Japanese Abe government's security policy toward China," *Asian Security,* Vol. 14, Iss. 2 (2018), pp. 172-192; 설인효•이택선,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방어, 공격적 현실주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분쟁해결연구』, 제10집, 제2호 (2012), pp. 123-156; 장노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론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2003), pp. 365-383.

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빈번해진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제언과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가들의 지적 우위가 외교,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나타나면서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예측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비현실성 비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서 전개된 예측에 대한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 내 예측에 대한 비판이다. 존 바스케즈(John A. Vasques, 이하 바스케즈. 1998)와 마이클 설리번(Michael P. Sullivan, 이하 설리번. 2005) 그리고 다니엘 르빈과 알렉산더 바더(Daniel J. Levine and Alexander D. Barder, 이하 르빈과 바더. 2014)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서 논의된 예측의 비현실성에 주목한다. 바스케즈(1998)와 설리번(2005)은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논하는 다극체제의 불안정성, 호전적 경향성에 대한 예측이 실증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3] 실제 국가 간 전쟁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쟁과 국제정치체계의 극성(polarity) 간 관계는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은 뚜렷한 인과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34] 르빈과 바더(2014)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기술' 부분에서 나타난 간결성(parsimony)이 분석 논증 예측의 비현실성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복잡다단한 세상을 이론이라는 도구로 간결화하여 이해했던 공격적 현실주의가 분석의 간결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5]

가잘라 자릴(Ghazala Y. Jalil, 이하 자릴. 2019), 벤자민 밀러(Benjamin Miller, 이하 밀러. 2020), 브라이언 슈미트(Brian C. Schmidt, 이하 슈미트. 2004), 피터 토프트(Peter Toft, 이하 토프트. 2005) 그리고

---

33) 르빈과 바더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본 연구가 각주 2)에서 논하고 있는 실천 논증의 개념 하에서는 '이론적 분석'에 더 가깝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다극체계의 불안정성과 호전적 경향성에 대해 논의한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연역을 통해 도출한 가설이며 이론의 분석 체계를 통해 대입한 예측이나 제언을 담는 실천 논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 설립 과정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실천 논증이라 칭하는 것이 연역을 통해 도출한 가설에 불과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본 비판 연구의 주장들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34) Vasquez, 1998, pp. 313-314; Sullivan, 2005, pp. 344-346.

35) Levine and Barder, 2014, pp. 879-880.

이동선(2017)은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 내 예측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36] 자릴(2019)과 밀러(2020)는 미중 경쟁의 국제정치체계 속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과는 달리 중국은 수정주의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공격적 자유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적시한다.[37] 슈미트(2004)와 토프트(2005) 그리고 이동선(2017)은 미어샤이머가 실천 논증에서 예측한 '역외균형자로서의 일본,' '탈냉전기 유럽과 북동아시아의 안보경쟁,' '미군의 유럽 및 북동아시아에서의 철수 전략,' '미국의 역외균형전략 채택' 등이 모두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38]

그러나 상기 연구자들이 전개한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의 비현실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오누츠 포페스크(Ionut Popescu), 블레다르 프리프티(Bledar Prifti), 미자누르 라만(Md. Mizanur Rahman)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대중동 전략을 중심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최근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한다.[39] 물론 위 연구들은 중동 전략에만 한정되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

36) Ghazala Y. Jalil, "Chiana's Rise: offensive or defensive realism," *Strategic Studies,* Vol. 39, No. 1 (2019), pp. 41-58; Benjamin Miller, *Grand Strategy from Truman to Trum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 Brian C. Schmidt, "Realism as traged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3 (July, 2004), pp. 427-441; Peter Toft, "John J. Mearsheimer: an offensive realist between geopolitics and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Vol. 8, No. 4 (Winter, 2005), pp. 381-408; 이동선(Dong Sun Lee), "America's International Leadership in Transition: from global hegemony towards offshore leadership,"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4, No. 1 (2017), pp. 1-19. 다만 이동선의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역외균형전략의 대전략 채택)의 현실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현실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동선, 2017, pp. 15-16.

37) Jalil, 2019, p. 58; Miller, 2020. pp. 250-251.

38) Schmidt, 2004, pp. 439-441; Toft, 2005, pp. 394-400.

39) Ionut Popescu, "American Grand Strategy and the Rise of Offensive Realism,"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34, No. 3 (2019), pp. 375-405; Bledar Prifti,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7), pp. 188-189; Md. Mizanur Rahman, "The US State-building in Afghanistan: an offshore balance?," *Jadavpur*

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의 비현실성 비판을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비현실성에 대한 미어샤이머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의 반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비판 연구의 흐름은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다음 절은 두 번째 변화의 흐름을 겪고 최근의 비판 연구들이 주목하게 된 공격적 현실주의의 존재론, 인식론 기반 불일치에 관한 내용이다.

3)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간 존재론, 인식론 불일치 비판

"공격적 현실주의는 기술 이론(분석 논증)이면서 […] 동시에 처방 이론(실천 논증)이기도 하다."[40] "이론은 어떻게 세계가 굴러가야하며, 어떻게 굴러가면 안 되는지 설명해야할 규범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41]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는 단순히 국제정치체계 내 국가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생존을 위하여 국가들이 행동해야 할 강령을 제시하는 실천의 역할까지 그의 이론을 확장했다. 또한 앞서 제2절의 예측 불가능성 비판에 대답하듯,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예측이 실제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치 없는 비판임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특정 이론은 세상의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결정론적(indeterminate)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42]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의 타당성에 대한 미어샤이머의 주장은 기존 비판을 일축하는 듯 보인다.[43] 그러나 2007년 로저 페인(Rodger A. Payne, 이하 페인)을 시작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예측의 논증 가능성은 인정하되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위치하고 있는 존재론 혹은 인식론 기반이 분석 논증의 존재론, 인식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No. 1 (2019) pp. 81-104.

40) Mearsheimer, 2014a, p. 11.

41) John J. Mearsheimer, "Reckless States and Re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No. 2 (June, 2009c), p. 241.

42) Mearsheimer, 2014, pp. 25-27.

43) (괄호는 저자) 제2절에서 소개한 최근의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현실화에 대한 반박 연구는 실천 논증 비판 연구 보다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불일치에 대한 비판 연구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여준다.

론을 온전히 기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44]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인식론이 분석 논증과 불일치함을 지적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표적으로 페인(2007), 마이클 윌리엄스(Michael C. Williams, 이하 윌리엄스. 2005), 이도 오렌(Ido Oren, 이하 오렌. 2009)의 연구가 있다.[45] 먼저 공격적 현실주의 인식론과 관련하여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고정된 지식에 대해 인식하는 실증주의 인식론을 기반하고 있다면 비판이론과 구성주의는 관념의 구성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지식을 인식하는 성찰적 인식론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46] 그는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 이론의 인식론이 공격적 현실주의와는 다름을 강조하며 자신 이론의 인식론 기반을 명시한다.

페인(2007)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공표한 분석 논증의 실증주의 인식론이 실천 논증에서는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이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연구나, 정치적 의사소통과 대중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터뷰 등을 꼽으며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대중과 정치인들 간 관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자 하는 성찰적 인식론이 포착된다고 주장한다.[47] 더 나아가서 윌리엄스(2005)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 제언이 가능한 실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미어샤이머가 비판이론에 제기한 비판 –관념의 인지적 역할에 주목해 현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비판이론의 인식론 비판– 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48] 즉 윌리엄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기존 인식론이 실천 논증을 긍정함으로써 변

---

44) Rodger A. Payne, "Neorealists as Critical Theorists: The Purpuse of Foreign Policy Debat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5, No. 3, (September, 2007), pp. 503-514.

45) Payne, 2007; Michael C. Williams, *The Realist Tradition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Ido Oren, "The Unrealism of Contemporary Realism: The Tension between Realist Theory and Realists' Practic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7, No. 2 (May, 2009), pp. 283-301.

46)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3 (1994/95), pp. 40-41.

47) Payne, 2007, pp. 507-509.

48) Williams, 2005, pp. 148-152.

화하게 된 인식론과 불일치한다는 것을 비판한다. 오렌(2009)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간 인식론적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을 전개한다.[49] 오렌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있다는 자연주의 인식론을 추구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인식론에 따르면 이론가는 정해진 국제정치체계의 결과에 어떠한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렌은 미어샤이머의 실천 논증 전반이 국제정치체계의 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인식론, 즉 비자연주의적 인식론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석 논증의 존재론, 인식론과 불일치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이비드 레이크(David A. Lake, 이하 레이크. 2011)와 콘스탄티노스 코스타쟈니스(Konstantinos Kostagiannis, 이하 코스타쟈니스. 2018)는 인식론을 구성하는 존재론 불일치에 함께 주목하여 비판 연구를 진행한다.[50] 레이크(2011)는 공격적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isms)이 실제 실천 논증에서는 이론의 분석 논증에서 전제하는 가정, 즉 존재론과 인식론을 동일하게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복잡다단한 현실을 예측하고 제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설과 설명을 가능하게하는 추가적인 가정들인 존재론과 인식론의 확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51] 코스타쟈니스(2018)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분석 논증에서는 국제정치체계를 존재론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실증주의 인식론을 공유하지만 실천 논증에서는 국가나 개인을 존재론적으로 더 중시하며 성찰적인 인식론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52] 더욱이 코스타쟈니스는 미어샤이머가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구조가 아닌 국가 단위 수준에 대한 관심을

---

49) Ido Oren, "The Unrealism of Contemporary Realism: The Tension between Realist Theory and Realists' Practic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7, No. 2 (May, 2009), pp. 283-301.

50) David A. Lake, "Why 'isms' Are Evil: theory, epistemology, and academic sects as impediments to understanding and progr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2 (June, 2011), pp 465-480; Konstantinos Kostagiannis, *Realist Thought and the National-State: Power Politics in the Age of Nationalism* (Palgrave Macmillan, 2018).

51) Lake, 2011, p. 469.

52) Kostagiannis, 2018, pp. 142-146.

명시적으로 논의한 것[53]은 그의 분석 논증이 위치하고 있는 인식론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54]

마지막으로 존재론, 인식론과 함께 철학적 기반으로 논의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치론을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의 주제로 삼은 유일한 연구도 있다. 새뮤엘 발킨(Samuel J. Barkin, 이하 발킨, 2009)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가치론의 불일치에 주목하였다.[55] 발킨(2009)에 따르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구조적 현실주의로서 거시적인 문제해결적 가치론을 공유한다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미시적인 문제해결적 가치론을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에서 패턴화되고 일관적인 구조의 흐름을 파악해 거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국내 정치나 단위 변수 그리고 연구자의 가치에 따라 미시적인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56]

페인에서부터 발킨까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불일치성에 대한 비판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존재론, 인식론에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앞선 비판 연구와는 다르게 공격적 현실주의자나 공격적 현실주의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어떠한 반박 연구도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에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살펴본 비판 연구 흐름과 그 한계를 정리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두 철학 기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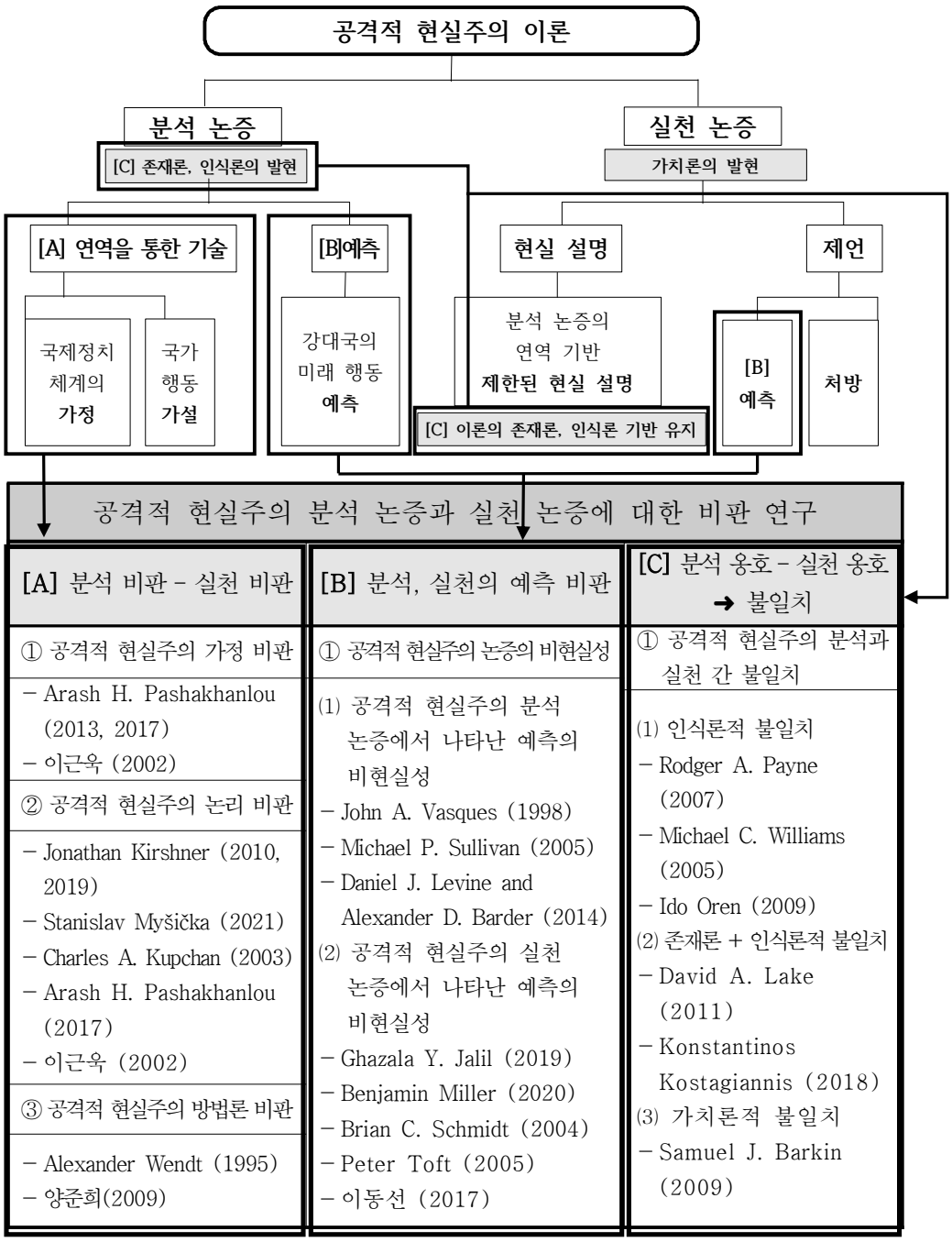
53) John J. Mearsheimer, "Kissing Cousins: nationalism and realism," *Yale Workshop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y, 2011c). https://www.mearsheimer.com (검색일: 2021년 07월 19일).

54) Kostagiannis, 2018, pp. 152-155.

55) Samuel Barkin, "Realism, Prediction, and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Vol. 5, Iss. 3 (July, 2009), pp. 233-246.

56) Barkin, 2009, pp. 238. 구조적 현실주의의 가치론 기반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Cox, 1981, pp. 126-155.

4. 소결 및 논문의 구성



<표 3>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에 대한 비판 연구. (※ 출처: 작성자)

제1절에서 3절까지 살펴본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기존 비판 연구는 다음의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최근의 비판, <표 1- Ⅲ>은 공격적 현실주의자 혹은 이를 따르는 연구자들의 재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쟁 한 가운데 위치해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비판 흐름에 맞추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해결적 가치 기반의 패러다임 내에서만 공격적 현실주의를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히 공격적 현실주의가 모순적 이론에 불과하다고만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공격적 현실주의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간 불일치에 대한 기존 연구가 비판 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에서 어떻게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의 불일치가 발생한 것인지 밝힌 후 마지막으로, 그 원인을 포착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는 것이다.

먼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과 실천에 대한 불일치 비판은 크게 세 가지의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이들이 개념화하고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사실상 미어샤이머만을 칭하거나 더 나아간 경우 2007년 미어샤이머와 월트의 공동 연구를 포함하는데 한정되어있다. 하나의 학파로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논하면서도 미어샤이머의 연구 이전부터 이후까지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국제정치를 바라본 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적 합의가 부재한 채 지협적인 비판 연구를 전개한 것이다. 둘째, 기존 비판 연구는 존재론•인식론•가치론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불일치를 밝히지 못했다. 모든 과학적, 사상적, 철학적 이론은 대칭되는 각각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이 존재한다.[57] 공격적 현실주의 지식체계 기반을 온전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이나 존재론 중 단 하나의 철학 기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모두를 연구해야할 것이다. 셋째, 기존 비판 연구는 문제해결적 가치 기반의 패러다임 내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불일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그리고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포착하지 않는다. 단순히 공격적 현실주의의 내적 모순에만 집중함에 따라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철

57) 이수윤, 『역사철학: 사회과학 방법론·사회인식론과 역사인식론과 역사존재론·역사관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융합과 통일』,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2002), p. 49.

학 기반이 분석 논증의 그것과 단순히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분석 체계에 여전히 기반하지만 무작위적 확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지 못했다. 이는 결국 확장을 추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할 공간 자체를 내어주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가치론을 보여주는 실천 논증이 분석 논증의 메타이론적 기반을 공유하되 선택적으로 어설픈 철학적 확장을 도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확장을 추동한 동력을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메타이론적 기반의 확장과 그 원인에 주목한다고 하여 첫 번째(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조직 부재)와 두 번째(메타이론 전반 분석 부재)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원인을 찾는데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원인 분석은 기존 비판 연구를 답습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각각의 한계를 단계별로 회복하는 순서로 논문을 구성하고 왜 가치론이 표출되는 실천 논증에서 메타이론적 기반이 어설프게 확장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에 대한 지적 합의를 도출한다. 이는 첫 번째 한계와 연결된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과 존재론•인식론•가치론 확장을 엄밀한 의미에서 포착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하나의 거대 이론(grand theory)을 분석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격적 현실주의를 처음으로 개념화한 미어샤이머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핵심 가정과 가설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와 유사한 분석을 펼친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58] 제3장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을 사례 별로 재구성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이 어떻게 메타이론적으로 확장을 이루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실천 논증 전반을 공통된 주제로 묶어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내용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분석 논증

58) 각 가정과 가설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구성된 연구자들이 온전히 동일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어샤이머가 구체화한 가정과 가설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독특하게 구별되는 특성으로 연구자가 이를 유사하게 공유한다면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서 연구를 위해 조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을 파악하여 실천 논증이 분석 논증의 철학 기반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확장적 분석을 전개하고 있음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의 두 번째 한계인 메타이론 전반의 분석 필요성과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이 철학 기반을 선택적으로 확장하고 있는지 실천 논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가치론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가치론이 발현되는 실천 논증에서 미시적 문제 해결의 가치로 이들의 가치론이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비판적 가치를 일부 포괄하면서 실천 논증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뚜렷한 기반 없이 확장되었음을 밝힌다.

Ⅱ. 분석적 차원에서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구성

공격적 현실주의는 미어샤이머의 저작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에 의해 국제정치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59] 미어샤이머가 선구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개념을 명명함에 따라 그가 가정하고 예측하는 국제정치체계의 조직원리와 국가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온전히 그만의 논증인 것으로 착각되곤 한다.[60] 하지만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에 대한 학계의 비판적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는 배경을 인지한다면 공격적 현실주의가 하나의 학파로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자리잡혀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장의 제1절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미어샤이머의 주장을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과 가설을 중심으로 톺아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미어샤이머의 가정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적 측면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예비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미어샤이머의 분석 논증 내 가설을 중심으로 예비적으로 구성된 연구자들의 분석이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논의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제4절 소결에서는 크리스토퍼 레인(Christopher Layne, 이하 레인), 누노 몬테이로)Nuno Monteiro, 이하 몬테이로) 배리 포젠(Barry Posen, 이하 포젠) 그리고 월트가 분석적 측면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구성원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59) Mearsheimer, 2014a, p. 5.

60) 다수의 국제정치이론서들은 미어샤이머의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격적 현실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2015), pp. 160-186; 존 베일리스 • 스티브 스미스 • 파트리샤 오웬, 『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2), pp. 157-159; Paul D. Williams (ed.),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3), pp. 22-24.

1. 존 J. 미어샤이머에 의한 공격적 현실주의 탄생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월츠의 체계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월츠 이론의 방어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양하고자 하면서 월츠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월츠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국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들로 하여금 균형을 이루게 한다고 주장한다.[61] 또한 국제정치체계의 무정부 구조는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가들은 현상유지(status quo) 차원의 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어샤이머는 월츠의 이론에 '현상유지적 편향성(status quo bias)'이 있음을 지적하며,[62] 강대국의 공격적 행위가 예외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월츠의 균형 이론을 거부한다.[63] 궁극적으로 미어샤이머는 국제정치체계가 국가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

국제정치체계가 강대국 국제정치를 비극으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미어샤이머의 분석 논증에는 3가지의 주요 가정들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로,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다섯 가지 전제이다. 다섯 가지 전제 중 하나는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 구조(anarchy)라는 것이다.[64] 두 번째는 강대국들이 공격적인 군사력(offensive military power)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65]

---

61) 케네스 월츠, 『국제정치이론』, 박건영 역, (서울: 사회평론, 2013), p. 200.

62) Randall L. Schweller, "Neorealism's Status-Quo Bias: What Security Dilemma?," *Security Studies,* Vol. 5, No. 3 (Spring 1996), pp. 90-121; Mearsheimer, 2014a, p. 20.에서 재인용.

63) Mearsheimer, 2014a, pp. 39-40.

64) 이는 단순한 조직 원리(ordering principle)로, 국가 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체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국제정치체계에서 각 국가의 정부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위의 정부는 없다. Mearsheimer, 2014a, p. 30; John J. Mearsheimer,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8), p. 131.

65) 각 국가의 공격적 군사력 보유는 이후에 다룰 두 번째 가정인 '상대 국가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으로 이어지곤 한다. Mearsheimer, 2014a, pp. 30-31.

세 번째는 상대 국가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66] 네 번째는 생존(survival)이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다.[67] 다섯 번째는 강대국들이 합리적인 행위자(rational actor)로서 생존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68]

두 번째 가정은 위 다섯 가지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전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강대국이 세 가지의 일정한 '행동 규칙'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들의 일정한 행동 규칙은 두려움(fear), 자조(self-help) 그리고 힘의 극대화(power-maximization)이다.[69]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다섯 가지 전제는 국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두려움은 일명 '9-1-1' 문제[70]에 부딪히면서 스스로를 스스로가 보호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조의 행동은 힘의 극대화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된다. 힘의 극대화는 월츠의 주장처럼 단순히 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71] 패권국이 되지 않고서는 국가들의 힘의 극대화 행동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72]

세 번째 가정은, 강대국은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미어샤이머는 '결정적인 군사력 우위의 확보'가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며 이는 국가들의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연결된다

---

66) 이는 모든 강대국들이 상대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Mearsheimer, 2014a, p. 31; Mearsheimer, 2018a, pp. 131-132.

67)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해야 한다. 영토 보존 차원에서의 생존 추구만이 아니라 자주권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생존을 추구한다. Mearsheimer, 2014a, p. 31; Mearsheimer, 2018a, pp. 132-133.

68) 강대국들은 단기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행위함은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한다. Mearsheimer, 2014a, p. 31.

69) Mearsheimer, 2014a, pp. 32-34.

70) 9-1-1 문제란, 앞서 국제정치체계의 조직원리가 무정부 구조라는 전제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가 안에서 갈취 및 폭행을 당할 경우 911(한국의 112,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정부보다 상위의 조직체가 없는 국제정치체계에서는 타국이나 타 조직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이는 자국의 안전은 자국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조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Mearsheimer, 2014a, pp. 32-33.

71) 케네스 월츠, 2013, p. 197.

72) Mearsheimer, 2014a, pp. 34-35; Mearsheimer, 2018a, p. 134.

고 주장한다.[73] 또한 강대국은 바다의 차단력(stopping power of water) 때문에 세계의 패권국(global hegemon)이 되기 매우 어려워 유일한 지역 패권국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다. 현재의 핵무기를 압도하는 절대적 기술 우위를 점유하지 않는 이상, 대륙을 넘나들며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74] 결론적으로 미어샤이머의 세 가지 가정은 국제정치체계의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다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월츠와 구별되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논리를 보인다.

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세 가지 가정은 국제정치체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의 예측 가능한 행동 원리에 대한 가설로 구체화되었다.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설 가운데 본 연구는 대표적으로 8가지 가설을 가져와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미어샤이머의 2001년 저작인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와 2011년 *Why Leaders Lie* 그리고 2018년 *The Great Delusion*에서 중심 가설로 소개되었던 내용이다.[75]

H1. 위협을 당하는 강대국은 균형보다 책임전가의 방법을 선호한다.

국제정치체계에서 국가들은 특정 국가가 가하는 위협에 마주했을 때 균형동맹을 형성하기보다 다른 국가로 하여금 특정 국가에 의한 위협을 대신 처리하게 만든다.[76] 이는 국제정치체계에서 도전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균형 세력이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월츠의 세력균형이론[77]과는 반대되는 가설이다.

---

73) Mearsheimer, 2014a, p. 35.
74) 이는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의 공격과 지배를 받지 않은 영국과 미국을 통해 검증 가능하다. Mearsheimer, 2014a, pp. 83-84.
75) John J. Mearsheimer, *Why Leaders Lie: the truth about ly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a); Mearsheimer, 2014a; Mearsheimer, 2018a.
76) Mearsheimer, 2014a, p. 139.
77) 케네스 월츠, 2013, pp. 199-200.

책임전가 전략은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네 가지 단계로 수행되어왔다. 첫째, 특정 국가의 관심을 다른 국가[78]로 옮기는 것 둘째, 책임을 전가하는 나라는 벅캐쳐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셋째, 책임 전가 국가는 책임 전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 넷째,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는 벅캐쳐의 국력 상승을 용인한다는 것이다.[79]

H2. 해양 강대국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 정복당할 위험이 낮다.

강대국이라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강대국은 아니다. 강대국은 그들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해양 강대국과 대륙 강대국으로 나뉜다. 해양 강대국은 4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 쌓여있거나 모든 면이 바다에 둘러 쌓여 있지 않더라도 주변국이 약소국이기에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낮은 강대국을 의미한다.[80] 공격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해양 강대국은 대륙 강대국과는 달리 다른 국가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세 번째 가정에서 언급한 바다의 차단력 때문이다. 해양을 통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은 대륙을 통한 투사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양을 통한 공격은 매우 적었다.[81]

---

78) 다른 국가는 책임을 전가 받을 국가(buck-catcher, 이하 벅캐쳐)를 의미한다.

79) 네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 국가의 책임전가 전략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프랑스와 소련이 초기에 독일 위협을 두고 책임을 전가한 역사와 19세기 말 독일 통일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독일 위협을 서로에게 책임 전가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Mearsheimer, 2014a, pp. 157-159; 국제정치의 다극체계에서 나타난 또 다른 책임 전가 사례는 미어샤이머의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8장을 참고하라. Mearsheimer, 2014a, pp. 269-333.

80) Mearsheimer, 2014a, pp. 126-127.

81) 해양 강대국이 정복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가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지난 40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 대한 대규모 본토 침공은 없었으며 일본 또한 패전의 경험은 있으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에 의해 정복된 역사는 없다. Mearsheimer, 2014a, pp. 127, 136-137.

H3. 지역 패권국은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막기 위해 역외균형자로서 행동한다.

국제정치체계에서 생존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국가들은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강대국이 유일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유일한 지역 패권국은 다른 대륙에서 적어도 둘 이상의 강대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82] 또한 강대국은 유일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역외 균형 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을 채택한다. 먼저 역외균형전략의 수행은 책임 전가 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책임전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유일한 지역 패권국은 외교적 간섭을 수행한다.[83] 외교적 간섭 이후에도 잠재적 패권국의 성장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현지에 상륙해 역내균형전략(onshore balancing strategy)을 펼친다.[84]

H4. 외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강대국이 외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투사하는 노력은 투자하는 비용 대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85] 본 가설에서 논하는 외적 균형은 다른 국가에게 위협을 받은 국가가 이에 대항하는 균형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균형은 자국의 자원이 부족할 때 혹은 자국의 자원으로는 홀로 위협에 대적할 수 없을 때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동맹을 맺은 구성국은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선행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동맹국에게 전가하거나 분산시키려 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외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노력은 불필요한 갈등에 연루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86], 과도한 팽창 정책 혹은 관여 정책으로 이어지는 원인

82) Mearsheimer, 2014a, p. 42.
83) Mearsheimer, 2014a, pp.141-142, 236.
84) Mearsheimer, 2014a, pp. 252-256, 385.
85) Mearsheimer, 2014a, pp. 156-157.
86) Mearsheimer, 2018a, pp. 222.

이 되어왔다.[87]

H5. 자국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은 유화정책과 편승 전략을 택하지 않는다.

유화정책과 편승전략은 위협을 당하는 강대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다. 고전 현실주의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이하 모겐소)를 포함하여 많은 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의 유화정책(appeasement)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호도하는 비합리적인 전략임을 비판한다.[88] 미어샤이머 또한 무정부적 국제정치체계에서 국력 상승을 통해 기존의 세력 균형 상태를 깨트리고자 하는 수정주의적 국가를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국의 생존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결여되어있는 행동이라 주장한다.[89] 편승 전략(bandwagoning) 또한 강대국의 전략이 아니다. 편승은 자신보다 더 강한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국가와 한 편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목표와 배치되는 편승 전략을 택하지 않는다.[90]

H6.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는 강대국들로 하여금 현상변경을 원하게 만든다.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는 생존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는 강대국들로 하여금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열망하게 한다. 특히 국제정치체계의 구조가 수정주의적인 국가를 자동으로 처벌하여 국가들이 적당한 힘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월츠의 논리[91]와는 달리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는 강대국이 상대적인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만든다. 즉 국제정치체계에서 강대국은 유

---

87) John J. Mearsheimer, “Imperial by Design,” *The National Interest,* Vol. 111 (January, 2011b), pp. 16-34.
88) Ralph B. A. Dimuccio, “The Study of Appeas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emics, Paradigms, and Problem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5, No. 2 (March, 1998), pp. 246-247.
89) Mearsheimer, 2014a, pp. 163-164.
90) Mearsheimer, 2014a, pp. 162-163.
91) 케네스 월츠, 2013, pp. 189-197.

일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 현상변경을 원하게 되며,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후에야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다.[92] 국제정치체계의 구조가 갖는 다섯 가지 전제와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들의 행동 패턴으로 인해 월츠의 기술과는 달리 국제정치 현실은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로 이루어져왔다.[93]

H7. 강대국은 핵무기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적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핵무기의 양적•질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한다. 미어샤이머와 방어적 현실주의자로 대표되는 월츠는 핵 확산이 평화를 이룩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나,[94] 강대국의 핵무기 확보 및 이후의 우위 경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자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동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적국의 위협에 대응할 때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95]의 상황을 인지함으로써 핵 우위를 지향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96]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자는 상호확증파괴는 단순히 규범적인 논증일 뿐이며 국제정치의 현실은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 간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주장한다.[97]

---

92) Mearsheimer, 2014a, p. 168; 국제정치 역사에서 일본, 독일, 소련의 행위는 위 가설을 증명하는 뚜렷한 사례이다. 또한 이들은 현상변경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Mearsheimer, 2014a, pp. 172-224.

93) Mearsheimer, 2018a, pp. 136-137.

94)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1981); John J. Mearsheimer,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3 (Winter, 1984/85), pp. 19-46.

95) 상호확증파괴란 19세기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기술한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된 단어로, 공격을 가한 국가가 무조건적인 보복공격을 당함으로써 먼저 공격을 받은 나라와 같이 파괴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개념이다. The Wilkie Collins Society, "Newsletter," (Spring, 2009), https://wilkiecollinssociety.org/newsletter-spring-2009/ (검색일: 2021년 07월 11일)

96) Mearsheimer, 2014a, pp. 224-225.

97) 대표적으로 냉전 기간 소련과 미국의 핵 우위 확보 전쟁은 위 가설을 증명한다. 소

즉 핵무기 보유가 가져다주는 억제 효과에 대해서 방어적 현실주의자와 공격적 현실주의자 모두 동의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만이 핵 우위를 두고 벌어진 강대국들의 치열한 역사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8. 다극체제는 양극체제에 비해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

셋 이상의 강대국이 국제정치체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극체제는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극체제에 비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극체제가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세 가지로 구체화해볼 수 있다. 첫째, 다극체제는 강대국의 수가 양극체제보다 많기 때문에 국가들 간 관계(dyad)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양극체제에 비해 다극체제는 힘의 배분 상태가 불균형적인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힘의 극대화를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 셋째, 다극체제에서는 국가들이 서로의 의도나 전략을 오해하거나 과장하는 오산(miscalculation)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98]

살펴본 미어샤이머의 세 가지 가정과 여덟 가지 가설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핵심 뼈대를 구성한다. 다음 절에서는 세 개의 가정과 여덟 개의 가설을 국제정치체계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받아들인 학자들의 주장을 각각 살펴보고 분석적 측면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구성하고자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를 유사하게 공유하는 일종의 학파를 구체화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를 온전히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이 존재론•인식론•가치론적 측면에서 정말 불일치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전 단계가 될 것이다.

련과 미국은 핵무기라는 확실한 파괴 무기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파괴능력을 보유하기위해 기술력 개발에 몰두했으며 핵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및 무기체계 건설 또한 추진했다. Mearsheimer, 2014a, pp. 225-230.

98) Mearsheimer, 2014a, pp. 338-347; 위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어샤이머는 유럽이 양극체제일 때와 다극체제일 때를 비교하여 검증하는데 그 결과, 1792년부터 1990년까지 모든 강대국이 참전했던 대전쟁(central wars)은 다극체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Mearsheimer, 2014a, pp. 348-349.

2.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가정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어샤이머에 의하여 구체화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은 세 가지이다.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가정, 강대국의 일정한 행동 규칙 그리고 강대국의 최종 목표이다. 세 가지 가정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학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학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수용되는 가정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분석적 차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을 공유하는 여러 연구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세 가지 가정을 모두 공유함으로써 국제정치체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공격적 현실주의를 긍정하는 연구 집단에 예비적으로 속할 수 있는 학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 가지 가정 모두를 공유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가정을 모두 공유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설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A1-(1). 국제정치체계는 무정부 구조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와 분석 논증의 내용을 공유하는 연구자들만이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 구조임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체계에서 정부보다 상위의 중앙 조직체가 부재하다는 가정은 근대 국제정치, 더 나아가서는 중세 역사에서도 일부 포착된다는 연구가 있다. 중세 유럽 정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마커스 피셔(Markus Fischer, 이하 피셔. 1992)는 봉건제도가 유럽의 정치 체제로 받아들여졌던 당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상위의 정치체가 부재하여 근대만큼 갈등과 전쟁이 빈번했다고 주장한다.[99] 더욱이 20세기 초 사상가들의 국제정치체계에 관한 분석에서도 무정부 구조를 가정하는 주장들이 포착된다. 대표적으로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1917)과 골즈워디 디킨슨(Goldsworthy L. Dickinson. 1937)은 국

99) Markus Fischer, "Feudal Europe, 800-1300: communal discourse and conflictual pract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1992), pp. 427-466.

제정치체계가 국내 정치와는 달리 국가의 공격적이고 비윤리적 행동을 처벌할 정치체가 부재한다고 주장한다.[100]

이후 월츠가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체계이론을 들여옴에 따라[101] 국제정치체계의 구조가 무정부적이라는 가정이 많은 연구자들의 중심 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국제정치체계가 공격적 현실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방어적 현실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진화했음을 주장하는 탕스핑(Shiping Tang. 2010)은 체계의 본질(fundamental nature)은 변하여도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 구조라는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102] 동맹 형성에 관한 국가들의 행동을 분석한 월트(1988, 1992, 2009a) 또한 무정부적 국제체계 속에서 국가들이 상호작용함을 기본 가정으로 받아들였다.[103] 뿐만 아니라 데일 코플랜드(Dale C. Copeland, 이하 코플랜드. 2000, 2001), 콜린 엘만(Colin Elman, 이하 엘만. 1996), 에릭 랩스(Eric J. Labs, 이하 랩스. 1997), 레인(1993), 몬테이로(2014a), 포젠(1993, 2006) 그리고 로버트 포웰(Robert Powell, 이하 포웰. 1993, 1994)까지 국제정치체계의 조직 원리는 무정부적 이라는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104]

---

100) Bertrand Russell, *Justice in War Time* (Chicago: Open Court, 1917), pp. 20-23; Goldsworthy L. Dickinson, *The International Anarchy, 1904-1914*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26).

101) 케네스 월츠, 2013, p. 141.

102) Shiping Tang, “Soci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Mearsheimer to Jervi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6, Iss. 1 (March, 2010a), p. 44; Shiping Tang, *A Theory of Security Strategies for Our Time: defensive re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b).

103) Stephen M. Walt, “Testing Theories of Alliance Formation: the case of Southwest As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2 (Spring, 1988), p. 280; Stephen M. Walt, “Revolution and War,” *World Politics,* Vol. 44, No. 3 (April, 1992), pp. 321-368; University of California Television, "Conversations with History: Stephen M. Walt," (2009a). https://www.youtube.com/watch?v=sSfeal61RSY&t=2662s (검색일 : 2021년 07월 14일)

104) Dale C. Copeland,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a), pp. 12, 23; Dale C. Copeland, “Theory and History in the Study of Major War,” *Security Studies,* Vol. 10, No. 4 (June, 2001), p. 214; Collin Elman, “Horses for Courses: why nor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

A1-(2). 국제정치체계 내 강대국은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다.

국제정치체계에서 강대국은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은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 구조를 가진다는 가정에 동의하는 다수의 학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 구조라는 것은 자국의 안전을 자국의 힘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공격력의 확충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월츠는 강대국이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가정을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로 해당 국가의 우월한 군사력을 꼽으면서 묵시적으로 위 가정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105] 묵시적으로 본 가정을 받아들인 또 다른 연구로는 코플랜드(2000a), 피셔

---

policy?," *Security Studies,* Vol. 6, No. 1 (September, 1996), pp, 7-53; Eric J. Labs, "Beyond Victory: Offensive realism and the expansion of war aims," *Security Studies,* Vol. 6, No. 4 (June, 1997), pp. 1-49; Christopher Layne,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Spring, 1993), pp. 5-51; Nuno P. Monteiro, *Theory of Unipol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31-32. 몬테이로의 경우 무정부 구조를 조직원리로 가정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위계 조직이 포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arry R. Posen, "The Security Dilemma and Ethnic Conflict," *Survival,* Vol. 35, No. 1 (March, 1993a), pp. 27-47; Barry R. Posen, "European Uni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response to unipolarity?," *Security Studies,* Vol. 15, No. 2 (July, 2006b), pp. 149-186; Robert Powell, "Gun, Butter, and Anarch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1 (March, 1993), pp. 115-132; Robert Powell,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Neorealist-Neoliberal deb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1994), pp. 313-344; 다만 전재성(2014)에 따르면 앞선 모든 연구는 무정부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마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현실주의 가정 위에서 무정부 상태를 '상수(constant)'로 인식하였고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실천적 과정으로서의 무정부성을 이해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전재성,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2호 (2014), pp. 7-45;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05) 물론 월츠는 군사력만으로는 강대국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규모, 정치적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대국의 지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케네스 월츠, 2013, pp. 201-205.

(1995), 레인(1997)의 분석이 있다.[106] 더불어 엘만(1996), 랩스(1994, 1997), 몬테이로(2014), 포젠(1984, 2003, 2020), 포웰(1993), 월트(1989, 1990, 1991)는 각 국가의 군사력이 강대국들 간 힘의 배분 상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강대국은 전략적으로 군사력을 유지 및 증가한다고 논한다.[107] 특히 랩스는 전쟁 기간 중에 국가의 전쟁 목표가 변경 및 확장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면서 전시(戰時) 적국의 공격적 군사력이 가하는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후(戰後)에 확보해야할 자국의 안전을 위해 전쟁 목표가 바뀐다고 주장한다. 이는 강대국이 보유한 공격적 군사력이 국가들 간 상호작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체계의 핵심 가정임을 받아들인 분석이다.[108]

A1-(3). 국제정치체계 내 국가들은 상대국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국가들은 상대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체계의 가정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현실주의자뿐만 아니라 합리론자 그리고 구성주의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109] 특히 현실주의자들에게

---

106) Copeland, 2000a, pp. 15-17; Markus Fischer, "Machiavelli's theory of foreign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 5, No. 2 (December, 1995), p. 266; Christopher Layne, "A House of Cards: American strategy toward China," *World Policy Journal,* Vol. 14, No. 3 (Fall, 1997a), pp. 77-95.

107) Elman, 1996; Eric J. Labs, *Fighting For More: the sources of expanding war aims,*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4, pp. 55, 58-59, 63, 70-75; Labs, 1997, p. 2; Monteiro, 2014, p. 32;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Barry R. Posen,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 (Summer, 2003), pp. 5-46; Barry R. Posen, "Europe Can Defend Itself," *Survival,* Vol. 62, No. 6 (November, 2020a), pp. 7-34; Powell, 1933, p. 115; Stephen M. Walt, "The Case for Finite Containment: Analyzing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4, No. 1 (Summer, 1989), p. 11;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24-25;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June, 1991), p. 222.

108) Labs, 1994, pp. 70-75.

의도의 불확실성 가정은 국가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동하면서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논증으로 자리잡아왔다. 고전 현실주의자 모겐소(1973)는 그의 저서 *Politics Among Nations*에서 다극체제가 양극체제에 비해 안정적인 이유로 국가들 간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는 강대국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들이 서로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격적 행동에 있어 신중을 가한다는 것이다.[110] 반면 양극체제가 다극체제에 비해 안정적임을 주장하는 월츠(2013)는 다극체제 내 국가들이 가진 높은 불확실성이 협상의 가능성을 낮추고 두려움의 수준을 높이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분석한다.[111] 이 또한 모겐소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국가들 간 타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모겐소, 월츠와 함께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은 불확실성 가정을 받아들인다.[112] 물론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

109) Brian C. Rathbun, "Uncertain about Uncertainty: understanding the multiple meanings of a crucial concep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1, No. 3 (September, 2007), pp. 533-557.

110)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p. 340-343; 모겐소의 극성과 안정성에 관한 논증을 두고 모겐소가 그의 인식론을 국제정치의 극성에 둔 것인지 인간성에 중심을 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는 모겐소가 바라본 불확실성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곤 하지만 모겐소가 극성에 따라 불확실성의 정도가 달라짐을 논증한 것 그 자체로 국가들이 상대국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가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Martin Hollis and Steve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 (Oxford: Clarendon, 1990), p. 97; 박재영. 2015. p. 47에서 재인용.

111) 월츠, 2013, pp. 210-212, 259-263.

112) Dale C. Copeland,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to Structural Realism: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Fall, 2000b), p. 210; Joseph M. Grieco,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1988), pp. 485-507; Layne, 1993, p. 7; Christopher Layne, "The Waning of U.S. Hegemony: myth or real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Summer, 2009b), p. 154; Monteiro, 2014, pp. 32-33; Barry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New York: Corenell University Press, 2014), pp. 111, 131; Walt, 1988, p. 279; Walt, 1990, p. 172.

환경이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지 혹은 인간 본성적으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가 의도를 확신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A1-(4). 국제정치체계 내 국가들은 생존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다.

국제정치체계 내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삼는 상황은 신현실주의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바이다.[113] 대표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자 월츠(2013)와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2014) 모두 국가들이 가진 생존 추구 목적을 각 이론 내 분석 논증의 가정으로 인정하였다.[114] 위협의 수준에 따라 국가들의 동맹 형성 패턴이 달라진다는 월트(1988, 1989)의 주장은 무정부적 국제정치체계의 구조가 국가의 생존 의지를 이끌어내고 이가 동맹 형성이라는 생존 전략으로 구체화됨을 인정한다.[115]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의존과 이로 인한 양국 간 갈등 양상을 분석한 코플랜드(2003)의 연구 또한 국가가 생존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는다는 가정 위에 미·중 갈등 연구를 진행한다.[116] 궁극적으로 무정부적인 국제정치체계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국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하는 자조 행위를 수행해야 함을 인정하는 코플랜드(2000a, 2000b, 2001), 피셔(1995), 랩스(1997), 레인(1990/91, 2012), 몬테이로(2011/12, 2014a) 그리고 포젠(1993, 2006)은 국가들이 각자의 생존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국제정치체계의 핵심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17]

---

113) Elman, 1996, p. 19.
114) 케네스 월츠, 2013, p. 115; Mearsheimer, 2014a, p. 31.
115) Walt, 1988, p. 308; Walt, 1989, p. 6.
116) Dale C. Copel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Future of U.S.-Chinese Relations,"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p. 323-352.
117) Copeland, 2000a, pp. 15, 27; Copeland, 2000b, pp. 200-205; Copeland, 2001, p. 220; Fischer, 1995, pp. 254-255; Labs, 1997; Christopher Layne, "America's Stake in Soviet Stability," *World Policy Journal* Vol. 8, No. 1 (Winter, 1990/91), pp. 66, 71; Christopher Layne,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A1-(5). 국제정치체계 내 국가들은 합리적인 행위자이다.

국제정치체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국가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역할한다는 본 가정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소 논쟁적인 개념으로 자리잡혀있다. 합리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국가를 논하는 과정에서 과연 개인 행위자를 국가와 분리하여 논의할 수 있는지와 같이 본 가정을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수반되는 어려움이 많다.[118] 또한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국가 행동의 결과는 합리성이 아닌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가 합리적인 행위자인 것은 가정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체계가 생존을 위해 합리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짐을 가정한 미어샤이머의 주장에 많은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특히 본 가정의 수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라는 정치체를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와 개인이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 위에서 국가 내 정책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연구이다. 전자의 연구는 대부분 구조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며 후자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받아들인다.[120]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코플랜드(2001), 랩스(1997), 레인

Quarterly, Vol. 56, No. 1 (March, 2012a), p. 211; Nuno P. Monteiro, "Unrest Assured: why unipolarity is not peaceful,"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3 (Winter, 2011/12), pp. 9-40; Monteiro, 2014, pp. 13-14; Posen, 1993a, p. 82; Posen, 2006c, p. 184.

118) 정준표,「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대한정치학회』, 제11집, 제2호 (2003), pp. 415-439; Powell, 1994, p. 323; Stephen Quackenbush, "The Rationality of Rational Choice Theor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0, No. 2 (April, 2004), pp. 87-107.

119) Miles Kahler,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Autumn, 1998), pp. 924-925.

120) Grieco(1988)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이 구조적 현실주의자와 같이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지만 합리적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를 정책결정자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원자론적 접근법을 취했다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Grieco, 1988, p. 496. 원자론적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Oxford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993), 몬테이로(2014a, 2014b), 포젠(2016)이 있다.[121] 물론 구조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합리적 행위자임을 가정하는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셔(1995), 월트(1999)의 연구가 있다.[122] 구조적 현실주의자인 이들의 연구는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완전히 동일한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신현실주의가 논하는 합리성 가정의 지적 발전을 도모했다.

A2.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두려움 ➜ 자조 ➜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한다.

강대국은 국제정치체계 내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힘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힘의 극대화 가정은 국가가 안보를 위해 적당한 힘을 추구하는지 혹은 패권국이 되기 위해 상대적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각각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고 구분되어 왔다.[123]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안보의 극대화와 힘의 극대화라는 구분은 실제로 뚜렷하게 이루어지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는 "살고자 하는 의지(will-to-live)가 권력에의 의지(will-to-power)로 변화한다"[124]고 말하며 살기위해 적당한 힘을 추구하는

---

121) Copeland, 2001, p. 220; Labs, 1997, pp. 12-13; Layne, 1993, p. 44; Monteiro, 2014, pp. 34-35; Nuno P. Monteiro and Alexandre Debs, "Known Unknowns: Power Shifts, Uncertaint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8, No. 1 (Winter, 2014b), pp. 1-31; Barry R. Posen, "Foreword: military doctrine and the management of uncertain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No. 2 (2016), pp. 161-162.

122) Fischer, 1995, p. 279; Stephen M. Walt, "Rigor or Rigor Mortis?: rational choice and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April, 1999b), pp. 5-48.

123) Charles L. Glaser, "Realist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3 (September, 1995), pp. 50-90; Jeffrey W. 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t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3 (Winter 2000/01), pp. 128-161.

124)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Scribner, 1960), p. 42.

안보 의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는 패권 의지의 분리가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탕스핑(2010)은 이 구분 기준이 두 학파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에 따르면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모두가 안보와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125]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체계의 다섯 가지 전제를 공유하는 연구자들은 국제정치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강대국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플랜드(2000a)의 경우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자국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안보를 극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26] 그의 주장은 안보의 극대화와 힘의 극대화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비논리적인 구분에 의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치체계에 대한 가정을 공유함으로써 강대국이 안보와 힘의 극대화를 모두 추구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안보의 극대화를 명기한 코플랜드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두 번째 가정을 공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힘의 극대화 방식을 설명하는 데는 각 연구자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만, 코플랜드(2000a), 랩스(1997), 레인(1990/91. 1997, 1998, 2012), 몬테이로(2014), 포젠(1993, 2006), 월트(2002, 2007) 모두 국제정치체계 구조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강대국이 안보와 힘 모두를 극대화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127]

---

125) Tang, 2010, pp. 19, 21-23.

126) Copeland, 2000a, p. 28.

127) Copeland, 2000a; Labs, 1997, pp. 4-5; Layne, 1990/91, p. 66; Christopher Layne, "From Preponderance to Offshore Balancing: America's future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1 (Summer, 1997b), p. 112; Christopher Layne, "Rethinking American Grand Strategy: hegemony or balance of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Policy Journal,* Vol. 15, No. 2 (Summer, 1998), p. 21; Layne, 2012a, p. 211; Monteiro, 2014, p. 27; Barry R. Posen, "Nationalism, the Mass Army, and Military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1993b), p. 82; Posen, 2006c, p. 184; Stephen M. Walt, "The Enduring Relevance of Realist Tradition," in Katznelson Ira and ilner Helen V.,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3* (New York: Norton Press, 2002a), p. 200; Mearsheimer and Walt, 2007, pp. 112, 121.

A3. 국제정치체계 내 강대국은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국제정치체계에서 강대국은 생존을 위한 힘의 극대화의 최종 목표로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유일한 지역 패권국 지위 획득이라는 최종 목표는 무조건적으로 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 행동의 불문율이라기보다 도달하기 어려운 최종 목적지와 같은 개념이다. 미어샤이머(2014)는 유일한 지역 패권국의 목표를 이룬 국가는 역사상 미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128] 본 가정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은 두 가지 주장을 펼치곤 하는데, 하나는 국제정치체계 내 강대국이 세계 패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유일한 패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을 견제한다는 주장이다.

월트(2009)는 미국의 국력이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129] 유일한 지역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잠재적 패권국의 등장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130] 포젠(2013)은 미국이 세계의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패권국 행세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세계 패권국으로 자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131] 또한 포젠(1996/97,

---

128) Mearsheimer, 2014a, p. 143; 미국만이 국제정치체계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는 목표를 실현한 국가임을 분석한 미어샤이머의 주장이 미국의 능력을 너무 과장한 것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Colin Elman, "Extending Offensive Realism: the Louisiana purchase and America's rise to regional hegemon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8, No. 4 (November, 2004), pp. 563-576. 다만 국가가 지역 패권국이 되고 싶어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엘만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129) Stephen M. Walt, "Alliances in a Unipolar World," *World Politics,* Vol. 61, No. 1 (January, 2009a), pp. 86-120.

130) Stephen M. Walt, "American Primacy: its prospects and pitfall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5, No. 2 (Spring, 2002b), pp. 9-10;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5, No. 4 (July/August, 2016), p. 3; Stephen M. Walt,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can realism explain it? should realism guide it?,"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2, No. 1 (2018), pp. 8, 14-15.

131) Barry R. Posen, "Pull Back: the case for a less activis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92, No. 1 (January/February, 2013), p. 118.

2014)은 미국이 지역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세계 패권국 전략을 포기하고 자제(restraint)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132] 월트와 포젠 모두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극체계에서의 유일한 지역 패권국의 전략을 분석한 몬테이로(2011/12, 2014),[133] 미국이 패권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외균형전략을 수행해야한다고 제언한 레인(1998, 2002a)[134]까지 본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살펴본 분석에 따라 다음의 <표 2-1>은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기반하는 세 가정 각각을 공유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자들을 열거해둔 것이다. 정리해보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전제하는 모든 가정을 묵시적·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연구자는 레인, 몬테이로, 포젠 그리고 월트이다. 물론 본 연구는 구조적 현실주의로 분류되곤하는 연구자들만을 중심으

---

132) Barry R. Posen and Andrew L. Ross,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97), pp. 15, 17; Posen, 2014, pp. 20, 171.

133) Monteiro, 2011/12, p. 33; Monteiro, 2014, p. 171.

134) Layne, 1998, p. 22; Christopher Layne, "Offshore Balancing Revisited,"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2 (2002a), p. 245; 다만 레인의 경우 지역 패권국이 된 강대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미세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그는 합리적인 국가가 국제정치체계에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지정학적 제약보다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지역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과거에서부터 높았으며 동시에 현재 세계 패권국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분석한다. Christopher Layne, *The Peace of Illusions: American grand strategy from 1940 to the presen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c), p. 28; Reginald J. McClam, *Balancing on the Pivot: how China's rise and offshore balancing affect Japan's and India's roles as balancers in the 21st century* (Alabama. AL: Air University Press, 2016), pp. 4-5;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공격적 현실주의 가정 및 가설을 공유했던 코플랜드는 본 가설을 통해 분석적 차원에서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코플랜드는 여러 지역 패권국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국제정치체계의 상대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유일한' 지역 패권국 가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Copeland, 2001, pp. 222, 225-226, 232-233, 240; Copeland, 2003, p. 325.

로 공격적 현실주의가 논하는 가정에 대한 각 이론가들의 주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세부 가정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은 하나의 표에 담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네 명의 연구자들은 분석적 차원에서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분류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분석적 도구로 국제정치체계를 설명하는 연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는 네 명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분석적 차원에서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한 두 번째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을 통해 얻게 된 기존 연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온전한 해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		
분석 논증의 가정	가정의 내용	공유하는 학자
Ⅰ. 국제정치체계	1. 무정부 구조	Copeland(2000a, 2001), Elman(1996), Fischer(1992), Labs(1997), **Layne**(1993), **Monteiro**(2014a), **Posen**(1993a, 2006), Powell(1993, 1994), Tang(2010), **Walt**(1988, 1992, 2009a), Waltz(2013)
	2. 공격적인 군사력 보유	Copeland(2000a), Elman(1996), Fischer(1995), Labs(1994, 1997), **Layne**(1997a) **Monteiro**(2014a), **Posen**(1986, 2003, 2020), Powell(1993), **Walt**(1989, 1990, 1991), Waltz(2013)
	3. 의도의 불확실성	Copeland(2000b), Grieco(1988), **Layne**(1993, 2009b), **Monteiro**(2014a), **Posen**(2014), **Walt**(1988, 1990), Waltz(2013)
	4. 생존 목표	Copeland(2000a, 2000b, 2001, 2003), Elman(1996), Fischer(1995) Labs(1997) **Layne**(1990/91, 2012), **Monteiro**(2011/12, 2014a), **Posen**(1993a, 2006), **Walt**(1988, 1989) Waltz(2013)
	5. 합리적 행위자	Copeland(2001), Fischer(1995) Grieco(1995), Labs(1997), **Layne**(1993), **Monteiro**(2014a, 2014b), Powell(1994), **Posen**(2016), **Walt**(1999)
Ⅱ. 강대국의 행동 규칙	두려움 ➜ 자조 ➜ 힘의 극대화	Copeland(2000a), Labs(1997), **Layne**(1990/91, 1997b, 1998, 2012), **Monteiro**(2014a), **Posen**(1993b, 2006), **Walt**(2002a, 2007)
Ⅲ. 강대국의 최종 목표	(유일한 지역) 패권국	Elman(1996, 2004), **Layne**(1998, 2002a), **Monteiro**(2011/12, 2014a), **Posen**(1996/97, 2013, 2014), **Walt**(2002b, 2009b, 2016, 2018)

<표 4-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정을 공유하는 국제정치이론가 (※ 출처: 작성자)

3.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가설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분석적 차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지지하는 학파를 구성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제시하는 가설을 연구자들이 유사하게 공유하는지 여부이다. 물론 월트가 주지했다시피 모든 연구자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135] 각 연구자마다 동일한 가설에 대한 미세한 입장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자들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동일한 가설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유사한 논증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분석적 차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학자들이 누구인지 포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전개한 여덟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가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지,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H1. 위협을 당하는 강대국은 균형보다 책임전가의 방법을 선호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첫 번째 가설은 강대국이 위협을 당했을 시 위협에 대항하는 균형 행위를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방법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다. 본 가설은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이지만 몬테이로의 책임전가에 대한 주장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몬테이로(2014)는 단극체계에서 패권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불간섭 전략 가운데 하나로 책임전가를 소개하고 있다.[136] 단극체계의 패권국가로서 미국은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패권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간섭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책임전가전략은 다극체계에서 보다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에[137] 벅캐쳐가 없는 단극체계에서는 책임전가만이 아닌 현상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단극 패권 전

135) Stephen M. Walt, "The Progressive Power of Real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4 (December, 1997b), pp. 931-935.
136) Monteiro, 2014, pp. 170-173.
137) Monteiro, 2011/12, p. 34; Monteiro, 2014, p. 173.

략 전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38]

레인, 포젠 그리고 월트는 보편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책임전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어샤이머의 가설을 가장 유사하게 공유한다. 레인(1993, 2002b, 2008)은 몬테이로와 같이 다극체계에서 강대국의 책임전가 행위가 유리한 전략으로서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인식한다.[139] 다만 레인은 국제정치체계가 어떠한 힘의 배분 상태를 이루고 있든 강대국은 균형을 이루기 전 책임전가를 국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주장한다.[140] 또한 바다로 둘러싸여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는 해양 강대국, 미국의 경우 책임전가전략을 실제 국가전략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이익이 매우 높기 때문에 책임전가전략 수행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분석한다.[141]

레인과 마찬가지로 포젠(1986)도 독일 위협에 대한 수차례의 영국과 프랑스의 책임전가 사례를 통해 다극체계에서 책임전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낸다.[142] 또한 그는 체계를 막론하고 '국가들이 책임전가 전략을 수행할 기회를 엿보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많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기를 바란다'[143]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포젠은 "국가가 위협을 받을 때 거의 편승하지 않으며, 가능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할 수 없을 때가 돼서야 균형을 이룬다"[144]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월트는 국가가 균형을 이루기 전에 책임전가가 가능한지 고려하는 것은 국가의 성향(natural tendency)이라 분석한다.[145] 월트는 미국이 1968년까지 중동 지역에 이익과

---

138) Monteiro, 2014, pp. 202-203.

139) Layne, 1993, p. 45; Christopher Layne,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December, 2002b), pp. 120-164; Christopher Layne, "It's Over, Over There: the coming crack-up in Transatlantic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Hague, Netherlands),* Vol. 45, No. 3 (May, 2008a), pp. 325-347.

140) Christopher Layne, "The Unipolar Illusion Revisited: the coming end of the United States' unipolar mo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2 (Fall, 2006a), p. 28.

141) Layne, 1997b, pp. 117-118; Layne, 1998, p. 22.

142) Posen, 1996, pp. 63, 111, 148, 176-177, 232; 특히 영국이라는 도서 국가(insular power)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책임전가 전략을 실제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Posen, 1986, p. 177.

143) Posen, 2006c, p. 155.

144) Posen, 2014, p. 173.

도덕적 헌신(moral commitment)이 있었음에도 영국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과, 제 2차 중동전쟁 이후 반 이스라엘 동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가장 힘이 센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문제를 전가한 중동 국가들의 모습은 자연적 경향으로 나타난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한다.[146]

정리해보면 강대국은 균형보다 책임전가를 선호한다는 본 가설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몬테이로를 제외하고 모두가 긍정한다. 그러나 몬테이로 또한 단극 체계에서 패권국이 실제 책임전가 전략 수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패권국이 본 전략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레인과 포젠은 몬테이로와 같이 실제로 다극체계에서 강대국의 책임전가전략 선호가 주로 포착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어떠한 극성(polarity)에 있든 강대국이 균형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책임전가를 상당수준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 가설에 대한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유사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월트는 국가가 자연적 경향으로서 책임전가전략 수행을 추구하기에 가장 미어샤이머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H2. 해양 강대국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 정복당할 위험이 낮다.

강대국의 지리적 위치는 해당 강대국이 다른 국가에게 받을 위협 수준을 결정한다는 본 가설은 네 연구자 모두의 공통된 주장이다.[147] 특히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 모두 미국이 지리적 이점을 통해 서구에서 유일한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였고 과거부터 외부 국가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다고 분석한다.[148] 왜냐하면 미국은 동, 서쪽에 큰 바다가 위치하며 위협

---

145) Walt, 1990, p. 265; Walt, 2009, p. 96.

146) Walt, 2011, p. 14; Walt, 1990, pp. 112-113.

147) Layne, 1993, p. 23; Layne, 2006c, p. 20; Posen, 1984, p. 7; Posen, 2006c, p. 160; Posen, 2014, p. 19; Posen, 2020, pp. 11-13; Posen and Ross, 1996/97, p. 17; Monteiro, 2011/12, p. 37; Walt, 1990, p. 5.

148) Layne, 1993, pp. 48-49; Christopher Layne, "Less is More: minimal realism in East Asia," *The National Interest,* No. 43 (Spring, 1996), p. 68; Layne, 2006c, pp. 22, 29, 181; Christopher Layne and Bradley A. Thayer, *American Empire: a debate* (New York: Routledge, 2007); Monteiro, 2011/12, p. 9; 몬테이로는 미국이 지리적 요인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미국만이 유일한 단극 국가임을 인정한 몬테이로가 패권 지위

이 되지 않는 약소국이 이웃 국가로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 연구자들 모두가 해양 강대국이 정복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에는 긍정하나, 지정학 요인을 둘러싼 분석과 예측에는 미세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몬테이로와 월트는 지정학을 국가 행동 설명을 위한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여 단극 이론(theory of unipolar politics)과 위협균형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을 각각 설계한다. 먼저 몬테이로(2011/12, 2014)는 단극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대전략이 그 국가가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고 말하며 패권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정학을 소개한다.[149] 단극 이론에 대한 연구 이후 몬테이로는 역사적으로 지정학 변수가 정치체의 정책 결정에 미쳤던 영향을 분석한다. 전간기[150] 독일이 주변 대륙 강대국에게 가한 지정학적 두려움 유발로 스페인 내 파시스트(fascist), 프랑스 좌파가 정책 결정 변화를 도모한 사실은 지정학 요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151] 월트(1990, 1997a)는 국가가 외적 균형을 이룰 때 힘의 배분 상태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변화하는 위협의 수준을 고려한다고 주장한다.[152] 냉전 직후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 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원인도 해양 강대국인 미국이 다른 대륙 강대국들에 비해 타국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153]

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방어적 군사전략을 투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이점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Monteiro, 2014, pp. 66, 74-75; Posen, 2007; Posen, 2014, p. 19; Stephen M. Walt, "Musclebound: the limits of U.S. powe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5, No. 2 (1999a); Stephen M. Walt, "Beyond bin Laden: reshaping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2001/02), p. 76; 스티븐 월트, 2007, p. 44; Walt, 2011, p. 8; Walt, 2018, p. 9.

149) Monteiro, 2011, pp. 37-38; Monteiro, 2014, pp. 66, 128.

150) 전간기(interwar period)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알고 있는 연구자의 인식이 개입된 개념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몬테이로의 연구가 기반으로 한 시기를 단순히 통칭하기 위해 편의 상 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151) Matthew A. Kocher • Adria K. Lawerence, and Nuno P. Monteiro, "Nationalism,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France under Nazi Occup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2 (Fall, 2018), pp. 147-148.

152) Walt, 1990, pp. 23-24;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Spring, 1997a), p. 158.

몬테이로와 월트가 지정학 요인이 국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면 레인과 포젠은 해양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지정학적 이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국가 행동을 예측한다. 레인(2007a)은 미국이 이웃 국가의 약한 국력 및 군사력과 해양이라는 방패를 통해 지역 패권국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우위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154] 반대로 포젠(2009)은 미국이 지정학적 이점을 누리고 있으나 과도한 팽창 욕구 실현 시에는 굉장한 위협에 마주할 것이라 예측한다.[155] 이는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과도한 팽창 전략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으로 연결된다.[156] 결론적으로 각 연구자별로 지정학적 요인을 둘러싼 미세한 의견 차이는 존재하지만 네 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해양 강대국의 지리적 이점을 소개한 미어샤이머의 가설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H3. 지역 패권국은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막기 위해 역외균형자로서 행동한다.

유일한 지역 패권국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잠재적 패권국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저지해야하며 이는 역외균형전략의 수행으로 구체화된다는 세 번째 가설은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 모두에게 받아들여진다.[157] 역외균형전략 담론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본 전략은

---

153) Walt, 1999a, p. 47; 스티븐 월트, 2007, pp. 54-55.

154) Layne, 2007a, pp. 62-63.

155) Barry R. Posen, "Emerging Multipolarity: why should we care?," *Current History,* Vol. 108, No. 721 (2009), p. 350.

156) Posen, 2014, pp. 135-136, 140.

157) Layne, 1997b; Layne, 2002a; Christopher Layne, "China's Role in American Grand Strategy: partner, regional power, or great power rival?," in Jim Rolfe (ed.), *The Asia-Pacific: a region in transition* (Honolulu, HI: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04a), pp. 54-80; Christopher Layne, "Who Lost Iraq and Why It Matters: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World Policy Journal,* Vol. 24, No. 3 (Fall, 2007a), pp. 38-52; Christopher Layne, "America's Middle East Grand Strategy After Iraq: the moment for offshore balancing has arrive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1 (January, 2009a), pp. 5-25; Monteiro, 2014; Posen, 2003; Barry R. Posen, "The Case for Restraint," *The American Interest,* Vol. 3, No. 2 (November, 2007), pp. 7-32; Posen, 2013;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확장 전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적 국가정책으로 등장했었으나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이하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자 역외균형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지지를 표하게 된다.[158] 1990년대 대안적 국가 정책으로 역외균형전략을 소개한 연구자는 레인(1997b)과 포젠(1996/97)이며,[159] 이라크 전쟁 이후 역외균형전략 주장에 합세하기 시작한 연구자는 월트(2005, 2007)와 몬테이로(2014)이다.[160]

역외균형전략은 유일한 패권국이 수행해야 할 전략으로서 네 명의 연구자 각각에게 소개되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동일한 가정에 입각하여 역외균형전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레인은 신고립주의적 역외균형전략을, 몬테이로는 방어우위전략으로서 역외균형전략을, 포젠은 자제를 위한 역외균형전략을 그리고 월트는 합리적 역외균형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레인의 신고립주의적 역외균형전략은 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한 역외 간섭 최소화를 의미한다.[161] 그는 공격적 현실주의 전략으로서

Posen, 2014; Posen, 2020a; Stephen M. Walt, "In the National Interest: a new grand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Review (Cambridge, Mass. : 1982),* Vol. 30, No. 1 (February, 2005), pp. 6-12; 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 김성훈 역, (파주: 한울, 2007); Stephen M. Walt, "The End of the American Era," *The National Interest,* No. 116 (November, 2011), pp. 6-16; Mearsheimer and Walt, 2016; Walt, 2018.

158) 이혜정,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2015), pp. 172-173.

159) Layne, 1997b; Posen and Ross, 1996/97.

160) Walt, 2005; Walt, 2007; Monteiro, 2014.

161) 포젠과 앤드류 로스(Barry R. Posen and Andrew L. Ross, 1996/97)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대전략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 그리고 우세전략(primacy)이다. 레인의 역외균형전략은 국가 대전략 중 신고립주의가 포괄하는 불간섭주의를 그 내용으로 주로 받아들이는데 유럽과 북동아시아 그리고 중동지역에서의 완전한 미군 철수와 간섭 최소화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강조는 대표적인 레인의 신고립주의적 역외균형전략의 내용이다. Posen and Ross, 1996/97, p. 6; Layne, 1997b, pp. 112-114; Layne, 2002, p. 245; 포젠과 로스의 대전략 구분뿐만 아니라 몬테이로(2014)의 대전략 구분에서도 레인의 역외균형전략 내용은 신고립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다. Monteiro, 2014, pp. 65-70.

역외균형전략이 다가올 다극체계에서의 미국의 지위 유지 및 이익의 극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162]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잠재적 패권국이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63] 고립주의적 특성이 강한 레인의 역외균형전략과는 달리 월트는 합리적인 역외균형전략 수행을 강조한다. 월트의 저작 『미국 길들이기 *(Taming American Power)*』 한국어판 서문에서 그는 완전한 고립주의도 아니면서 우세전략도 아닌 합리적인 역외균형전략이 현재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대전략임을 분석하고 있다.

> "미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초강대국이라는 우위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고립주의를 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는 **더욱 현명하고 자기 절제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힘을 길들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미국의 우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선을 변화해야 한다."[164]

몬테이로(2014)는 단극체계에서 미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방어우위전략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에게 역외균형전략은 대표적인 방어우위전략 가운데 하나이다.[165] 그는 역외균형전략만을 강조하였다기보다 방어우위전략 전반을 미국이 수행해야할 필수 전략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분류한 방어우위의 세 가지 전략(offshore balancing,

---

162) Layne, 1997, pp. 112-113, 117.

163) Layne, 2004a, pp. 79-80 Layne, 2007a, pp. 45-47; Layne, 2009a, pp. 24-25; Christopher Layne, "The U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and Grand Strategy: how American elites obstruct strategic adjustment," *International Politics (Hague, Netherlands),* Vol. 54, No. 3 (May, 2017), pp. 260-275.

164) **강조 및 밑줄**은 저자. Walt, 2007, p. 11. 월트가 현명하고 자기절제적 외교정책으로 소개한 합리적 역외균형전략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Walt, 2005, p. 12; Walt, 2011, pp. 13-15; Mearsheimer and Walt, 2016, pp. 2-3; Walt, 2018, pp. 14-15.

165) Monteiro, 2014, p. 66.

selective engagement, collective security)이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166] 마찬가지로 포젠(2007, 2008, 2013)은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역외균형전략을 받아들이고 있다.[167] 구체적으로 포젠은 과잉팽창적인 미국 패권의 힘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역외균형전략으로 선회되어야 하며,[168] 유럽의 군사력은 스스로를 보호할 충분한 수준이기에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어야함을 주장한다.[169]

H4. 외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제정치체계에서 외적 균형은 주로 동맹의 결성으로 나타난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위협하는 국가를 대항할 수 없을 때 동맹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다. 동맹을 결성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네 연구자들은 동맹이 수반하는 여러 비효율적 결과 가운데에서도 무임승차(free-ride)[170]와 연쇄연루(chain-gangs)[171]에 공통적으로 주목한

166) Monteiro, 2014, pp. 218-219.
167) Posen, 2007; Barry R. Posen, "Restraining Order," *The American Interest,* Vol. 3, No. 3 (2008); Posen, 2013, p. 118.
168) Posen, 2008, p. 96.
169) Posen, 2020a, pp. 23-24.
170) 동맹의 지도국(leading state)에 문제를 맡기고 긍정적 결과만을 취하는 무임승차 전략은 책임전가와 상이한 국가 전략이 아니다.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무임승차는 책임전가 충동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토마스 크리스텐슨(Thomas J. Christensen)과 잭 스나이더(Jack Snyder) 또한 "다극체계의 병리는 책임전가인데 책임전가의 양상은 다른 국가의 균형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Mearsheimer, 2014a, pp. 156-157; Thomas J. Christensen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Spring, 1990), p. 141.
171) 연쇄연루는 특정 국가가 처한 갈등에 특정 국가의 동맹국들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관여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Tongfi Kim, "Why Alliances Entangle But Seldom Entrap States," *Security Studies,* Vol. 20, No. 3 (August, 2011), pp. 351-352.

다.

먼저 네 연구자 모두는 무임승차 문제가 모든 체계에서 나타나는 국가들의 행동으로 동맹 유지의 대표적인 비효율적 결과라고 주장한다.[172] 특히 포젠과 월트는 무임승차 전략이 합리적인 국가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한다. 포젠(1996/97)은 동맹과 같은 협력 안보는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행동문제를 수반한다고 말한다.[173] 그는 다극체계에서도, 양극체계에서도 그리고 단극체계에서도 국가들의 무임승차 경향이 나타남을 포착하였다.[174] 궁극적으로 포젠은 '국가들이 원래 그들의 힘을 절약(husband)하려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국가 행동으로서 무임승차 전략이 수행된다'[175]고 분석한다. 월트(1990)는 동맹국들이 지도국의 동맹 헌신(alliance commitments)을 신뢰하게 되면 무임승차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임승차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약소국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정책이다.[176] 월트는 강대국 또한 무임승차가 가져다주는 합리성을 고려해 타국의 무임승차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무임승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77] 이는 미국의 동맹 관리와 국제 문제에 관한 무분별한 개입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비합리적인 정책 계산에 의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178]

레인과 몬테이로는 동맹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나는 연쇄연루에 주목하

---

172) 강대국의 경우에는 극성에 따라 무임승차 전략채택 양상이 달라지지만, 약소국의 경우 극성을 막론하고 국가들이 고려하는 주요 전략으로 나타난다. Christopher Layne, "US Hegemony and the Perpetuation of NATO,"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3, No. 3 (2000), pp. 65, 83; Monteiro, 2011/12, p. 21; Posen, 2014, pp. 21, 33; Walt, 1990, p. 30.

173) Posen and Loss, 1996/97, pp. 30-31.

174) 다극체계에서의 무임승차 경향은 다음을 참고하라. Posen, 1986, p. 64; 양극체계에서의 무임승차 경향은 다음을 참고하라. Posen, 1986, pp. 242-243; 단극체계에서의 무임승차 경향은 다음을 참고하라. Posen, 2009; Posen, 2013, p. 121; Posen, 2014, p. 65; Posen, 2020a, p. 9.

175) Posen, 2014, p. 21.

176) Walt, 1990, p. 30.

177) Walt, 1989, p. 37; Walt, 2011, p. 13.

178)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Spring, 1985), p. 40; Walt, 1999a, p. 42.

는데 다극체계에서는 이러한 동맹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단극체계에서 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한다. 레인(1997b, 1998)은 연쇄연루에 대하여 국가들이 동맹 헌신으로 동맹국의 갈등에 연루될 수 있는데 다극체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한다.[179] 더욱이 그는 다극체계에서 연쇄연루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책임전가 등의 문제가 빈번해 국가들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국제정치체계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분석한다.[180] 물론 단극체계에서 동맹의 비효율성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레인은 미국의 중동 관여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무임승차가 이미 단극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에 따른 연쇄연루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한다.[181]

마지막으로 단극체계를 분석한 몬테이로(2011/12, 2014)는 단극체계에서 핵을 가진 강대국들의 무임승차와 중견국•약소국들의 패권 의존 등 동맹의 비효율성이 나타남을 지적한다.[182] 하지만 양극 및 다극체계에서 나타난 동맹의 비효율성과 비교하였을 때 단극체계에서는 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단극 패권의 주도적인 대전략 구사를 통해 자주적으로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183] 단극 패권의 비효율성 감소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몬테이로는 패권국이 동맹의 핵 보유를 제한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핵 보유로 발생하는 동맹국 지역 갈등과 힘의 불균형 상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이다.[184] 정리해보면 레인과 몬테이로는 동맹의 비효율성과 국제정치체계의 극성 간 관계에 주목하였다면 포젠과 월트는 동맹이 비효율적 결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무임승차라는 국가의 합리적 행위를 연구하였다.

---

179) Layne, 1997b, p. 116; Layne, 1998, p. 22.
180) Layne, 1993, p. 45; Layne, 2000, pp. 65, 83.
181) Layne, 1993, p. 34; Layne, 1996, p. 72; Christopher Layne, "Obama's Missed Opportunity to Pivot Away from the Middle East," *Insight Turkey,* Vol. 17, No. 3 (Summer, 2015a), p. 20.
182) Monteiro, 2011/12, p. 21; Monteiro, 2014, pp. 162, 231.
183) Monteiro, 2011/12, p. 21.
184) Nuno P. Monteiro and Alexandre Debs, "The Strategic Logic of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Fall, 2014a), p. 12.

H5. 자국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은 유화정책과 편승 전략을 택하지 않는다.

강대국은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이나 위협을 가하는 강대국에게 유화정책과 편승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본 가설은 네 연구자들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모든 연구자가 강대국의 유화 전략이 비합리적인 전략임을 표명하고 있으며,[185] 편승이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의 주된 전략임을 인정하고 있다.[186]

다만 네 연구자들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밝힌 이유는 탈냉전기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에서 나타나는 강대국의 편승전략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레인, 포젠 그리고 월트는 강대국이 단극체계에서 전략적으로 편승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레인(2011)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게 편승하는 중국의 전략을 포착한다. 이는 합리적 행위자인 중국이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국력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187] 포젠(2006) 또한 1998년부터 영국의 대미국 전략은 편승 전략에 가까웠음을 밝힌다. 단극체계에서 영국은 사활적 이슈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진을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자 합리적으로 편승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188] 월트는 국가의 편승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단극 패권이 매우 높은 수준의 국력을 가지고 있기에 합리적 정책결정 차원에서 강대국의 편승 행위가 나타난다고 말한다.[189] 반면 몬테이로(2011/12, 2014)는 미어샤이머가 정의한 편승 개념이 강대국 전략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나, 단극체계에서 단

185) Layne, 2017, pp. 272-273; Monteiro and Debs, 2014b, p. 27; Posen, 2014, pp. 80, 172; Walt, 1989, p. 30.

186) Christopher Layne, "The Unbearable Lightness of Soft Power," in Inderjeet Parmar and Michael Cox (eds.), *Soft Power and US Foreign Policy*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0), p. 55; Monteiro, 2014, p. 160; Posen, 2006c, p. 157; Walt, 1985, p. 17.

187) Christopher Layne, "The Unipolar Exit: beyond the Pax American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4, No. 2 (June, 2011a), p. 152.

188) Posen, 2006c, p. 167.

189) Walt, 2009a, pp. 109, 115.

극의 선호를 단순히 수용하는 전략(accommodation)으로써 편승은 강대국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한다.[190] 결론적으로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같이 강대국의 유화 정책과 편승 전략은 대개 합리적 전략이 아니지만 국제정치체계의 구조가 단극체계일 때는 확장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극체계에서 강대국의 편승 전략과 관련하여 레인, 포젠, 월트는 전략적 편승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정했고, 몬테이로는 수용 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해 약소국의 편승 전략과는 구별되는 강대국 편승 전략의 가능성을 논했다.

H6.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는 강대국들로 하여금 현상변경을 원하게 만든다.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에 관한 다섯 가지 독특한 전제는 국가들로 하여금 현상변경을 추구하게 한다. 미어샤이머의 본 가설은 네 명의 연구자 모두에게 일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은 아니다. 네 연구자 모두 '국가들이 그들의 체제 내 위치를 늘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방어적 현실주자 월츠의 현상유지 경향성은 거부하지만,[191] 강대국이 늘 현상변경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현상변경을 꾀한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192]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는 강대국의 현상변경 추구 행동이 무조건적 경향성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단극체계에서 단극 패권은 특정한 현상변경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레인(2006, 2007)은 단극 패권으로서 미국이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세한 힘을 보유하고자 현상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패권국은 지역의 패권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패권으로 여겨질 수 있는 힘을 갖고자 노력한다.[193] 포젠(2014) 또한 레인의 분석과 같이 현재 미국의 대전략이 '정치적 팽창을 꾀

190) Monteiro, 2011/12, p. 24; Monteiro, 2014, p. 160.
191) 케네스 월츠, 2013, p. 197.
192) Christopher Layne, "Security Studies and the Use of History: Neville Chamberlain's grand strategy revisited," *Security Studies,* Vol. 17, No. 3 (September, 2008b), pp. 427-428; Monteiro, 2014, pp. 64-65; Posen, 1993b, p. 100; Walt, 1985, p. 12.
193) Layne, 2006c, pp. 36-38; Layne and Thayer, 2007, pp. 67, 75.

하고 높은 국방비를 책정하면서 현상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분석한다.[194] 마찬가지로 월트(2007, 2018)는 미국이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국가가 아니며 우위를 더 추구하며 현상변경을 꾀하고 있다고 말한다.[195]

단극 패권의 현상변경 행동 패턴도 단극체계에서 독특하게 포착되는 현상이지만 몬테이로(2011/12, 2014)는 패권국의 현상변경, 현상유지 대전략이 다른 강대국의 현상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196] 그는 단극체계의 유지를 위해 단극 패권이 강대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가능성 및 기회를 열어두고 방어우위전략을 대전략으로 채택하면 강대국의 현상유지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강대국의 현상변경 의도 억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197]

정리하면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 모두 미어샤이머의 본 가설인 강대국의 현상변경 의지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를 표했다. 네 연구자에 의하면 강대국은 생존을 위한 힘의 극대화 기회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상변경을 수행한다. 다만 미어샤이머가 주장하는 유일한 지역 패권국의 현상유지 경향성에 대해서 이들은 상이한 분석을 내어 놓는다. 왜냐하면 네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된 단극 패권국 미국이 힘의 확장을 통한 현상변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극 패권 미국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분석은 미어샤이머에게도 포착되는 사실이다. 그의 최신 저작인 *The Great Delusion*은 단극 체계가 형성된 초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단극 패권은 "세상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만들기"위한 차원에서의 현상변경을 이룬다고 말한다.[198] 즉 강대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한다는 미어샤이머의 본 가설에 관하여 네 연구자는 공격적 현실주의 가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차원에서 강대국의 합리적인 현상변경 의도를 주장하였고, 단극 체계의 패권국인 미국의 현상변경에 관하여서는 다섯 연구자 모두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194) Posen, 2014, pp. 67-68.
195) 스티븐 월트, 2007, pp. 37, 165-166; Walt, 2018, p. 12.
196) Monteiro, 2011/12, pp. 24-26; Monteiro, 2014, pp. 74, 103-104.
197) Monteiro, 2014, pp. 80, 112.
198) Mearsheimer, 2018a, p. 139

H7. 강대국은 핵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국제정치체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확보된 보복 능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우위를 추구한다는 본 가설은 냉전시기 소련과 미국의 핵 우위 경쟁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레인, 몬테이로, 포젠 그리고 월트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핵 기술 개발에 비용을 투자한다는 가설에 동의한다. 특히 레인, 포젠, 월트는 핵 기술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동맹 형성 등의 다양한 우위 확보 경쟁의 양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몬테이로는 더 나아가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 군사력 전환에 용이한 경제력 우위 또한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레인(2006)은 프랑스가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 미국 단극시대를 예견하여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유럽을 구축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역사에 주목한다.[199] 또한 레인(2007, 2009, 2020)은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핵무기 및 군사력 우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했어도 국가들 간 지속적인 힘의 우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200] 포젠(1986)은 미어샤이머의 분석과 유사하게 소련과 미국이 핵 군비경쟁을 통해 수많은 핵탄두를 개발하고 경쟁한 사례에 주목한다.[201] 특히 포젠(1986, 2014)에 따르면 핵무기가 주는 갈등 및 위협 억제효과에도 불구하고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공격적 의도가 담긴 군사력 확충 및 추가적 행동을 수행한다.[202] 월트(1988, 1990, 2001, 2018) 또한 국가들이 서로의 핵무기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핵무기 및 군사력 정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203]

---

199) Layne, 2006c, p. 33.

200) Layne, 2009b, p. 172; Christopher Layne, "Preventing the China-U.S. Cold War from Turning Hot,"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3, No. 3 (2020a), p. 348; Layne and Thayer, 2007, pp. 72-73.

201) Posen, 1986, p. 18.

202) Posen, 1986, p. 244; Posen, 2014, pp. 74-75.

203) Walt, 1988, p. 308; Walt, 1990, p. 278; Stephen M. Walt, "Nothing Revolutiona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No. 4 (October, 2001), p. 691; Walt, 2018, p. 9.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결정 동인에 대한 연구에 주목해온 몬테이로는 핵무기를 확보한 국가들의 경쟁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몬테이로(2014a)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 핵무기 선제 사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 기술력 및 무기 개발에 비용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음을 포착한다.[204] 다만 단극체계에 들어와서는 핵 우위 경쟁의 양상이 단극 패권의 대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핵무기가 완전히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에도 단극 패권이 방어우위전략을 구사한다면 핵 보유 강대국이 군사력 경쟁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다른 측면에서 발전을 꾀한다고 주장한다.[205] 결론적으로 몬테이로는 레인, 포젠, 월트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 생존을 위해 핵기술과 재래식 우위를 포함한 군사력 우위를 추구한다는 사실에도 동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단극 패권의 대전략에 따라 군사력 우위 경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H8. 다극체제는 양극체제에 비해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치체계에서 강대국의 수가 셋 이상일 때 두 강대국으로 이루어진 국제정치체계보다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본 가설은 현실주의의 많은 학자들에게 현재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레인(1997b, 2000, 2006, 2007), 포젠(1986, 2002, 2004) 그리고 월트(1990, 1997a, 2009)는 미어샤이머의 양극체계 안정론 입장을 공유하지만,[206] 몬테이로(2011/12, 2014)의 경우 양극체계와 다극체계 모두 단극체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었음을 주장한다.[207] 단극체계에서 국가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몬테이로는 단극체계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전쟁 가능

---

204) Monteiro and Debs, 2014a, pp. 27-29.
205) Monteiro, 2014, p. 99.
206) Layne, 1997b, pp. 96, 105-106, 119; Layne, 2000, p. 83; Layne, 2006c, p. 21; Layne, 2007a, p. 56; Posen, 1986, p. 63; Barry R. Posen, "The Best Defense," *The National Interest,* No. 67 (Spring, 2002a), pp. 124; Barry R. Posen, "ESDP and the Structure of World Power,"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39, No. 1 (2004), p. 7; Walt, 1990, p; 271; Walt, 1997a, p. 163.
207) Monteiro, 2011/12, pp. 12; Monteiro, 2014, p. 150.

성에 주목하느라 양극과 다극체계 간 뚜렷한 차이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진행한 갈등 데이터 기반 연구에서 다극체계가 양극체계에 비해 여러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는 단극체계를 제외하면 양극체계와 비교할 때 다극체계의 불안정성이 높음을 보여준다.[208]

레인(1993)은 다극체계에서의 강대국 간 갈등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였고,[209] 국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다극체계의 특성이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한다.[210] 포젠(2009)의 경우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 개념 위에서 다극체계의 불안정성에 동의한다. 다만 평화의 확장적 개념 하에서는 양극체계도 군사력 증강, 대리전과 같은 불안정성이 포착됨을 지적한다.[211] 마지막으로 월트는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같이 다극체계는 힘의 배분 상태가 불균형적이고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국가의 오산 가능성이 높아 더욱 불안정하다고 말한다.[212]

---

208) Monteiro, 2011/12, pp. 19, 34; Monteiro, 2014, pp. 172-173.
209) Layne, 1993, pp. 6, 42.
210) Layne, 2006c, pp. 21.
211) Posen, 2009, p. 352.
212) Walt, 1992, p. 331; Walt, 2009a, pp. 98-99.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				
분석 논증의 가설	공유하는 학자			
	크리스토퍼 레인	누노 몬테이로	배리 포젠	스티븐 월트
1. 강대국의 책임전가	다극체계에서 빈번, 도서국가에게 유리	불간섭 전략으로서 책임전가	다극체계에서 빈번, 도서국가에게 유리	자연적 경향으로서 책임전가
2. 지정학 변수에 대한 고려	해양 강대국의 지역/세계 패권 추구	단극 패권의 대전략 결정 변수로서 지정학	해양 강대국의 자제	위협 수준 결정 변수로서 지정학
3. 강대국의 역외균형전략	고립주의적 역외균형	방어우위전략으로서 역외균형	자제를 위한 역외균형	합리적 역외균형
4. 동맹의 비효율성	다극체계에서 비효율성 증가	단극체계에서 비효율성 감소	합리적 행위로서 무임승차	합리적 행위로서 무임승차
5. 편승과 유화전략	모두 공유하나 단극체계에서 강대국은 전략적 편승 수행	모두 공유하나 단극체계에서 강대국은 수용 전략 수행	모두 공유하나 단극체계에서 강대국은 전략적 편승 수행	모두 공유하나 단극체계에서 강대국은 전략적 편승 수행
6. 강대국의 현상변경	현상변경의 합리적 추구	단극패권 대전략의 강대국 현상변경 억제	현상변경의 합리적 추구	현상변경의 합리적 추구
7. 핵 우위 경쟁	핵무기•재래식 무기 우위	군사력•경제력 우위	핵무기•재래식 무기 우위	핵무기•재래식 무기 우위
8. 다극체계와 갈등	다극체계 내 경제 갈등 빈번	다극•양극 체계 간 차이 미미	소극적 평화 개념으로서 다극체계 불안정	다극체계의 불안정성 묵시적 인정

<표 2-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설을 공유하는 국제정치이론가 (※ 출처: 작성자)

4. 소결

미어샤이머의 세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구체화 한 레인, 몬테이로, 포젠 그리고 월트의 여덟 가지 가설에 대한 주장은 상기 <표 2-2>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네 연구자 모두는 국제정치체계를 이해하고 국가 행동을 설명하는데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와 유사한 분석 논증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각각의 가설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와 중심 주제는 네 연구자 모두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주장과 분석적 차원에서 동일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분석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덟 가지 가설과 관련하여 월트는 다른 세 연구자들과 비교할 때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논증을 펼치고 있다. 제시한 가설 1번과 3번은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온전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몬테이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주목한 중심 주제나 범위에서 벗어나는 논의를 전개한 경우가 많다. 몬테이로는 단극체계에서 패권의 역할과 강대국의 행동전략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 논할 수 있는 가설 1, 5, 6, 7, 8번에서 미어샤이머와 상대적으로 상이한 -그러나 미어샤이머의 가설과 반대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낸다.

2장을 통해 목표하고자 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미어샤이머, 레인, 몬테이로, 포젠 그리고 월트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레인, 몬테이로, 포젠, 월트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어샤이머와 동일한 가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와 국가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인지하고 강대국의 대전략 분석 틀로서 이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을 다른 국제정치이론가들과 구별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213] 본 장을 통해 공격적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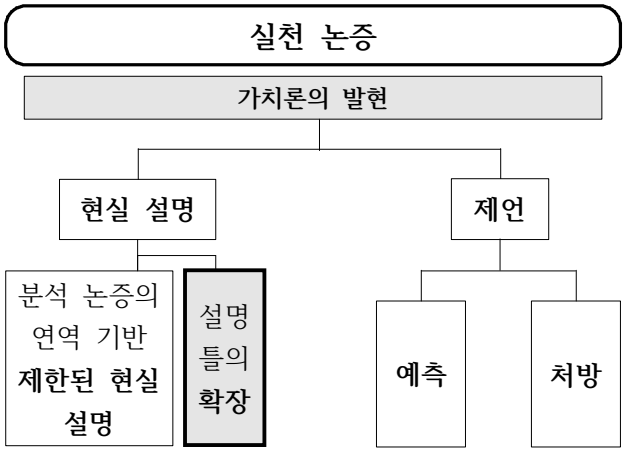
213) 레인, 몬테이로, 포젠 그리고 월트가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와 유사한 분석 틀로 국제정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긍정하는 기존 연구는 다음을 간략히 참고할 수 있다. 단극체계로의 전환 이후 미어샤이머와 월트가 비슷한 국제정치학적 관점을 견지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고하라. Arash H. Pashakhanlou,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ealism," in Davide Orsi • J. R. Avgustin and Max Nurnus (eds.), *Realism in Practice: An Appraisal* (E-International

주의 학파를 구성한 것은 선구적으로 이론화 작업을 진행한 미어샤이머만을 대상으로 한 다소 편협했던 기존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데 함의가 있다. 또한 미어샤이머의 이론화 작업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까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을 적용한 다섯 연구자들의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발전적인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 대한 연구 진행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Relations, 2018), pp. 37-38;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포젠의 직접적 옹호는 다음을 참고하라. Posen, 2002a, pp. 119-126; 레인이 공격적 현실주의를 선도하는 연구자 중 하나이며 미어샤이머와 상당 부분에서 주장이 일치한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Pashakhanlou, 2013, pp. 212-213;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단극체계를 설명함에 있어 몬테이로가 발전시킨 단극체계이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도입할 수 있게 된 맥락은 이들이 유사한 국제정치학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는 주장은 다음을 참고하라. Anurag Sinha, "John J. Mearsheimer on 'Liberal Ideal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Yale Macmillan Center,* November 30, 2017. https://macmillan.yale.edu/news/john-j-mearsheimer-liberal-ideals-and-international-realities (검색일: 2021년 12월 27일).

Ⅲ.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 재구성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가치론에 영향을 받아 포착된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담론 전체를 의미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이 가치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체계에 근간해서 정치 문제를 포착했다기보다 이들의 가치론이 담고 있는 학파의 목적과 인식에 의해 복잡한 현실이 제한적으로 집중되어 논의되는 것을 말한다.[214] 제한된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분석은 대개 이론의 분석 논증에 따라 진행된다. 실천 논증에서 분석 논증에 기반한 현실 분석은 실천적 제언의 구체적 내용인 예측(prediction)과 처방(prescription)으로 이어진다. 특히 예측과 처방으로 구성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21세기에 들어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다.



<그림 2>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 구성 요소 (※ 출처: 작성자)

정리하면 <그림 2>에서처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현실 설명과 제언의 부분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현실 설명은 제한적인 현실의

214) Carr, 1964, pp. 13-14; Cox, 1981; 요하네스 헤센, 『가치론』, 진교훈 역 (서울: 서광사, 1992), p. 36-37; 전재성, 「E.H.카아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제3호 (1999), pp. 395-396.

문제를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체계를 통해 논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언의 부분은 설명한 문제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예측과 처방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실천 논증은 이들의 가치론의 영향력 하에서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파의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중동 전략, 이란 핵개발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전략, 중국의 부상 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실천 논증에 집중한다. 해당 이슈에 대해 각 연구자들은 유사하지만 서로 약간의 다른 주장을 전개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연구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모두 실천 논증의 현실 설명 부분에서 분석 논증을 온전히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9.11 테러와 그 후

2021년 4월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이하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발표 이후 미군은 바그람 공군기지(Bagram air base)를 떠났다.[215]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주둔은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 카에다(القاعدة)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본청(the Pentagon)을 공격한 이후부터 지속되어왔다.[216] 일본의 진주만

215) 인남식, 「탈레반, 아프간 장악 후폭풍… 中·러·인도·이란에도 위협」, 『조선일보』, 2021년 8월 16일.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8/16/6OAVV7IHONDM3EFLMV23WWD23I/ (검색일: 2021년 8월 17일); P. Michael McKinley, "We All Lost Afghanistan: two decades of mistakes, misjudgments, and collective failure," *Foreign Affairs,* August 16,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8-16/we-all-lost-afghanistan-taliban (검색일: 2021년 8월 17일).

216) Terence Neilan, "2 Planes Crash Into World Trade Cent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1, 2001. https://www.nytimes.com/2001/09/11/national/2-planes-crash-into-world-trade-center.html?searchResultPosition=13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David Stout, "In Washington, an Attack on a Symbol of American Pow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1, 2001. https://www.nytimes.com/2001/09/11/national/in-washington-an-attack-on

공습을 제외하고 미국 본토의 중심부를 공격한 첫 번째 사건이기에 당시 정책결정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W.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the war on terror) 선포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후 2001년 10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이 수행되었고 2002년 이라크 자유 작전이 구상되어 2003년 수행되었다.[217]

이라크 자유 작전이 구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라크와의 전쟁이 미국의 국익과 배치된다."는 분석을 내용으로 한 반대 성명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218] 당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조직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구성원인 미어샤이머, 포젠 그리고 월트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이라크 전쟁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처방적 제언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 전반이 활발하게 개진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9.11 테러 발생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의 실천 논증은 주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중동 내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 공통된 주제에 대한 다섯 연구자들의 실천 논증은 얼마만큼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 기대어 각자의 실천적 주장을 펼쳤는지와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들의 분석 논증에 근간하여 9.11 테러 이후 사건을 분석하고 제언한 연구자는 몬테이로이다. 몬테이로는 그의 실천 논증 내 분석 부분에서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여러 갈등과 연관되어온 이유로 국제정치체계의 극성에 주목한다. 냉전시기 양극체계는 연루의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갈등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컸다. 하지만 유일한 강대국이 존재하는 단극체계가 구성되면서 양극 체계에서 발휘되

-a-symbol-of-american-power.html?searchResultPosition=2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217) Donald P. Wright et al., *A Different Kind of War: the United States Army in operation ENDURING FREEDOM (OEF) october 2001-september 2005*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2010), pp. 27-28; Donald P. Wright and Timothy R. Reese, *On Point Ⅱ: transition to the new campaign, the United States Army in operation IRAQI FREEDOM may 2003-january 2005*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2008), pp. 25-27.

218) The New York Times, 2002.

었던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미국의 적국들은 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요구에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이 되어버린다. 몬테이로는 이러한 상황이 취약해진 약소국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군사력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계획하게 만들고 여러 갈등이 촉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219] 다만 몬테이로는 실천 논증의 현실 설명 부분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뿐만 아니라 약간의 확장을 도모해 9.11 이후 사건을 바라보고자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정보와 내재적 힘의 변화(endogenous power shift)가 이라크 전을 이끈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대상으로 예방전쟁을 펼친 이유는 이라크의 국내적 힘의 변화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가진 이라크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220] 즉 몬테이로는 힘의 변화라는 국제정치체계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결정자들이 보유한 정보의 불확실성 증대를 함께 주목하였고 확장적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이 공격적 군사력 수행을 제약하고 외교적 수단을 다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처방한다.[221]

실천 논증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을 통해 9.11 테러 발생 후 미국의 대중동 전략을 분석하지만 동시에 국내정치적, 개인적 요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몬테이로보다 약간 더 확장적인 분석을 보여준 연구자는 포젠이다. 포젠은 먼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 기반하여 현실 설명과 제언을 전개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벌어지는 주변 지역 강대국들의 견제와 균형 관계가 팽배하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철군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에 대한 러시아, 이란, 인도의 관여를 예측하고, 이에 저항하는 탈레반 정부에 대한 파키스탄의 지원 그리고 파키스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관여가 팽팽한 교착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222] 이러한 분석은 국제정치 체계 내 국가

---

219) Nuno P. Monteiro, "Why We (Keep) Fighting," in Stephen M. Walt Guest Post, *Foreign Policy,* December 29, 2011. https://foreignpolicy.com/2011/12/29/why-we-keep-fighting/ (검색일: 2021년 8월 23일)

220) Monteiro and Debs, 2014b, pp. 23-26.

221) Monteiro, 2011.

222) Barry R. Posen, "It's Time to Make Afghanistan Someone Else's Problem," *The Atlantic,* August 18, 2017.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7/08/solution-afghan

들 간 힘의 균형 상태를 중심으로 9.11 이후 미국의 대중동 전략을 논한 것이다. 다만 주목해볼 것은 포젠이 알 카에다 조직, 이라크의 국내정치가 미국의 대중동 전략 수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카에다가 야망적이고 무자비하며 미국 비행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 있는 조직임을 밝히면서 알카에다 궤멸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한 미국의 방어적 대응(첩보활동, 외교 등)의 필요성을 처방한다.[223] 더불어 이라크 내부의 파벌과 민족 분열 그리고 중앙 정부의 방위 시스템 붕괴 등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국내 요인을 포착함으로써 미국은 동맹군 및 미군 철수, 역외 간섭(offshore intervention)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224]

마지막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중요성은 여전히 국가들 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9.11 테러 이후 중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분석하고 미국이 추구해야할 전략을 제언하기 위해 분석 수준의 확장을 주도적으로 도모한 연구자는 레인, 미어샤이머 그리고 월트이다. 레인은 9.11 테러 이후 국가를 주 행위자로 하는 국제정치체계에 개인 행위자가 비정상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음을 인정한다. 물론 9.11 테러가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것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여전히 국가가 국제정치체계의 주요 행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미국의 정책결정은 과도하게 비국가 행위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판한다.[225] 이러한 비판과는 별개로 그의 실천 논증의 현실 설명은 공격

---

istan-withdrawal-iran-russia-pakistan-trump/537252/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223) Barry R. Posen, "The Struggle Against Terrorism: grand strategy, strategy and tac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2002b), pp. 40, 47-48.

224) Barry R. Posen, "Exit Strategy: how to disengage from Iraq in 18 months," *Boston Review,* January 2, 2006a. https://bostonreview.net/forum/exit-strategy/barry-r-posen-responds-my-aim-advance-policy-debate-presenting-new-strategy%e2%80%94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Barry R. Posen, "Is There a Responsible Exit From the Strategic Ambush in Iraq?," *Middle East Policy,* Vol. 13, No. 2 (Summer, 2006b), pp. 7-9; Posen, 2013, pp. 123-124, 127.

225) Christopher Layne, "Iraq and Beyond: 'old Europe' and the end of the U.S. hegemony," in Christina V. Balis and Simon Serfaty (eds.), *Visions of*

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을 기반하지 않고 비국가 행위자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두 차례의 전쟁과 미군의 역내 주둔이라는 비극적 결말의 원인이 W.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Neo-conservatism)이라 불리우는 개인 행위자 및 집단의 오판임을 지적한다.[226] 또한 이라크 내 정치 지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윌슨주의 환각에 빠져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국가 건설(nation-building)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했던 미국 내 정책결정자를 비판하며 대중동 전략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자제력과 신중함(prudence)을 실천하길 처방한다.[227]

미어샤이머와 월트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강대국 정치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특히 중동 정치-에 관여하게 되어버린 상황을 지적[228]하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정부의 중동 정책을 바라본다. 먼저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와 이라크 전쟁 수행이 미국의 국익과 배치됨을 분석한다.[229]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사담 후세인이 명철하지는 않

America and Europe: September 11, Iraq and Transatlantic Relations (Washington, D.C.: CSIS Press, 2004b); Christopher Layne, "The War on Terrorism and the Balance of Power: the paradoxes of American Hegemony," in T. V. Paul •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c).

226) Christopher Layne, "Impotent Power? Re-examining the Nature of America's Hegemonic Power," *The National Interest* (September/October, 2006b); Layne, 2009a.

227) Christopher Layne, "A New Grand Strategy," *The Atlantic,* January, 2002.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02/01/a-new-grand-strategy/376471/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Layne, 2006b; Layne, 2007a; Christopher Layne, "Review: Regime Change: U.S. strategy through the prism of 9/11,"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5, No. 4 (December, 2007b), pp. 870-871.

228) John J. Mearsheimer, "Hearts and Minds," *The National Interest,* No. 69 (Fall, 2002), pp. 13-14; Walt, 2001/02, pp. 59-61.

229)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Realists' Are Not Alone in Opposing War With Iraq,"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49, Iss. 12 (November, 2002b); John J. Mearsheimer, "Guns Won't Win the Afghan War," *New York Times,* November 4, 2001b. https://www.nytimes.com/2001/11/04/opinion/guns-won-t-win-the-afghan-war.html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Walt, 2002b, p. 20; John J. Mearsheimer, "Hollow Victory," *Foreign Policy,* November 2, 2009a. https://foreignpolicy.com/2009/11/02/hollow-victory-2/ (검색일: 2021년 8월

지만 합리적이고자 노력하는 행위자라는 개인 행위자에 대한 분석,[230] 네오콘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라는 국내 정치에 대한 분석[231] 마지막으로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는데 음지의 영향력을 펼친 이스라엘 로비집단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AIPAC: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이하 AIPAC)– 에 대한 분석[232]을 전개한다. 미국의 대중동 전략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을 넘어선 확장적 현실 설명은 마음과 생각 전략(Hearts and Minds strategy),[233] 절제된 군사력 사용과 역외 균형전략 그리고 중동 내 미군 철수 제언으로 이어지며

18일).

230)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Can Saddam be Contained? history says yes," *Foreign Policy Bulletin (Washington, D. C.),* Vol. 14, No. 1 (2002a), pp. 2-5, 10, 12;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No. 134 (January-February, 2003a), p. 59;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Keeping Saddam Hussein in a Box,"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 2003b. https://www.nytimes.com/2003/02/02/opinion/keeping-saddam-hussein-in-a-box.html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그 외에도 개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John J. Mearsheimer, "Afghanistan: no more the good war," *Newsweek,* December 7, 2009b. https://www.newsweek.com/how-afghanistan-went-good-war-bad-75619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231) John J. Mearsheimer, "Hans Morgenthau and the Iraq War: realism versus neo-conservatism," *Opendemocracy.com,* May 19, 2005a. https://www.opendemocracy.net/en/morgenthau_2522jsp/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Stephen M. Walt and Joshua Muravchik, "The Neocons vs. The Realists," *The National Interest,* No. 97 (September/October, 2008), pp. 20-22, 28-29, 31.

232) Mearsheimer and Walt, 2007; Stephen M. Walt, "On Afghanistan Iraq, and the Lobby: a response to Peter Beinart," *Foreign Policy,* December 9, 2009b. https://foreignpolicy.com/2009/12/09/on-afghanistan-iraq-and-the-lobby-a-response-to-peter-beinart/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233) '마음과 생각' 전략의 개념은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처음 나타났다. "궁극의 승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이는 전쟁이나 갈등의 해결책이 종국에는 군사력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지적인 호소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Judith Crist, "Hearts and Minds: the right side of history," *Criterion,* June 23, 2014. https://www.criterion.com/current/posts/210-hearts-and-minds-the-right-side-of-history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실천 논증이 전개된다.[234]

살펴본 다섯 연구자들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실천 논증은 절제와 역외균형전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제언의 내용에 있어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다섯 연구자의 제언이 기반한 현실설명은 상대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 더 많이 기초한 몬테이로에서부터 분석 논증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에 제한적이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내 정치와 개인의 요인이 갖는 영향력을 동시에 주목한 레인, 미어샤이머 그리고 월트까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사건으로 다루어질 이란 핵개발에 관한 다섯 연구자의 실천 논증 또한 현실 설명 부분에 있어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2. 이란 핵개발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성명 광고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국제정치 학자들의 정책 개입을 이끈 사건은 이란 핵 합의이다. 이들은 두 번째 성명 광고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국제 원자력 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를 통한 정기적 사찰을 진행해야 함을 처방하고 다자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235] 해당 성명 광고에는 본 연구가 분석적 차원에서 조직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다섯 연구자 모두가 참여하였다. 이들의 실천 논증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기에 앞서 이란 핵개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79년 이란 혁명을 통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원을 받아온 팔레비 왕조(دودمان پهلوی)가 붕괴하면서 이란 내에서는 미국의 내정 간섭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후 1980년 이라크의 이란 공격은 이란이 느끼는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이란 공격의 원인은 이라크 국민 대다수가 이란 혁명정권과 같은 시아파(شيعة علي)이나 집권층이 수니파(أهل السنة)이기에 혁명의

234) John J. Mearsheimer, “Real World,” *Letter Published in the New Republic,* August 9, 2004, p. 4. https://www.mearsheimer.com/publications/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John J. Mearsheimer, “America Unhinged,” *The National Interest,* No. 129 (January/February 2014b), pp. 9-30.

235) The New York Times, 2015.

바람을 막고 수니파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란의 이라크 공격은 1988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후 이란은 핵무기와 같은 억제 능력을 통해 서구의 간섭과 주변 지역 국가의 침입을 막고 국가 생존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후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의심을 받았고 이에 부인해왔지만 결국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음이 사실로 밝혀졌다.[236]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다섯 연구자들 모두 이란 핵 합의 체결을 촉구하고 이란에 예방 전쟁 및 공격적 힘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237]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다섯 연구자 모두가 현실 설명 부분에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미국과 이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9.11 이후 중동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제언에서 다섯 연구자들의 현실 설명을 위한 분석 틀은 확장적이면서도 각기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란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국내정치적 요인 모두를 분석 기반으로 삼아 실천 논증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가장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에 근간하여 9.11 이후 사건을 분석하고 –물론 분석 틀의 확장이 포착되긴 한다– 제언을 전개한 몬테이로는

---

236) Anthony H. Cordesman, *Iran and Nuclear Weapons: background paper for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0.

237) John J. Mearsheimer, "Donald Trump Should Embrace a Realist Foreign Policy,"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27, 2016.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onald-trump-should-embrace-realist-foreign-policy-18502 (검색일: 2021년 9월 8일); Layne, 2007b; Nuno P. Monteiro, "U.S. Policy Toward Iran," *The Cato Institute,* April 3,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aFsga_wp7D4 (검색일: 2021년 9월 8일); Monteiro and Debs, 2014b; Barry R. Posen, *A Nuclear Armed Iran: a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policy problem,* 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2006d; Barry R. Posen, "Offense or Defense: U.S. options and Iran's nuclear program," *Dartmouth College Seminar,* February 24, 2010. https://www.youtube.com/watch?v=iLkaji-IxBc (검색일: 2021년 9월 8일);Stephen M. Walt, "The Mother of All Worst-Case Assumptions About Iran," *Foreign Policy,* November 30, 2012. https://foreignpolicy.com/2012/11/30/the-mother-of-all-worst-case-assumptions-about-iran/ (검색일: 2021년 9월 8일).

이란 핵개발과 관련하여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 이외의 설명 틀의 확장을 도모한다. 첫 번째로 이란 핵개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몬테이로는 국제정치 체계의 특성과 이란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동시에 살펴본다. 그는 1950년대 이미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실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이라크의 이란 침공과 미국의 중동 및 걸프 지역 주둔 장기화를 포착한다.[238]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기존 분석 논증 틀에 기반한 것으로 국제정치체계에서 생존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삼는 국가가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면 핵개발과 같은 힘의 증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 몬테이로는 이란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핵개발을 촉진했다고 분석하는데, 1989년 핵개발 반대파였던 루홀라 호메이니(سید روح‌الله موسوی خمینی)가 물러나고 핵개발 찬성파인 알리 하메네이(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ای)가 정권을 잡으면서 핵 프로그램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에 주목한다.[239]

두 번째로 몬테이로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예방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하는데 제언의 논거로 미국과 이란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증을 제시한다. 이란 핵 시설 공중타격과 같은 예방 전쟁은 현재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란 정권을 흔들 수 없으며, 도리어 이란의 정치적 결집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240] 또한 미국 내부에서 이란이 핵개발을 추진하는지 혹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지에 관하여 정책결정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예방 전쟁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다.[241] 결국 몬테이로는 실천 논증의 현실 설명 부분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 기반하여 이란 핵개발을 분석하였지만 동시에 이란의 정권 변화와 미국의 국내정치적 혼란이 갖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였다. 제한적 현실에 대한 이러한 확장된 설명 틀을 바탕으로 몬테이로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제언하였다.

포젠은 이란 핵개발에 관한 실천 논증에서도 앞서 9.11 이후 중동에 대

---

238) Monteiro, 2011/12, pp. 29-30.

239) Monteiro, 2011/12, p. 31.

240) Nuno P. Monteiro and Alexandre Debs, “The Flawed Logic of Striking Iran: handle it like North Korea instead,” *Foreign Affairs,* January 17, 2012; Monteiro and Debs, 2014b, p. 27.

241) Monteiro and Debs, 2014b, pp. 7-8.

한 분석과 동일하게 이론의 분석 논증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장적인 모습을 보인다. 포젠의 이란 핵개발에 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어왔는데 하나는 핵 국가 이란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경제 제재 및 공격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먼저 포젠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존 제언들을 반박하기 위해 중동 및 걸프 지역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사정에 주목한다. 이란 핵 보유가 주변 국가들의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터키-중동•걸프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가 이란 핵 보유에 위협을 느껴 핵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력 부족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서방 국가들의 이집트에 대한 원조의 영향력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구성국으로서 터키가 얻는 안보 이익 등 주변 국가들의 국내정치적 사정을 분석하며 핵확산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242]

미국의 대이란 정책으로 실현되었고 고려되었던 경제 제재 및 공격적 대응과 관련하여 포젠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과 함께 국내정치적 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우세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강조해왔던 포젠은 이란에 대한 비합리적 자원 소모를 중단해야 하며 잠재적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졌으나 여전히 견제해야하는- 러시아를 대응하는 합리적 자원 운용이 필요하다고 처방한다.[243] 또한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자원이

---

242) Barry R. Posen, "We Can Live With a Nuclear Ira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06e. https://www.nytimes.com/2006/02/27/opinion/we-can-live-with-a-nuclear-iran.html (검색일: 2021년 9월 8일); Bob Brustman, "Iran's Nuclear Ambitions: nuclear Iran is a manageable problem, says one discussant," *Harvard News Office,* March 23, 2006.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06/03/irans-nuclear-ambitions/ (검색일: 2021년 9월 8일); Posen, 2006d, pp. 16-21.

243) Barry R. Posen, "Maximum Pressure or Maximum Failure: America's shrinking options on Iran,"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Webinar, June 5, 2020b. https://www.youtube.com/watch?v=tX5UnRMCBxg (검색일: 2021년 9월 8일); Barry R. Posen,"The Middle East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a conversation with Barry Posen and Stephen Walt,"

풍부한 이란의 특징으로 인해 예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비합리적 전략이었음을 밝히고,[244] 트럼프의 카셈 솔레이마니(قاسم سليمانى, 이하 솔레이마니) 암살 지시와 같은 공격적 대응이 이란 내 민족주의와 국민들의 결집능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지적하며 미국의 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인 대이란 정책 전반을 비판한다.[245] 궁극적으로 포젠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이 가정하는 국제정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국과 이란 그리고 주변 국가의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란과의 핵 협상 체결을 제언하고 미국의 대중동 자제 전략을 다시금 강조한다.

다음으로 분석 틀의 확장을 상대적 큰 수준으로 도모하여 9.11 이후의 중동을 분석한 레인, 미어샤이머 그리고 월트는 앞서 몬테이로와 포젠과 같이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을 기반하면서 동시에 국내정치적 영향력 또한 분석하여 이란 핵개발의 문제를 포착하고 미국의 대전략을 제언한다. 레인의 이란 핵개발에 관한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현실 설명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미국의 간섭과 공격적 대응이 이란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이란 정책 결정과정에서 W. 부시 행정부의 무지와 독단적 결정을 비판한다. 레인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중동 지역 안정화 전략과 2003년 이라크 전은 이란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위협을 더욱 느끼게 만들었고,[246] 2002년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247]과 2004년 이란에 대한 선

Middle East Institute, Webinar, April 16, 2020c. https://www.mei.edu/events/middle-east-era-great-power-competition-conversation-barry-posen-and-stephen-walt (검색일: 2021년 9월 8일).

244) Posen, 2006d, p. 5.

245) Barry R. Posen, "Courting War," *Boston Review,* March 3, 2020d. https://bostonreview.net/war-security/barry-r-posen-courting-war (검색일: 2021년 9월 8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 대응이 중동 및 걸프 지역 내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실천 논증은 다음을 참고하라. Posen, 2006d, pp. 7-8; 이란에 대한 선제적 핵사용과 같은 공격적 대응이 윤리적 문제와 결부된다는 논증은 다음을 참고하라. Barry R. Posen, "The Containment Conundrum: how dangerous is a nuclear Iran? Overkill," *Foreign Affairs,* Vol. 89, No. 4 (July/August 2010), pp. 160-163; 이란 지도자들이 비이성적이고 종교에 매몰되어 행동한다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증은 다음을 참고하라. Posen, 2014, pp. 77-78.

246) Layne, 2002c; Layne, 2004c, pp. 117, 125.

247) 부시 독트린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조직과 독재자들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고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지목하여 이들에 대

제 공격 고려는 이란 내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란 국민들을 반미 진영으로 결집하는데 일조했다.[248] 즉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 따르면 미국의 간섭과 공격적 대응으로 이란이 위협을 느껴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249] 더불어 레인은 W. 부시 행정부의 독단적 외교정책 결정 행태와 이란에 대한 무지를 함께 지적한다. W. 부시 대통령과 그의 정책 고문은 전문가나 정치인들과의 협의 없이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며,[250] 이란과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적 인도 하에 이란 문제를 접근함에 따라 이란 핵개발 문제는 악화되었다.[251] 이론의 분석 논증과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레인의 분석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억제와 외교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구사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어놓으며 마무리된다.[252]

마지막으로 이란 핵개발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관한 미어샤이머와 월트의 논의는 분석 논증에 기반한 분석과 미국 내 로비집단 및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앞선 연구자들과 같이 미어샤이머와 월트 모두 이란 핵개발의 원인이 미국의 이란 위협에 기인함을 밝힌다.[253] 국제정치체계에서 자국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시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적 힘의 증강을 꾀하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개발을 촉구한 미국의 위협적인 태도가 형성된 원인과 관련하여 미어샤이머와 월트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미국 내 특정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한다. 이는 이스라엘 로비집단 AIPAC이다. 미어샤이머와 월트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미국과 이란은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했으나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방해와 압력을 구사하면서

한 유사시 선제공격도 가능함을 적시한 교서이다. 김영호,「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제1호, 2004, pp. 451-453.

248) Christopher Layne, “Iran: The Logic of Deterrence,” *The American Conservative,* (April 10, 2006d).

249) Layne and Thayer, 2007, p. 77.

250) Layne and Thayer, 2007, p. 81.

251) Layne, 2009a, p. 12.

252) Layne, 2009a, p. 15.

253) Mearsheimer and Walt, 2016; Mearsheimer, 2011b, pp. 29-30; John J. Mearsheimer, “Iran Is Rushing to Build a Nuclear Weapon – and Trump Can’t Stop It,” *The New York Times,* July 1, 2019a.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254] 미어샤이머와 월트는 이스라엘 로비집단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솔레이마니 암살을 충동적으로 결정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대통령 개인이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을 지적한다.[255] 분석 논증의 틀, 국내정치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이란 핵개발에 미친 영향력을 확장적으로 분석한 미어샤이머와 월트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정책 간섭에서 벗어나[256] 역외균형전략수행을 통해 지역 국가들의 상호 견제를 활용하여 이란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길 제언한다.[257]

결론적으로 다섯 연구자 모두 이란 핵개발에 대한 분석에 있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국내정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영향력 전반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대안적 정책을 처방한다. 9.11 테러 이후 중동에 관한 설명과 제언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실천 논증에서도

---

254) Mearsheimer and Walt, 2007, pp. 281-295, 305; John J. Mearsheimer, "U.S.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 Biden,"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Webinar, November 18,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KaTGGdsomf4 (검색일: 2021년 9월 8일); Stephen M. Walt, "Another bogus argument for war with Iran," *Foreign Policy,* March 1, 2012a. https://foreignpolicy.com/2012/03/01/another-bogus-argument-for-war-with-iran/ (검색일: 2021년 9월 8일); Stephen M. Walt, "Mr. Obama Must Take a Stand Against Israel Over Iran," *Financial Times,* March 5, 2012b. https://www.ft.com/content/38c9382a-65f8-11e1-979e-00144feabdc0 (검색일: 2021년 9월 8일).

255) John J. Mearsheimer, "It's Time to Take a Hard Line on Iran Debate #3 Unresolved U.S.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quared Debates,* September 28, 2018b. https://www.youtube.com/watch?v=Nmrrheucgf4 (검색일: 2021년 9월 8일); Mearsheimer, 2020; Stephen M. Walt, "Trump's Iran Policy is Brain-Dead," *Foreign Policy,* January 3,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1/03/qassem-suleimani-trump-iran-policy-lacks-coherent-objectives-strategy/ (검색일: 2021년 9월 8일).

256) John J. Mearsheimer, "Sinking Ship," *The American Conservative,* (August, 2010a), pp. 10-12; Walt, 2012a; Walt, 2012b.

257) Mearsheimer, 2011b; Mearsheimer and Walt, 2016, pp. 81-83; Stephen M. Walt, "The End of Hubris: and the new age of American restraint," *Foreign Affairs,* Vol. 98, No. 3 (May/June, 2019a).

이들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만이 아닌 추가적인 분석 수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실 설명 부분의 내용을 유연하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중국의 부상

탈 냉전기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2008년 경제불황 이후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로 인해 더욱 위협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현실 설명과 제언을 담은 실천 논증을 활발히 내어놓기 시작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이라크 전,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신문 광고와 같이 국제정치학자들의 단합된 목소리는 아직 부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전제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58]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실천 논증을 전개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중국의 부상을 미국 안보에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섯 연구자들은 주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을 근간으로 중국의 부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수행 전략을 제언한다. 특히 다섯 연구자들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현실 설명의 내용 모두에서 탈냉전 이후부터 미국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으로 전개해 온 확장적 우세전략을 비판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란 핵개발 분석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분석 논증의 틀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체, 변수의 중요성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면서 분석 틀을 소폭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2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현재 미국에게 위협적 수준이 아님을 주장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Michael Beckley, *Unrivaled: why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s sole super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8); Michael Beckley and Hal Brands, "Competition With China Could Be Short and Sharp: the risk of war is greatest in the next decade," *Foreign Affairs,* December 17,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12-17/competition-china-could-be-short-and-sharp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다섯 연구자 가운데 가장 이론의 분석 논증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을 다루고자 했던 이는 몬테이로이다. 몬테이로의 중국 분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의 단극정치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단극체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제언한다. 그는 미국이 방어적 수용(defensive accommodation) 전략을 구사한다면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주요 강대국이 되는 것을 인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태 지역에서 현재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평화의 지속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259] 분석 논증의 틀에 주로 기반하여 중국의 부상을 연구한 몬테이로에게도 선택적으로 확장적 분석 틀을 도입한 주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의 핵확산 우려 논의이다. 해당 연구에서 그는 트럼프라는 개인 행위자의 외교정책 의지가 동아시아 동맹국들로 하여금 방기 우려를 유발하는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짐을 비판한다. 트럼프 개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대아시아 동맹 정책으로 생긴 방기 우려가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핵개발 및 확산의 원인이 되어 미국의 장기적 안보 이익에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목한다.[260] 정리하면 몬테이로는 단극정치이론이라는 분석 논증을 기반으로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한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올바른 대응을 처방했지만 동시에 트럼프식 독단적 외교정책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개인 행위자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선택적 분석 틀의 확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포젠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관한 실천 논증에 있어 –이전의 두 사건에 대한 그의 논증과 비교하여– 가장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 기반한 설명과 제언을 내어놓고 있다. 다만 설명을 위해 분석 틀을 확장하는 변화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준다. 포젠은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예측한 때부터 미국이 자제전략을 기반으로 전지구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함을 강하게 제언해 왔다.[261]

---

259) Monteiro, 2011/12, p. 12; Monteiro, 2014, pp. 122, 212-215, 222; Nuno P. Monteiro, "Review: All Measures Short of War: the contes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ternational Politics Reviews,* Vol. 5 (2017), p. 64.

260) Nuno P. Monteiro and Alexandre Debs, "Cascading Chaos in Nuclear Northeast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Iss. 1 (2018).

261) Posen, 2003; Posen, 2009; Posen, 2013; Posen, 2014; Mina Pollmann, "A

특히 '자제 전략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처방하는 근거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이 중요시한 국력 지표를 통해 중국의 현재 경제력, 예측되는 미래 경제력 수준, 군사력, 인구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262]

분석 논증을 기반한 포젠의 실천 논증이 현실 설명 부분에서 분석 틀을 확장한 이유는 그가 자제 전략을 제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제 외교정책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포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트위터에서 보여준 우세전략 지속에 대한 의지가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비판한다.[263]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제언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기존 정책 결정과정 담론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대통령이라는 개인 행위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포착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처방인 자제 전략의 실현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제언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제 전략 실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 위해 포젠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라는 구조 외 행위체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중국이 방역 및 질병 확산 저지에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포착하며 미국의 대전략 변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264] 결론적으로 포젠은 첫째, 중국의 부상과 예측 가능한 위협에 대해 이론의 분석 논증을 기반으로 설명하면서 자제 전략의 수행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둘째, 분석 논증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내정치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외생 변수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착하며 유연하게 현실 설명을 위한 분석 틀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Discussion on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Order with Barry Posen,"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January 3, 2017. https://cimsec.org/barry-posen-draft/ (검색일: 2021년 9월 24일).

262) Posen, 2014, pp. 17-18, 32, 65, 93.

263) Posen, 2017; Barry R. Posen, "The Rise of Illiberal Hegemony: Trump's surprising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7, No. 2 (March/April, 2018).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제 전략 실천을 촉구한 논증은 다음을 참고하라. Barry R. Posen, "Scarcity and Strategy: the foreign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Sven Biscop and Alexey Gromyko (eds.), "Biden's World? View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European Union," *Security Policy Briefs* (December 2020f).

264) Barry R. Posen, "Do Pandemics Promote Peace?: why sickness slows the march to war," *Foreign Affairs* (April, 2020e).

중국의 부상을 분석함에 있어 선택적 확장을 보여준 포젠과 같이 미어샤이머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을 넘어선 분석 틀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고 있다. 먼저 분석 논증에 기반한 미어샤이머의 현실 설명 부분은 주로 중국이 공격적으로 부상할 것을 예측하는데에서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국의 인구와 경제력 등의 종합 국력과 잠재력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으로 역외균형전략 수행을 제언한다.[265] 특히 역외균형전략 수행을 주장함에 있어 미어샤이머는 그의 분석 논증의 틀에서 실천 논증의 현실 설명 부분을 전개하고자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이라크 전 수행 및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열망이 위협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시아 국가에서 역내 주둔과 동맹국 관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봉쇄해야함을 강조한다.[266]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 기반하여 중국 부상을 예측하고 역외균형전략을 제언한 것과 함께 미어샤이머는 중국의 대미 인식과 지역패권국 열망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대미 전략을 예측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탈냉전 시기부터 미국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지속한 팽창 전략에 대하여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래에도 이러한 위협 인식은 달라지지 않

---

265) Mearsheimer, 2014a, pp. 375-376, 381; John J. Mearsheimer, "The Future of the American Pacifier," *Foreign Affairs,* Vol. 80, No. 5 (September/October, 2001a), pp. 60-61.

266) John J. Mearsheimer and Zbigniew Brzezinksi,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Iss. 146 (January/February, 2005); John J. Mearsheimer,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 105, No. 690 (April, 2006), pp. 160-162; John J. Mearsheimer, "Rivalry in the Offing," *China Security,* Vol. 4, No. 2 (Spring, 2008), pp. 9-10; Mearsheimer, 2011b; John J. Mearsheimer, "What is America's Purpose," *National Interest,* No. 139 (September/October, 2015), pp. 34-35; John J. Mearsheimer, "Donald Trump Should Embrace a Realist Foreign Policy,"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27, 2016.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onald-trump-should-embrace-realist-foreign-policy-18502 (검색일: 2021년 9월 14일); John J. Mearsheimer, "Realism and Restraint," *Horizons,* Iss. 14 (Summer, 2019b), p. 23.

을 것이라 예측한다.[267] 또한 미국의 대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중국의 지역 패권국 열망과 관련하여 국제정치체계의 구조뿐만 아니라 중국 내 강하게 작동하는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이 중국의 패권 열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한다.[268] 즉 미국의 대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중국의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이론의 분석 논증을 기반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국내정치와 이념을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세 명의 연구자와 같이 새로운 분석 틀을 추가하여 중국의 부상을 진단하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제언한 연구자는 월트이다. 먼저 월트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선도되어온 우세 전략을 포기하고 역외균형전략으로 선회할 것을 제언한다. 제언의 기반이 되는 현실 설명 부분에서 월트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을 토대로 중국이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기존 우세전략이 그 위협을 더욱 증대할 것이라 예측한다.[269] 이론의 분석 논증을 토대로 역외균형전략을 제언한 월트가 새로운 분석 틀을 도입한 시도는 두 가지 논증에서 주로 나타난다. 하나는 미국의 우세전략 지속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때이며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인을 모색한 때이다.

먼저 미국의 우세전략 수행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반미 균형동맹을 형성하게 하고 미국 국력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270] 지속되는 이유는 우세전략을 움직이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미국 내 우세한 정

---

267) John J. Mearsheimer, "Trouble Brewing in the 'Hood'," *Sunday Morning Herald,* August 3, 2010b.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trouble-brewing-in-the-hood-20100802-113ab.html (검색일: 2021년 9월 14일); John J. Mearsheimer,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urity,* Vol. 43, No. 4 (Spring, 2019c), p. 43.

268) John J. Mearsheimer, "Taiwan's Dire Straits," *The National Interest,* No. 130 (March/April, 2014c), pp. 30, 33, 39.

269) Stephen M. Walt, *Taming American Power: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ew York: Norton, 2005), p. 58; Walt, 2011, pp. 9, 14-16.

270) Walt, 2005, p. 79; Walt, 2011, p. 16; Stephen M. Walt,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p. 332; Mearsheimer and Walt, 2016.

치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271] 즉 미국 국내정치의 이데올로기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구조가 국가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미중의 경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힘의 배분 상태라는 구조적 변수 이외에도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함(prudence), 중국식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기반 세계 질서의 영향력을 꼽았다. 특히 각 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신중하게 경쟁 관계를 잘 통제할 경우 나름의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한다.[272] 또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핑계로 미국이 주도하는 간섭적이고 폭력적인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보다 영토 주권과 불간섭 가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세계 질서(live-and-let-live world order) 계획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라 분석한다.[273] 정리하면 월트는 이론의 분석 논증을 기반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미국의 대전략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내정치, 각 국의 정책 결정자 그리고 세계 질서의 규범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선택적 분석 틀의 확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앞서 실천 논증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과 국내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해온 레인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전략을 제언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확장적인 모습을 보인다. 먼저 레인은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역외균형전략이어야 함을 탈냉전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처방하고 있다.[274] 다만 역외균형전략 처방을

---

271) Walt, 2016, p. 360; Stephen M. Walt, "U.S. Foreign Policy and the 'Biden effect'," *Esade,* March 11, 2021a. https://www.youtube.com/watch?v=upSMUWKMuzw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272) Stephen M. Walt, "Dealing with a Chinese Monroe Doctrine," *The New York Times,* August 26, 2013. https://www.nytimes.com/roomfordebate/2012/05/02/are-we-headed-for-a-cold-war-with-china/dealing-with-a-chinese-monroe-doctrine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273) Stephen M. Walt, "Xi Tells the World What He Really Wants," *Foreign Policy,* January 29, 2021b. https://foreignpolicy.com/2021/01/29/xi-tells-the-world-what-he-really-wants/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Stephen M. Walt, "The World Might Want China's Rules," *Foreign Policy,* May 4, 2021c. https://foreignpolicy.com/2021/05/04/the-world-might-want-chinas-rules/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위한 그의 분석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소련 붕괴에서부터 미국의 2008년 경제 불황 이전까지 레인은 중국의 성장 속도 지연 가능성을 분석한다. 중국의 국내 정치적 자유화 실패로 발생 가능한 내부 분열과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관리 및 통제 정책은 중국의 성장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역외균형전략을 실천한다면 중국의 부상이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275]

경제 불황 이후부터 2015년까지 레인은 그의 연구를 통해 미국의 쇠퇴를 인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확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상대적 성장은 경제 불황에 마주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대응 실패로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포착하며 미국의 국내정치적 문제를 분석한다.[276] 또한 지속되고 있는 우세 전략이 가져온 경제적, 이념적 반발이 형성됨에 따라[277] 역외균형전략 도입의 시급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부상에 관한 역외균형전략 제언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 설명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레인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시장경제 이데올로기의 확장이 지속적인 미국의 대전략으로 채택된 궁극적 원인으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지적(intellectual), 이념적 동질성을 분석한다.[278] 특히 확장적 우세 전략은 중국을 지역패권국으로 인정했을 때의 미국이 감당할 손해보다 현재 미중 경쟁관계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을 때 발생 가능한 손해를 훨씬 크게 만들다고 분석하며 중국의 지

---

274) Layne, 1997a; Layne, 1998; Layne, 2004a, p. 79; Layne, 2006a, pp. 39-40; Christopher Layne, "China's Challenge to US Hegemony," *Current History,* Vol. 107, No. 705 (January, 2008c), p. 17; Christopher Layne, "The Global Power Shift from West to East," *The National Interest,* No. 119 (May/June, 2012b), p. 30; Christopher Layne, "Avoiding a Sino-American Confrontation," *Atlantisch Perspectief,* Vol. 39, No. 4 (2015b), p. 5; Layne, 2017, p. 261.

275) Layne, 1997a; Layne, 1998; Layne, 2004a, pp. 74-76; Layne, 2006a.

276) Layne, 2012a, p. 208; Layne, 2012b, p. 31.

277) Layne, 2011a, pp. 154-155; Christopher Layne, "The Real Post-American World: the Pax America's end and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in Sean Clark and Sabrina Hoque (eds.), *Debating a Post-American World* (London: Routledge, 2011b), pp. 42-43.

278) Christopher Layne, "Sleepwalking with Beijing," *The National Interest,* No. 137 (May/June, 2015c), pp. 37-38; Layne, 2017, pp. 262, 264-266, 268.

역패권국화를 일부 수용해야한다고 한다고 제언한다.[279]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역외균형전략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레인은 실천 논증의 분석 내용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긴 했으나 분석 논증의 틀과 국내정치적 수준의 분석 틀을 동시에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간략히 정리하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대전략 제언에 있어 다섯 연구자 모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에 기반하여 중국의 잠재적 패권국 지위 획득 여부를 분석 및 예측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행동 전략을 처방한다. 특히 앞선 두 사례(9.11 테러와 그 후, 이란 핵개발)와 대비하여 이론의 분석 논증을 실천 논증을 위한 중심 분석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구별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자들이 미국 대전략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긴박한 미래에 대한 정책 제언을 내어놓을 때는 힘의 배분 상태로 형성된 구조의 영향력이 아닌 대통령 개인, 국내정치와 이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구조 외적 요인의 영향력을 선택적으로 긍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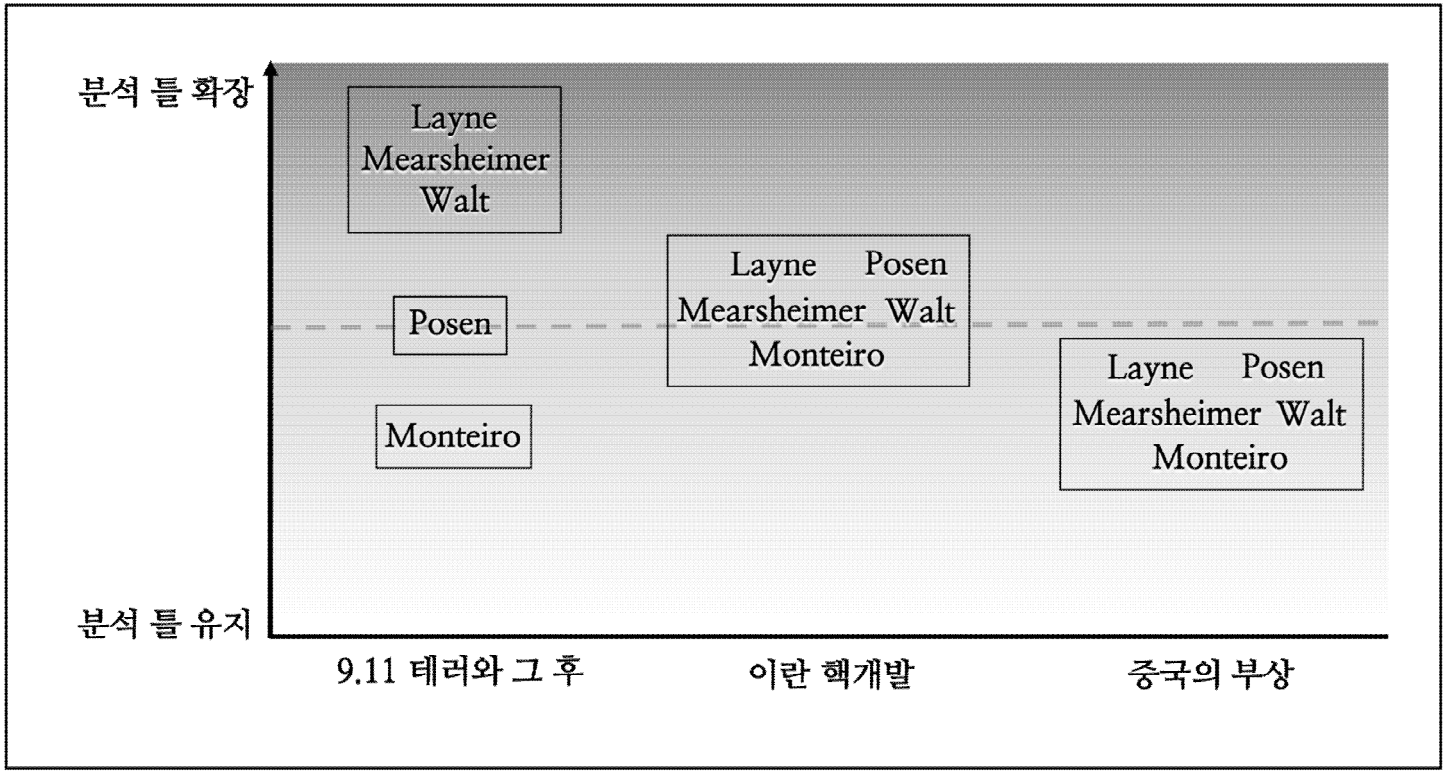
3장에서는 2장에서 조직한 분석적 차원에서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내 다섯 명의 연구자가 대중동 정책, 대이란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을 논증함에 있어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 논증의 틀을 유지하면서 예측과 처방을 진행하였는지 혹은 분석 틀의 확장을 도모하였는지를 판단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11 테러 이후 대중동정책에 있어 -아주 약간의 확장을 보인- 몬테이로를 제외한 네 연구자 모두는 실천 논증의 분석 내용에 있어 이론의 분석 논증 틀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분석 틀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각 연구자별로 분석 틀 확장 및 새로운 분석 틀의 선택에 있어 그 정도와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란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의 변화는 모두 포착될 수 있었다. 또한 다섯 연구자

279) Layne, 2020a; Christopher Layne, “Coming Storms,” *Foreign Affairs,* Vol. 99, Iss. 6 (November/December, 2020b), pp. 42-48.

모두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된 담론으로 자리 잡아온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폐단을 현실 문제로 강조하며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제언의 필요성을 재고하였다.

본 연구의 많은 지면을 활용하여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을 재구성한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이 그들의 분석 논증에 어떻게 기반하여 전개되고 있는지, 실천 논증에서 분석 논증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논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3장의 실천 논증 재구성 작업 없이는 4장에서 목표하는 '어떻게'와 '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연구자들의 논증이 위치하고 있는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은 실제 연구자들의 주장에 기초하였을 때에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장을 통해 단순히 미어샤이머의 논증만을 대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광활한 지식체계의 부분을 바라보고자 했던 기존 연구의 오류를 극복했다. 더불어 3장의 실천 논증을 사례별로 재구성한 과정은 실천 논증의 메타이론적 연구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구체적인 논증들과 연계하여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메타이론 기반을 쉽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던 기존연구는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논의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파악한 후 실천 논증이 분석 틀을 확장한 원인과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그림 3>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 재구성 지도 (※ 출처: 작성자)

Ⅳ. 실천 논증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가치론의 존재론·인식론 확장

1.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

제1절은 제2장에서 살펴본 공격적 현실주의가 어떠한 존재론·인식론 기반 위에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한다. 다만 이들의 지식 체계 기반이 어떠한지를 논의하기 전에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이 무엇인지,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가 국제정치학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정치학에서 국제관계이론의 지식 체계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 논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패트릭 T. 잭슨(Patrick Thaddeus Jackson, 이하 잭슨)은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에 관한 정교한 분석을 선구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더불어 많은 국제정치학 연구자들이 국제관계이론의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잭슨의 분석 틀을 받아들임에 따라 본 연구는 잭슨의 분석 틀을 기반하여 공격적 현실주의의 철학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280]

1) 국제정치학에서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이란,

'존재론, Ontology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Onta와 법칙, 이성, 원리를 의미하는 Logos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281] 즉 실재하는

280) Jackson, 2011. 잭슨의 존재론·인식론 구분을 받아들인 많은 연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Andrew Bennett, "The Mother of All Isms: casual mechanisms and structured plu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2013), pp. 459-481; Inanna Hamati-Ataya, "Reflectivity, Reflexivity, Reflexivism: IR's 'reflective turn' - 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4 (2012), pp. 669-694.

것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철학에서 존재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논의가 전개된다. 먼저 물질적인 자연을 유일한 실재로 인정하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객관적 법칙'을 실재하는 것의 근본 원리로 삼는 '자연과학적 유물론'이 있다.[282] 이들은 인간도 물질적인 자연의 한 일부로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법칙성의 지배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는 논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283] 반면 자연과학적 유물론과 달리 인간 정신이 물질보다 우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정신주의적 관념론'이 있다. 이들은 물질적인 자연의 실재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정신이 인간 이성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인정한다. 정신과 물질을 각각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정신주의적 관념론과는 달리 모든 실재하는 것에 초월적인 신적 이성이 근본 원리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연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고 논하는 '범신론적 동일철학'이 있다.[284]

실재하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실재하는 것들 간 관계를 탐구하는 인식론의 기반을 설립한다. 인식론, Epistemology는 지식을 뜻하는 Episteme와 법칙, 이성, 원리를 의미하는 Logos가 합쳐진 단어로 지식에 대한 이론, 즉 참된 지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철학에서 인식론은 참다운 실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원리와 결합되어 논의되어왔다. 즉 앞서 살펴본 자연과학적 유물론, 정신주의적 관념론 그리고 범신론적 동일철학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인식론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객관주의,' '주관주의,' '주-객관주의' 인식론이다. 먼저 객관주의 인식론은 인간이 보편적인 인식 주체임을 인정하며 참된 지식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285] 더 나아가 객관주의 인식론은 인간 역사와 자연법칙성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합리론적 인식론'과 '경험론적 인식론'으로 나뉘어 발전했다.[286]

---

281) 이수윤, 2002, p. 637.

282) 요나톤 모세스, 투르뵨 크누트센, 『정치학 연구방법론: 자연주의와 구성주의』, 신욱희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1), pp. 98-99.

283) 모세스, 크누트센, 2011, p. 71.

284) 이수윤, 2002, pp. 92-92; 모세스, 크누트센, 2011, pp. 244-245.

285) 이수윤, 2002, p. 99.

286) 합리론의 경우 인간 역사는 '진보'의 과정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간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경험론은 인간 역사가 '발전'의 과정 하에서 완전에서 완전을

인간 정신과 물질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주관주의 인식론은 존재론 가운데 정신주의적 관념론에서 나타나는 인식 체계로서 해석학적 인식론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해석학적(주관주의) 인식론은 인식 주관의 인식 내용에 있어 상대주의를 인정한다. 즉, 자연에 대한 인간 인식은 객관적이거나 고정적인 과학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이고 심미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인식 내용에 있어 상대성이 성립되는 것이다.[287] 마지막으로 인식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객관주의 인식론(합리론·경험론)이나 인식 주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주관주의 인식론(해석학)과는 달리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이성론)을 견지하는 주-객관주의 인식론이 있다. 이들은 신적 이성 안에서는 물질(인식 대상)도 정신(인식 주관)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론을 견지한다. 즉 "객관적 존재와 주관적 인식이 절대적인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하며 "주관적인 이성적 의식이 그것에 대립해 있는 객관적인 이성적 존재를 의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강조한다.[288]

가치론은 옳은 것(suitable) 혹은 가치를 의미하는 Axios와 법칙, 이성 원리를 의미하는 Logos가 합쳐진 단어로 윤리적이고 심미적이며 논리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가치의 영역을 탐구하는 이론이다.[289] 쉽게 말해 어떤 가치를 우선하여 이 가치를 실천으로 이끄는지에 관한 것이다. 철학에서 가치론은 주로 윤리학, 미학, 종교학 등과 같은 특수 가치론과 연결되어 가치 개념이 확립되고 논의되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윤리학 기반은 가치론의 선 혹은 옳음(rightness)의 기준과 가치 순위에 주목한다.[290] 앞서 각각의 존재론이 특정 인식론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각각의 존재론·인식론은 서로 다른 윤리 철학과 연결되곤 한다. 먼저 자연적인 것을 유일한 실재로 전제하고 관념이나 형이상학적인 논증을 거부하는 자연과학적 유물론은 '자연주의 윤리학'의 기반이 된다. 자연주의 윤리학의 대표적인 예로 쾌락주의나 공리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선은 자연적인 현상 혹은 물리적인

추구하고 있다고 논증하며 현상유지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수윤, 2002, pp. 97-99, 652-653.

287) 이수윤, 2002, p. 101; 모세스, 크누트센, 2011, pp. 259-261.

288) Bill Dunn, "On the Prospects of a Return to Keynes: taking Keynes's political philosophy seriously," *Global Society*, Vol. 32, No. 2 (2018), p. 303.

289) 헤센, 1992, p. 20.

290) 헤센, 1992, pp. 19-21.

상태와 연결됨'을 주장한다.[291] '비자연주의 윤리학'은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매우 많은 선을 우리의 직관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신주의적 관념론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철학 기반이다.[292]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 윤리학'은 범신론적 동일철학과 연결된다. 대립물의 통일성을 인식하고 만물의 본질을 직관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윤리학은 과도와 결핍 사이에서, 유와 무 사이에서 '중용'을 추구하는 데 선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한다.[293] 결론적으로 철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논의는 아래의 <표 3>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

291) 쾌락주의의 경우 '선'은 쾌락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으로 대표되는 양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임을 증명한다. 자연주의 윤리학은 특히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주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피터 싱어, 『메타윤리』, 김성한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pp. 63-64; 루이스 포이만,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박찬구 외 역 (서울: 율력, 2010), pp. 100-104.

292) 조지 무어(George E. Moore)는 대표적인 비자연주의 윤리학자로 다음의 인용구는 비자연주의 윤리학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좋음이란 곧 좋은 것들이 좋음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속성은 더 이상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실재의 근본 특징 중 하나이다." 피터 싱어, 2006, p. 64; 특히 무어는 '노란색은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대체되어 논의가 되지 않고 단순히 노란색인 것처럼, 선 또한 선한 것 그 자체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eorge E. Moore, "The Subject-Matter of Ethics," In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03); Donald C. Williams, "The Definition of Yellow and of Good,"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27, No. 19 (1930), p. 516.

293) 이수윤, 2002, p. 96; 루이스 포이만, 2010, pp. 271-278.

<table>
<tr><th colspan="6">철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th></tr>
<tr><td colspan="2">존재론</td><td colspan="2">자연과학적 유물론</td><td>정신주의적 관념론</td><td>범신론적 동일철학</td></tr>
<tr><td colspan="2" rowspan="2">인식론</td><td>경험론적 인식론</td><td>합리론적 인식론</td><td>해석학적 인식론</td><td>이성론적 인식론</td></tr>
<tr><td colspan="2">자연주의 윤리학</td><td>비자연주의 윤리학</td><td>형이상학적 윤리학</td></tr>
<tr><td>가치론</td><td>윤리학</td><td colspan="2"></td><td></td><td></td></tr>
</table>

<표 3> 철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 출처: 작성자)

살펴본 존재론·인식론·가치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국제정치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적용되어 분석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 철학에서의 논의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정치학에서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 잭슨은 존재론·인식론·가치론(혹은 방법론)의 논의가 철학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논의가 과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회과학 연구의 여러 가지 방법을 구분하는 차원으로 논증되어 왔음을 비판한다.[294] 구체적인 예로 잭슨은 아우디 클로츠와 세실리아 린치(Audie Klotz and Cecelia Lynch, 이하 클로츠와 린치)의 연구를 가져와 사회과학의 특수한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개념을 소개한다. 클로츠와 린치는 '존재론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연구자가 개념화했는지'를 의미하며, '인식론은 연구자들이 아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아는지'로 개념화하였다.[295] 이는 어떻게 지식이 생산되고 존재하며 관계적 특성을 가지는지, 이러한 지식을 연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철학에서의 존재론, 인식론 논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에서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은 "사회현상에 내재한 일반적 인과법칙을 발견하는 것으로 좁게 규정되어"[296] 단순히 국제정치 연구의 방법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었을 뿐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294) Jackson, 2011, pp. 3-23.

295) Audie Klotz and Cecelia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M. E. Sharpe, 2007); 재인용: Jackson, 2011, p. 26.

296) 이용욱, 「서문: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세계정치』, 제20권 (2014), p. 14.

		지식과 관측 간 관계 (인식론)	
		현상론 (phenomenalism)	초월적 사실주의 (transfactualism)
아는 주체(the knower)와 아는 대상(the know)간 관계 (존재론)	마음-세계 이원론	신실증주의 (neo-positivism)	비판적 실재론[297] (critical realism)
	마음-세계 일원론	분석주의 (analyticism)	성찰주의 (reflexivity)

<표 4>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 (※ 출처: Jackson, 2011, p. 37)

<표 4>는 국제정치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철학 논의를 일부 흡수하여 국제정치학에 적용한 잭슨의 존재론·인식론 개념 및 구분이다. 잭슨은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논의가 과학적 방법론에 치중하여 온전한 철학 기반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정확한 개념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좌측의 '아는 주체와 아는 대상 간 관계'는 존재론으로 연구자와 연구되는 세계가 연결되어 존재하는지 혹은 분리되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자의 주관을 반영하지 않고 실재하는 세계를 경험적인 요소(관측)와 이론적 요소(논리)의 일치성을 통해 포착한다면 이는 연구자(마음)가 세계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논할 수 있는 '마음과 세계의 이원론'에 기반하는 것이다. 마음 세계 이원론은 연구자의 주관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 세계 일원론은 연구자가 세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앎을 연구자의 주관성이 반영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이원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각(nonsensical)이라 비판한다. 이들은 '세계 속에 (연구자의) 지식 생산의 사회적 과정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기술되거나 관찰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298]

297) 비판적 실재론은 제4장의 제3절에서 논의될 비판적 현실주의(critical realism)와는 다른 개념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과학적 실재론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비판적 현실주의는 현실주의의 비판이론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바스카의 과학적 실재론 논증은 다음을 참고하라. 앤드류 콜리어, 『비판적 실재론: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최대용 역, (서울: 후마니타스, 2010).

298) Jackson, 2011, pp. 35-36.

마음과 세계의 관계성을 통해 국제정치이론들의 존재론을 구분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실재하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을 분석함으로써 같은 존재론을 공유하는 이론들 간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지식과 관측 간 관계는 인식론 기반을 의미하는데 실재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관측으로 가능한지 혹은 관측을 넘어서는 포착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한지에 따라 현상론과 초월적 사실주의(transfactualism)로 나뉜다. 현상론[299]에 관한 광범위한 철학적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경험과 실증적인 관찰 그리고 비인식적(non-epistemic) 방법[300]을 통해서만 지식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다. 현상론은 경험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포착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초월적 사실주의는 관측하지 못하는 지식의 실존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들은 경험적 방법을 초월하는 과정을 통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1]

존재론과 인식론 기반에 대한 각각의 구분은 <표 4>와 같이 국제정치학의 4가지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로, 신실증주의는 마음-세계 이원론의 존재론과 현상론의 인식론 기반위에 있다. 먼저 마음(연구자)과 독립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존재론 기반 위에서 가설 검증을 통해 실증적인 관측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진행한다. 신실증주의는 기존 실증주의보다 발전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원론이 내재하는 데카르트적 불안(Cartesian anxiety)[302]을 해결하고자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반증가능성'에

---

299) 잭슨은 현상론 개념이 현상학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현상론은 현상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전적 실증주의 인식론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Jackson, 2011, p. 61.

300) 잭슨은 현상론의 비인식적 방법을 설명하면서 과거 적혈구나 해왕성의 예를 든다. 적혈구와 해왕성은 과거 관측될 수 없었지만 추후 적합한 도구의 발전을 통해 관측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상론은 사회적 물질 또한 현재는 적절한 도구가 없어 관측될 수 없는 것이지 관측이 불가능한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Jackson, 2011, pp. 62-63.

301) Jackson, 2011, pp. 36-37.

302) 데카르트적 불안은 리차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의 개념으로 그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명제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불안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데카르트의 명제는 생각하지 않는 나를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며, 고정된 존재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불안을 해결하고자 임레 라카토스(Imre Lakatos), 칼 포퍼(Karl Popper) 등의 연구자들이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포퍼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받아들이지만 확실성 개념을 비판하며 이론의 반증가능성을 주장한다. Richard J. Bernstein,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설 검증이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논리적 명제 위에 진행되어야 함을 대안으로 강조하면서 실증주의와는 차이를 보인다.[303] 다음으로 신실증주의의 인식론인 현상론 기반은 경험이나 실증적 관찰을 통해 인식되는 지식뿐만 아니라 비인식적 방법으로 관측 가능한 지식에 대한 인식도 포함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관측이 어려운 민주주의, 국내총생산(GDP)와 같은 지식 또한 언젠가는 적절한 도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관측 대상으로 본다.[304]

두 번째로, 비판적 실재론은 신실증주의와 같이 마음과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신실증주의와는 다르게 초월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한다. 예를 들어 이해하면, 신실증주의는 '민주주의가 국가들 간 전쟁을 방지한다'는 가설에 대한 관찰과 검증에 집중한다면 비판적 실재론은 '민주주의의 전쟁 방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305] 즉 신실증주의가 비인식적 방법으로 관측한 지식들 간 관계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했다면 비판적 실재론은 관측을 넘어서 지식을 구성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306]

세 번째의 분석주의와 네 번째의 성찰주의 모두 마음과 세계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긍정하는 마음-세계 일원론에 그들의 존재론적 기반을 위치한다. 특히 마음-세계 일원론은 실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간주관적인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은 없음을 강조한다.[307] 분석주의와 성찰주의는 실

---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3); Imre Lakatos, "Lectures on Scientific Method," In Matteo Motterlini (ed.), *For and against Meth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Karl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Routledge, 1992); 재인용: Jackson, 2011, pp. 44-59.

303) Jackson, 2011, p. 59.

304) Jackson, 2011, p. 63.

305) Jackson, 2011, p. 75.

306) Jackson, 2011, pp. 81-82; Daniel McArthur, "Book Review: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hilosophy of sic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E&C/Education and Culture,* Vol. 27, No. 2 (2011), p. 97.

307) Jackson, 2011, p. 128.

존하는 지식 체계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분석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가까운 현상론에 기반한다. 여기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규범이나 문화적 요인에 강조점을 두는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 이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의 실천적 개입을 통해 구성된 지식을 관측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308] 즉 연구자가 복잡한 현실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까지도 진행하면서 관측, 경험 그리고 비인식적 방법을 통해 구성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잭슨에 따르면 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분석주의에 위치한다.[309] 반면 초월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성찰주의는 인간(연구자를 포함)의 성찰성을 강조하면서 분석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지식이나, 지식 생산 내부의 억압적 구조가 있는지를 폭로하고 해방시키는데 집중한다.[310]

마지막으로 잭슨이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정치학에서도 존재론·인식론 논의와 연결되는 가치론 기반에 대한 연구가 있다. 물론 앞서 철학 기반이 주목하는 윤리학, 미학, 종교학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예로 공격적 현실주의와 같은 무도덕주의(amoralism)를 주장하는 이론[311]의 경우-무도덕주의도 윤리학의 범주이지만 공격적 현실주는 그들 이론의 윤리학적 기반을 거부하고 있다- 뚜렷하게 연결되는 윤리학 기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철학에서의 가치론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12] 때문에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어온 가치론 기반에 대한 내용은 연구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계와 지식을 바라보는지로 정의되곤 한다. 요하네스 헤센(Johannes Hessen, 이하 헤센)이 지적한 바 있고 콕스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는 '가치와 존재의 불가분성'

---

308) Jackson, 2011, pp. 141-142; McArthur, 2011, p. 98.

309) 월츠는 마음-세계 일원론과 현상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긍정한 바 있다. 잭슨은 그의 저서 제3장에서 월츠가 분석주의를 긍정한다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월츠와 달리 미어샤이머는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Jackson, 2011, pp. 112-115.

310) Jackson, 2011, pp. 158-159. Mcarthur, 2011, pp. 98, 182-183.

311) John J. Mearsheimer, "Teaching Morality at the Margins,"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22, No. 1 (April, 1998).

312) 엄밀하게 윤리학에서 무도덕주의는 윤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포이만. 2010. 본 연구에서는 윤리학 이외의 표면적으로 나타나있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치론 기반을 살펴보고자 하나 공격적 현실주의의 무도덕주의의 윤리학 기반을 밝히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바 후속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개념이 이러한 가치론 정의의 중심축이 되었다. 가치와 존재의 불가분성에 대한 헤센의 정의를 살펴보면 '현대 철학은 가치와 존재를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탐구하는데, 실제로 가치학은 존재하는 것을 가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313] 즉 어떠한 가치 관점을 가지고 실존하는 것을 바라보는지, 콕스의 말을 빌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설명하는지'[314]가 국제정치학 이론이 기반하는 가치론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수한 가치 목적을 통해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한 콕스의 분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문제 해결적 가치론이며 다른 하나는 비판적 가치론이다. 문제 해결적 가치에 기반한 이론은 국제정치 내 발생 가능한-혹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이론이 역할해야 한다는 가치 목적을 공유한다. 문제 해결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ceteris paribus)는 가정 위에 이론의 규칙성이나 법칙들을 설립한다.[315] 문제 해결적 가치의 비역사적(non-historical)이고 무역사적(ahistorical)인 특성을 비판하며 콕스는 비판적 가치론을 소개한다.[316] 비판적 가치론 기반 위에 설립된 고전 현실주의, 맑시즘과 같은 이론은 문제 해결적 이론과는 달리 제도, 사회 그리고 힘의 관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관계가 변화 가능한지를 탐구한다.[317] 정리하면 국제정치학에서 가치론은 실존하는 것을 어떠한 가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콕스가 적용하여 연구한 국제정치이론에서의 문제 해결적, 비판적 가치론은 윤리학 기반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국제정치이론가들의 가치론을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

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기반하는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이란 무엇인가,

제1절의 1)에서 살펴본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중

313) 헤센, 1992, pp. 36-37.
314) Cox, 1981, p. 128.
315) Cox, 1981, pp. 128-129.
316) Cox, 1981, p. 130.
317) Cox, 1981, pp. 129-130.

심으로 본 절의 2)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어떠한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공유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이 분석 논증의 기반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변화를 보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전 작업이다. 더불어 만약 변화를 보였다면 왜 분석 논증의 철학 기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설명할 필요성을 제고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1)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 기반: 마음-세계 이원론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서 나타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존재론은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한다. 마음-세계 이원론은 인식 주체(knowing subject)와 인식되는 객체(known object)간의 구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으로, 연구자의 주관(마음)이 대상(세계)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반영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318] 미어샤이머 또한 연구자가 대상의 존재 원리를 결정한다면 이는 연구자의 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319] 미어샤이머뿐만 아니라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는 국제정치라는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상에게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한다. 다음의 분석은 국제정치체계 내 강대국, 국제정치체계의 구조 그리고 힘이 연구자의 인식주관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대상임을 논증하는 부분으로 마음-세계 이원론 기반을 확인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 "첫째, 현실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주로 강대국에 초점을 맞춘다. […] 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들의 행동은 주로 그들의 내적 속성보다는 그들이 처한 국제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모든 국가들이 대처해야만 하는 국제체제의 구조는 강대국

318) Jackson, 2011, pp. 43-44.
319) Mearsheimer, 1994/95, pp. 44-46; 재인용: Jackson, 2011, p. 115.

외교정책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전쟁의 주된 원인은 국제체제의 구조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국의 숫자가 몇 개인가 하는 점과 각 강대국은 얼마나 많음 힘을 장악하고 있느냐이다."[320]

상기 분석에서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다른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의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 기반을 구체화한다. 이는 미어샤이머뿐만 아니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구성된 연구자 모두에게서 포착된다. 이들은 국가가 국제정치체계의 주요 행위자임을 포착하여 국가의 존재론적 위상이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다른 행위자에 비해 높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들 중에서도 강대국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에 더욱 주목한다.[321] 또한 국가들과 국제정치 구조로 이루어진 국제정치체계(본문의 국제체제)의 객관적 실재에 대해서도 논한다. 국제정치체계의 객관적 실재성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모두가 이를 긍정한다.[322] 마지막으로 국가들 가운데 강대국의 존재에 집중한 공격적 현실주의는 강대국 간 힘의 배분 상태를 나타내는 극성의 존재 또한 포착한다. 강대국 간 힘의 배분 상태라는 극성은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라 힘의 배분 상태에 따라 동태적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객관적 존재의 특성까지 논하고 있다.[323]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하여 극성의 존재 특성을 규명하는 모습은 다른 존재들의 특성에 대한 논증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국가, 국제정치체계 그리고 극성이라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포착한다. '국제정치체계의 무정부성 하에 힘의 배분 상태는 국가로 하여금 상대적 힘을 추구하게 한다.'[324] 이

---

320) 밑줄은 저자. 존 미어샤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이춘근 역, (서울: 김앤김북스, 2017), pp. 56, 451.

321) Layne, 1997a, pp. 77-95; Monteiro, 2014, p. 32; Posen, 1986, pp. 5-46; Walt, 1990, pp. 24-25; Walt, 1991, p. 222.

322) Layne, 1993, p. 5-7; Monteiro, 2014, pp. 31-32; Posen, 1993a, pp. 27-47; Walt, 1988, p. 280; Walt, 1992, pp. 321-368.

323) Layne, 1997b, pp 105-106; Monteiro, 2014, p. 150; Posen, 1986, p. 63; Walt, 1990, p. 271.

324) Layne, 1990/91, p. 66; Layne, 1998, p. 21; Mearsheimer, 2014a, pp. 32-34; Monteiro, 2014, p. 27; Posen, 1993b, p. 82; Walt, 2002a, p. 200.

명제는 먼저 국가 보다 상위의 권위체가 부재하다는 무정부성이 국제정치체계의 존재적 특성임을 나타낸다. 무정부적 국제정치체계의 특성은 체계 내에 위치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 상대적 힘을 추구하게 되는 특성의 발현으로 이어진다.

정리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주목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포착하고 존재하는 것들 간 관계를 통해 객관적 실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인식주체(연구자)가 대상의 존재와 특성을 규정하는 마음-세계 일원론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이다.

(2)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인식론 기반: 현상론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현상론에 그들의 인식론적 기반을 두고 논증을 펼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상론은 초월적 사실주의와 비교하였을 때 경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지식을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현상학과는 달리 현상론은 비인식적 방법을 통해 지식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비인식적 방법과 경험 및 관측 모두를 통해 지식을 인식하는 현상론에 그들의 인식론을 기반하는데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국가 행동 패턴을 추론하는 과정은 뚜렷한 현상론의 관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 행동 패턴에 대한 8가지 가설의 논리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인식론을 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미어샤이머의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의 5장 "Strategies for Survival"에서는 국제정치체계라는 세계 내 존재하는 것들과 이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국가의 특정한 행동 패턴을 연역(비인식적 방법)을 통해 인식한다.[325] 대표적인 예로 '위협 받은 국가는 벌어질 전쟁으로 인한 예상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책임전가를 전략으로 삼는다'[326]는 미어샤이머의 인식은 국가들의 과거 책임전가 전략의 역사를 통해서 논

325) Mearsheimer, 2014a, pp. Chapter 5.
326) Mearsheimer, 2014a, p. 139.

증된 것이 아니다. 무정부적 국제정치체계에서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존재 특성을 통해 책임전가의 행동 패턴이라는 사실을 도출하여 인식한 것이다. 이는 비단 미어샤이머의 논증에서만 포착되는 지식 인식 과정이 아니다.

> "역외균형은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으로부터 연역된 대전략이다. [...] 강대국에게 상호의존은 환상이며 현실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적인 억제 전략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 동맹 관계의 동학은 역외균형전략을 선호한다. 상대적 힘에 대한 고려는 신중한 대전략을 선택하게 만든다."[327]

레인의 역외균형전략에 관한 상기 논증은 현상론에 기반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인식론을 보여준다. 역외균형전략은 상대적 힘을 고려하는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추구해야할 전략이며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포착하는 귀납적 사고과정이 아닌 명기된 바와 같은 연역적 사고과정으로 도출된 진리이다. 또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연역이라는 비인식적 과정을 통해 지식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도출한 지식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관측과 경험(역사)을 활용한다.[328]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추론을 통해 도출한 진리가 실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 국가의 행동을 검토한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프랑스와 소련이 초기 독일 위협에 책임 전가 전략을 수행한 역사,[329] 지난 400년 동안 해양 강대국 영국과 미국에 대한 본토 침공이 없었던 역사,[330] 생존을 위해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열망한 일본, 독

---

327) 밑줄은 저자. Layne, 1997, p. 113.

328) 미어샤이머와 월트는 이론의 지도하에(guided by a sophisticated knowledge of theory) 가설 검증의 방법으로 실증적 관측과 경험의 도입을 긍정한다.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Leaving Theory Behind: why simplistic hypothesis testing is bad for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2013), p. 431; Kenneth N. Waltz, "Evaluating Theor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4 (1997), p. 917.

329) Mearsheimer, 2014a, pp. 157-159; Layne, 1997b, pp. 117-118; Layne, 1998, p. 22.

일, 소련의 현상변경의지의 역사[331] 등을 통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연역을 통해 도출한 국가 행동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 관측을 전개했고 이는 현상론의 인식론 기반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3)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치론 기반: 문제 해결적 가치

제1절의 1)에서 살펴보았듯이 무도덕주의를 천명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같은 국제정치학의 이론에 기존 가치론 철학 기반을 온전히 대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는 새로운 가치론 논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헤센과 콕스가 강조한 가치와 존재의 불가분성으로, 쉽게 말하면 이론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를 바라보느냐가 존재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정치학의 특수 가치론을 연구한 콕스는 문제 해결적 가치론과 비판적 가치론을 통해 국제관계이론을 분류한 바 있다. 물론 콕스의 이분법적 가치론 구분이 실제 철학 기반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비판할 수 있다.[3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스는 국제관계학에서 가치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체화하였고 가치론이 존재와 인식 간의 관계에 어떠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지를 알린 선구적 시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콕스의 분류를 받아들일 필요성은 충분하다.[333]

---

330) Mearsheimer, 2014a, pp. 127-136,137; Layne, 1993, p. 23; Posen 1984, p. 7; Monteiro, 2011/12, p. 37; Walt, 1990, p. 5.

331) Mearsheimer, 2014a, pp. 172-224; Layne, 2008b; Monteiro, 2014, pp. 64-65; Posen, 1993b; Walt, 1985, p. 12.

332) 가치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윤리적, 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주론적, 심리학적, 현상학적 논의가 전개되어왔고 현대에 와서는 메타가치론적인 관점에서 가치 주관주의, 가치 절대주의와 같은 복잡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치론의 본질에 충실한다면 콕스의 가치론 분류는 다소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헤센, 1992, pp. 26-34.

333) 콕스의 가치론 분류를 적용한 메타이론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전재성, 1999; 전재성,「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 메타이론적 검토와 실천지(prudence)의 의미」,『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1999); 이근•전재성,「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제1호 (2001); Mark Neufeld, “Reflexiv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2, No. 1 (1993).

콕스의 가치론 분류에 따라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문제 해결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문제 해결적 가치는 힘이나 사회, 제도의 관계적 특성을 포착해 문제의 특정한 원인을 포착하고 해결하는데 가치를 두는 것으로 '문제의 원인 변수를 몇 가지로 구체화하여 정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334] 구체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 체계의 생존을 위한 국가의 공격적 힘의 개시 특성을 포착해 국가들 간 갈등 원인을 포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공격적 현실주의는 […] 한 가지 이론으로 국제정치에 나타나는 여러 사례를 개략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335]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강대국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관해 설명해준다. 그러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처방적 이론(prescriptive theory)이기도 하다. 국가들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336]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국가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경쟁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연역하여 국제 체계의 인과성을 포착한다."[337] "(나의 이론은) 특정 가설들을 구체화하고 검증하면서 미국의 외교 및 군사정책의 중요한 논쟁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왔다."[338]

상기 미어샤이머, 포젠 그리고 월트의 논증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국제정치 체계에서 강대국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처방하는 문제 해결적 가치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한 윤리학, 미학, 종교학적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서도 국제정치 체계내 강대국이 마주할 문제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하는지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모습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치를 보여준다.

---

334) Cox, 1981, pp. 128-129.
335) 존 미어샤이머, 2017, p. 47.
336) 존 미어샤이머, 2017, p. 48.
337) Posen, 1993b, p. 82.
338) Walt, 1990, p. 285.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은 살펴본 것처럼 마음-세계 이원론, 현상론 그리고 문제해결적 가치에 이들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기반한다. 분석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잭슨이 제시한 국제정치학에서의 4가지 구분 가운데 신실증주의에 위치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신실증주의는 마음-세계 이원론과 현상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신실증주의에 온전히 기반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후 실천 논증이 신실증주의가 아닌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포착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다. 그 차이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실천 논증에서 새로운 가치론을 추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가치론의 선택적 변화는 객관적 존재의 실재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정교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 실천논증의 가치론 확장과 존재론·인식론

제 2절은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분석 논증과 동일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에 기반하는지 먼저 구체화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어떻게 다른지 나타내고자 한다. 제 3장의 실천 논증 재구성을 통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현실 설명 부분에서 분석 논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분석 논증을 기반한 실천 논증이 분석 논증의 철학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존재론과 인식론을 특정한 방향성 없이 확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시 말하면 공격적 현실주의의 발현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가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에 기반하여 실천 논증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존재론과 인식론 기반을 무작위로 확장하여 공격적 현실주의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 주장은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 내 메타이론 기반의 단면만을 포착하여 서로가 단순히 불일치하다는 비난적 어조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그들 분석 논증의 철학기반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정적인 하나의 철학 기반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

문이다. 본 절은 기존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실천 논증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변화 원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또한 고취시킬 것이다.

1)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포착된 존재론과 인식론은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1)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존재론: 마음-세계 이원론의 확장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본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국제정치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을 공유하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에서 포착 가능한 존재론은 분석 논증의 존재론 기반과 같이 마음-세계 이원론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세계 내 실존하는 대상의 존재와 특성이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도 분석 논증에서 포착한 국제정치체계와 체계 내 주요 행위자인 강대국 그리고 극성의 존재를 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천 논증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재하는 대상에 대한 포착은 강대국 이외의 국가, 정치 집단 그리고 개인행위자의 인식과 관념으로까지 이어진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실천 논증에서 객관적인 실재로서 개별 행위자의 인식 그리고 관념을 발견하는 것이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하기도하지만 마음-세계 이원론과는 배치되는 인식 주관의 대상 구성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의 마음-세계 이원론 기반을 살펴보면 분석 논증의 국제정치체계, 강대국 그리고 극성의 존재 구성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 반대 서명 광고와 학파 구성원들의 전쟁 반대 촉구 논증에서 다섯 학자들 모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 이익이 매우 저조함에 주목하고 있다. '힘의 배분 상태로 보면 미국은 이라크를 패배시킬 수 있지만, 이라크 전쟁은 미국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다'[339]고 분석하며 이라크 전 개시를 반대한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실체를 실

재하는 대상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힘의 배분 상태(극성)에 의해 그 특성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체계 속에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여 국제정치체계라는 객관적 실재 또한 논한다. 대표적으로 포젠은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에 대응하여 미국의 패권적 힘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강대국의 제일의 전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340]

> "냉전시기 상호 확증 파괴는 평화를 유지해주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미국의 공격은 궁극적으로 미국 자신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시 공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소련은 없고 [...] 미국의 적국들은 워싱턴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높아지면서 더욱 (핵을 포기하라는 등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341]

몬테이로의 상기 분석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가 기반하는 마음-세계 이원론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미국, 소련이라는 객관적 실체로서 '강대국,'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상호 확증 파괴가 평화를 유지했다는 논증에서 포착되는 '극성(힘의 배분 상태)'의 존재까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객관적 대상에 대한 포착 과정을 보여준다. 더욱이 상기 논증 이외에 몬테이로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기존 포착한 실재 이외의 새로운 대상의 존재에 공격적 현실주의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강대국뿐만 아니라 강대국 이외의 일반 국가의 특성[342]을 집중적으로 가져와 논한다. 국가가 생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보편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이란과 같은 약소국이 미국의 생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수단의 개발을 촉구했음을 분석한다.[343] 일반 국가들의 특성에 관해 주목하는 공격적 현실

---

339) Mearsheimer and Walt, 200b, p. B19; The New York Times, 2002.

340) Posen, 2020b; Posen, 2020c. 포젠뿐만 아니라 레인은 9.11 이후 국제정치체계 내 비국가 행위자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논증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국가가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분석 논증이 기반하는 마음-세계 이원론의 내용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yne, 2004b, pp. 47-48; Layne, 2004c, pp. 103-121.

341) 밑줄은 저자. Monteiro, 2011.

342) Mearsheimer, 2014a, pp. 32-34.

343) 이 외에도 몬테이로가 일반 국가의 존재 특성을 전제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주의 학파의 분석은 몬테이로 이외에도 레인, 포젠, 미어샤이머 그리고 월트의 논증에서 나타난다. 이란 핵 합의를 제언하는 실천 논증에서 이란의 핵 보유가 일반 국가의 생존 욕구라는 특성을 자극해 일어난 일임을 분석하며 이란 핵 보유의 원인이 미국의 확장 전략에 있음을 강조한 레인, 미어샤이머 그리고 월트는 실천 논증에서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하여 일반 국가의 모습을 포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344]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강대국, 일반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과 개인 행위자의 관념과 인식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마음-세계 이원론에 온전히 기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모습들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먼저 정치 집단과 개인 행위자의 관념과 인식에 대한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한 현상 설명 부분에서 이들은 단순히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행위자의 인식과 관념의 특성까지 포착한다.[345] 구체적으로 W.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식과 관념에 대한 분석, 더 나아가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 행위자와 정치 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발발의 궁극적 원인으로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의 오판을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성이 솔레이마니 암살 지시 결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는 이들의 실천 논증 내 현상 설명 부분은 여전히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한 공격적 현실주의가 개인 행위자의 존재와 특성을 포착하는 것을 보여준다.[346]

>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 내에서 <u>중국 위협론은 하나의 관념</u>으로서 굳어져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

Monteiro, 2011/12, p. 12; Monteiro, 2014, pp. 122, 212-215, 222; Monteiro, 2017, p. 64.

344) Mearsheimer and Walt, 2016; Mearsheimer, 2011b, pp. 29-30; Mearsheimer, 2019a; Layne, 2002c; Layne, 2004c, pp. 117.

345) 공격적 현실주의는 이미 비국가 행위자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비국가 행위자의 인식과 관념의 영향력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비국가 행위자의 존재론적 위상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무성 외,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고찰』, (서울: 높이깊이, 2008), p. 71.

346) Layne, 2006b; Layne, 2009a; Mearsheimer, 2005a; Monteiro and Debs, 2018; Posen, 2020d; Walt and Muravchik, 2008.

이 공정하지 않고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임을 비판한다. […] 미국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무역에 있어 규칙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팽배하다."[347]

상기 레인의 분석은 대통령이라는 개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외교정책 엘리트들이 공유하는 관념이 실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레인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공유된 관념과 정체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역할함을 밝히면서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논한 대상들 보다 더 많은 대상을 변수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 행위자들의 관념이 존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은 정치집단으로까지 확장되어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알카에다 정치집단과 W. 부시 행정부 당시 네오콘이라 불리우는 정치 조직의 정체성과 관념이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음을 분석하고 국제정치체계 내 힘의 배분 상태에 따른 정책 결정을 제언하고 있다.[348]

하지만 정치 집단과 개인 행위자의 관념과 인식의 실재성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상이 인식 주관으로서 다른 대상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W. 부시, 트럼프나 네오콘과 같은 정치 집단과 개인 행위자의 관념과 인식이 단순히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특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정치 집단과 개인 행위자가 인식 주관으로서 강대국이라는 대상의 속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자유주의적 패권 전략을 추구해왔다. […] 이 전략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버리고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349]

---

347) 밑줄은 저자. Layne, 2015c, p. 40.
348) Posen, 2002b, pp. 40, 47-48; Layne, 2002; Layne, 2007a; Layne, 2007b.
349) 밑줄은 저자. Mearsheimer, 2016.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 네오콘 그리고 미국의 이념을 해외로 전파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매파들에 의해서이다."

강대국은 대상의 특성 상 생존을 위해 국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강대국의 속성은 정책 결정자라는 개인 행위자의 인식 주관에 의해 변경되었다. 즉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주관이 대상을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대상으로 새롭게 포착된 정치 집단과 개인행위자의 인식과 관념이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식 주관으로서 강대국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구성해온 것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는 인정하는 것이다.[350] 이는 코스타쟈니스가 지적한 것처럼[351] 개인이라는 행위자의 인식과 관념이 대상을 변경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과연 주관(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과 대상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존재론 기반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양산한다.

더욱이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인식 주관(마음)이 대상을 구성하고자 하는 모습 또한 완전히 부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라크 전 반대와 이란 핵합의를 촉구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신문 광고는 신문을 읽는 국민들과 국내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인식 주관인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대국이라는 대상을 구성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분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세계 이원론에 온전히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분석 논증에서처럼 마음-세계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새로운 대상의 존재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새로 포착한 대상이 인식주관으로서 다른 대상을 구성하는 모습을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즉 기존 강대국, 국제정치체계 그리고 극성(힘의 배분 상태)의 존재와 특성에 주목할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조직 그리고 개인 행위자의 관념, 정체성의 특수

350) Posen, 2018, pp. 20-21; Walt, 2009b;
351) Kostagiannis, 2018, pp. 142-146.

한 존재를 추가적으로 포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신문 광고를 통해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가 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주관이 객관적 대상들로 구성되어있는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은 마음-세계 이원론에 근본적으로 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에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2)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인식론: 현상론의 확장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인식론은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현상론을 공유하면서도 앞서 존재론에서 나타난 모순과 같이 현상론을 확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먼저 현상론은 경험과 관측을 통해 지식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추론을 통한 비인식적 방법의 지식 인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상론과 반대적인 속성을 지니는 초월적 사실주의는 관측이나 경험된 지식 이면의 구조나 환경에 주목하며 지식 생산의 억압적 구조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인식론이다. 즉 현상론은 지식의 표면적인 내용을 관측한다면 초월적 사실주의는 그 내면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인식론은 현상론에 근본적으로 기반한다. 다만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이 실제 정책 결정으로 발현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실재하는 대상 너머의 관측이 불가능한 권력 구조를 포착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상론에 온전히 기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 "알카에다는 야망있고 무자비하며 기술력 있는 조직이다. 확실한 증거는 우리 눈 앞에 있다. 알카에다는 미국을 이전부터 공격해왔고 9.11 테러 사건에서는 참혹한 죽음의 결과까지 보여주었다. […] 비행기 조종을 맡은 테러범들은 어떤 고도가 더욱 파괴적인지를 알고 있었다. […] 테러범 가운데 몇 명은 미국 비행 학교에서 수년간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352]

352) Posen, 2002b, p. 40.

"사담 후세인을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와 종종 비교되는데, [...] 사담 후세인이 개시한 두 전쟁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의 행동은 비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353]

먼저 상기의 논증은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기반하는 현상론을 보여준다. 실천 논증에서 포젠과 미어샤이머 그리고 월트는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관측한다.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지식을 과학적 인과 과정을 통해 포착함으로써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기반한 인식론을 받아들이고 있다.[354]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미국의 정책이 공격적 현실주의의 제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론을 넘어서는 인식론 변화가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미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내적인 권력 구조가 있다는 것을 공격적 현실주의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공격적 현실주의가 제언하는)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권력 구조에 미국이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이는 경험된 지식 이면의 구조, 즉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공격적 현실주의 정책 실현을 방해하는 억압적 구조를 포착하는 것이다.

"<u>자유주의적 진보주의(liberal progressivism)는 미국 정치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u>. [...] 민주당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삼는다. [...] 공화당 역시 실제 통치에 있어 민주당과 동일하게 행동한다."[355]

"미국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념 위에서 세워졌으며, [...] <u>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신념에 기초한</u>

---

353) Mearsheimer and Walt, 2002a, pp. 2-3.

354) Layne, 2009a; Mearsheimer, 2016; Mearsheimer and Walt, 2002a; Mearsheimer and Walt, 2003a; Mearsheimer and Walt, 2003b; Posen, 2014, pp. 77-78.

355) <u>밑줄</u>은 저자. Mearsheimer, 2018a, pp. 69-70.

국제질서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이끌어왔으며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356]

"잊어서는 안된다. […] 자유주의와 온건주의자들은 매파의 레토릭을 받아들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았으며(tortured) […] (미국 외교 정책의) 재앙적인 결과를 이끌었다."[357]

상기 분석들은 이라크 전 반대, 이란 핵 합의 촉구, 이스라엘 로비에서 자유롭기, 역외균형전략 제언,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대중국 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 집중 등 공격적 현실주의의 합리적 제언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억압적 구조로 인해 현실화 되지 않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중심의 미국 정책결정 과정의 억압적 구조는 첫째, 윌슨주의 환각에 빠져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국가 건설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했고, 둘째 이란과 이슬람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인도 하에 이란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셋째 확장적 우세전략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음을 비판한다. 더불어 미국 정책결정 과정에 숨어있는 차별적인 구조를 드러내면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제언이 현재의 억압적 구조를 타파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358]

결론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에서 포착된 이들의 인식론은 현상론에 위치하면서도 현상론이 포착하고자 하지 않았던 지식 이면의 지식 생산 환경에 대한 폭로를 포괄하고 있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 패권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기존 구조를 타파하고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제언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

356) 밑줄은 저자. Layne, 2015c, pp. 41-42.

357) 밑줄은 저자. Walt, 2010.

358) The New York Times, 2002; The New York Times, 2015; Monteiro, 2011; Monteiro and Debs, 2012; Monteiro and Debs, 2014b; Monteiro and Debs, 2018; Posen, 2002b; Posen, 2006a; Posen, 2017; Layne, 2002; Layne, 2004b; Layne, 2004c; Layne, 2006d; Mearsheimer, 2001/02; Mearsheimer, 2011b; Mearsheimer, 2016; Mearsheimer and Walt, 2002a; Mearsheimer and Walt, 2002b; Walt, 2009b; Walt, 2019a.

는 점에서 현상론의 인식론이 다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인 모습을 가지고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초월적 사실주의에 완전히 입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미국의 과거 정책결정이 재앙적 결과를 야기하게 된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대상과 대상관의 인과성을 관측을 통해 포착하고자 하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모습이 주된 인식론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결정 과정의 억압적 구조에 대한 논증은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인식론이 필요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모순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석 논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2) 실천 논증에서 비판 가치 수용이 촉발한 마음-세계 이원론과 현상론의 확장

		지식과 관측 간 관계 (인식론)	
		현상론 (phenomenalism)	초월적 사실주의 (transfactualism)
아는 주체(the knower)와 아는 대상(the know)간 관계 (존재론)	마음-세계 이원론	신실증주의 (neo-positivism)	비판적 실재론 (critical realism)
	마음-세계 일원론	분석주의 (analyticism)	성찰주의 (reflexivity)

좌향 빗살 / 화살표 — 분석 논증 / 실천 논증

<표 5>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 및 인식론 기반

<표 5>는 제4장 제1절의 1)에서 <표 4>로 구체화한 정치철학 기반에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좌향 빗살무늬는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위치한 존재론·인식론 기반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화살표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선택적인

확장을 전개함으로써 나타난 모호성을 보여준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은 마음-세계 이원론과 현상론에 모두 기반한다. 다만 주목할 점은 실천 논증이 분석 논증을 온전히 기반하지 못함으로써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철학 기반이 분석 논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해졌다는 사실이다. 실천 논증은 마음-세계 이원론이 아닌 모습을, 현상론이라 분류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모순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의 원인이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이 아니라 실천 논증에서만 포착된 이유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가치론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실천 논증에서의 가치론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가치론이 존재론, 인식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가치론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 가치론에서 가치의 존재와 성질에 대한 고대 철학에서부터의 고민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가치가 현실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지속적이다. 다만 일반 가치론에서는 '가치가 현실과 유관하고 매우 가까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많은 연구자들의 합의가 모이고 있다.[359]

가치가 현실과 유관하다는 것은 가치가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360] 헤센(1992)에 따르면 '가치는 어떻게 대상을 볼 것인가(인식 주관의 개입과 관측을 포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61] 물론 실재하는 대상에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몰가치적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렬한 냄새가 나는 배설물과, 똑같이 강렬한 냄새가 나는 꽃의 존재적 우위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헤센이 살펴본 일반 가치론의 역사적 흐름에서 가치는 현실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강렬한 냄새라도 배설물보다 꽃을 가치우위에 두는 것같이- 가치론

359) 헤센, 192, p. 94.

360) 가치 판단과 존재의 본질이나 실존적 특성을 판단하는 존재 판단은 서로 다르다. 존재 판단은 본질과 실존으로 나뉘어 설명되곤 하는데, 본질은 대상의 논리적 규정, 징표로 포착되며 실존은 비논리적인 측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가치 판단은 본질과 실존이 아닌 '제 3의 계기를 대상에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헤센, 1992, p. 42.

361) 헤센, 1992, pp. 42-43.

의 변화가 인식 주관의 개입(존재론), 지식과 관측의 관계(인식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62]

살펴본 가치론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공격적 현실주의 가치론이 실천 논증에서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가치론은 국제정치체계 내 일반적인 문제를 포착하고 패턴을 발견해냄으로써 해결해 나아가는 '문제 해결적' 가치에 입각한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 모두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성을 둔다. 다만 실천 논증에서는 분석 논증에서 보인 거시적인 문제 해결적 가치가 두 가지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영역의 문제 해결적 가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발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천 논증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패턴화 된 국제정치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를 미시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게 된다.[363]

다른 하나는 미시적 문제 해결적 가치가 비판적 가치의 일면을 어설프게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비판적 가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가치로서 지식이 특정 대상의 이익과 관련되어있음을 인지하고 이 관계성을 해체하는데 목적을 둔다.[364]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수용한 비판적 가치의 일면이 무엇인지는 이들이 왜 비판적 가치를 일부분 수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관련되어있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미시적인 문제 해결적 가치가 미국의 정책결정에 당면한 문제에 집중한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의 활발한 분석과 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이들의 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미시적인 문제 해결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으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포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즉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미시적 문제 해결의 가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미시적 문제 해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정책 결정 과정 이면의 힘의 관계 때문인지 비판적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362) 이수윤, 2002, pp. 664-688.
363) Barkin, 2009, p. 238.
364) Hoffman, 1987, pp. 232-233.

대표적으로 미어샤이머는 그의 저서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에서 실천 논증 전반에서 비판해 왔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국내정치의 역사 속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배적인 정치 담론으로 자리잡았는지를 포착하고 있다.[365] 실제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 양산의 과정에서 어떠한 힘의 관계 존재하는지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마크 호프만(Mark Hoffman)과 콕스가 분석한 비판적 가치론의 모습을 일부 담고 있다. 미어샤이머뿐만 아니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레인(2010, 2017)도 정책결정 엘리트들의 성장 배경, 문화를 비판하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전략이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의해 실제 미국의 대전략 결정 담론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366] 월트는 자유주의와 같은 이념이 미국 정책결정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영향력을 높이 펼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비판적 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367] 궁극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는 실천 논증에서 거시적 문제 해결적 가치를 미시적 문제 해결적 가치로 변화시켰고 미시적 문제 해결 가치의 실현 과정에서 비판적 가치의 일부분을 수용했다.[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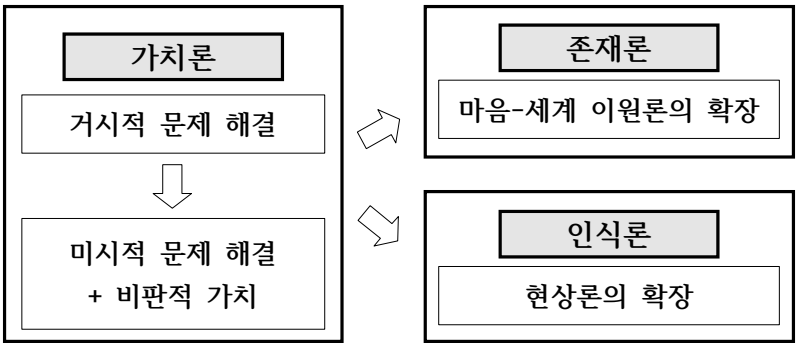
---

365) Mearsheimer, 2018a.

366) Layne, 2010, pp. 56-57; Layne, 2017, pp. 269-270.

367) Stephen M. Walt, "Ideology, Realpolitik, and US Foreign Policy : a discussion of Frank P. Harvey's explaining the Iraq war - counterfactual theory, logic and evidenc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1, No. 2 (2013), pp. 586-588; Stephen M. Walt, "You Can't Defeat Nationalism, So Stop Trying," *Foreign Policy,* June 4, 2019b. https://foreignpolicy.com/2019/06/04/you-cant-defeat-nationalism-so-stop-trying/ (검색일: 2021년 11월 3일).

368) 공격적 현실주의가 어설프지만 비판적 가치의 일면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국제정치이론에서 문제 해결적 가치와 비판적 가치 모두에 기반하고 있는 고전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비교·분석해야할 필요성을 고취시킨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의 확장이 정교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 및 변화되고 있음을 비판하는데 집중하기에 본 질문을 후속 연구로 제기하는데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림 4> 가치론의 존재론, 인식론 확장 (※ 출처: 작성자)

<그림 4>와 같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에서 가치론이 미시적 문제 해결적 가치로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가치의 일부분만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천 논증에서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자라는 개인 행위자의 인식과 관념이 객관적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화시킴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실재하는 것들의 단순한 인과성을 넘어선 이면의 권력 구조가 무엇인지를 포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론의 존재론, 인식론 확장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가치가 존재론, 인식론에 주체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어떻게 대상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는 실재하는 것과 주관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가치론의 존재론, 인식론 변화에 따라 <표 5>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은 신실증주의에 온전히 기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가치론 변화에 의해 선택적으로 모순적인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분석 논증이 추구했던 신실증주의 메타이론 기반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기존 문제 해결적 가치론 기반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사실이다. 이론의 규칙성이나 법칙들을 설립하는 목적을 가진 이들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모순이 규칙성과 법칙의 실패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제 해결적 가치론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존재론, 인식론을 포착함으로써 공격적 현실주의를 비판한 기존 연구도 본 연구의 주장

에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1장 2절의 3)에서 페인, 윌리엄스 그리고 오렌의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존재론 혹은 인식론이 어설픈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가치론의 변화에 주목하지 못한 나머지 실천 논증에서의 한계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문제해결적 가치론 기반의 패러다임이 포착하지 못한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선택적 확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문제의 원인을 포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모순을 인지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가 이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변화를 도모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 문제 해결적 가치론을 선도해 온 공격적 현실주의가 현실 국제정치에 그들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문제 해결적 가치만으로는 설명력을 얻을 수 없음을 적시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주류 담론으로 자리잡지 못했던 비판 이론적 가치의 영향력을 재고할 발판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과연 기존 공격적 현실주의 비판 연구가 올바른 분석 토대 위에서 비판적 논증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에 대한 최근의 비판 연구가 편협하고 다소 근시안적임을 지적하며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이 분석 논증과 어떻게 다른지, 왜 다름이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또한 실천 논증에서 공격적 현실주의가 미국 외교정책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벌인 가치론의 변화가 존재론·인식론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실을 온전히 담지하기 위해서 국제관계학 이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재고하는데 다음의 목적을 두었다.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의 차이와 그 원인을 포착하기 위해 먼저 분석적 차원에서 레인, 포젠, 미어샤이머, 몬테이로 그리고 월트를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로 구성했다. 이는 미어샤이머만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대상화 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의 편협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첫 번째 단계였다. 다음으로 분석적 차원에서 조직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분석 논증과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을 포착하기에 앞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 별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실천 논증이 무엇인지, 실천 논증이 어떠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존 연구가 제시하지 못했던 실천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이후 공격적 현실주의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이 마음-세계 이원론, 현상론 그리고 문제 해결적 가치에 위치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가 실천 논증에서 선택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논의가 철학에서의 존재론·인식론·가치론 논의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잭슨의 존재론·인식론 구분과 헤센과 콕스의 가치론 논의를 통해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천 논증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확장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국제정치체계의 문제 원인을 지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치론, 즉

문제 해결적 가치의 변화에 주목했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의 가치론은 미국 정책 결정과정이라는 미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로 변화하였고 이 과정에선 지식 생산의 폭력적 구조를 포착하는 비판적 가치를 일부 포괄하게 되었다.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가치론의 영향력을 일반 가치론 논의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기존 연구가 경시하였던 존재론과 인식론의 변화의 원인에 주목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비판 연구를 넘어서는 함의를 내포한다. 첫 번째로, 공격적 현실주의를 미어샤이머라는 한 연구자로만 인식해 온 기존 연구가 공격적 현실주의 전반을 포괄하여 올바른 연구의 대상을 선택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가능하게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세 가지 가정과 여덟 가지 가설을 통해 분석적 차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구성함으로써 연구의 대상으로서 공격적 현실주의를 다루는 엄밀성을 높인 것이다. 두 번째로, 존재론·인식론·가치론 중 한 가지 기반만을 분석하여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과 분석 논증이 서로 다르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다. 본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무엇인지 재구성함으로써 실천 논증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석 논증의 존재론·인식론을 기반하되 선택적으로 편의에 따라 확장을 이루고 있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존재론·인식론·가치론 기반 모두를 분석함으로써 존재론과 인식론의 변화가 가치론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의 실천 논증에서 나타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을 넘어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가 당면한 문제가 국제정치학에서 비판 이론적 가치의 영향력을 도외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공격적 현실주의 실천 논증이 보여주듯이 문제 해결적 가치론만으로는 국제정치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적합한 규범적 제언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비판 이론적 가치가 국제정치학에서 갖는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은 국제관계 이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1) 국문

루이스 포이만. 2010.『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박찬구 외 역, 서울: 율력.

박재영. 2015.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스티븐 월트. 2007.『미국 길들이기』, 김성훈 역, 파주: 한울.

요나톤 모세스, 투르뵨 크누트센. 2011.『정치학 연구방법론: 자연주의와 구성주의』, 신욱희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요하네스 헤센. 1992.『가치론』, 진교훈 역, 서울: 서광사.

앤드류 콜리어. 2010.『비판적 실재론: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 이기홍·최대용 역, 서울: 후마니타스.

이무성 • 이종서 • 박채복 • 하상섭 • 박상현. 2008.『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고찰』, 서울: 높이깊이.

이수윤. 2002.『역사철학: 사회과학 방법론·사회인식론과 역사인식론과 역사존재론·역사관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융합과 통일』,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전재성. 2019.『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존 미어샤이머. 2017.『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이춘근 역, 서울: 김앤김북스.

존 베일리스 • 스티브 스미스 • 파트리카 오웬. 2012.『세계정치론』, 하영선 외 역, 서울: 을유문화사.

케네스 월츠. 2013.『국제정치이론』, 박건영 역, 서울: 사회평론.

피터 싱어. 2006.『메타윤리』, 김성한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 영문

Beckley, Michael. 2018. *Unrivaled: why America will remain the world's sole super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ernstein, Richard J. 1983.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Carr, Edward H.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Copeland, Dale C. 2000a.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03.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Future of U.S.-Chinese Relations," i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inson, Goldsworthy L. 1926. *The International Anarchy, 1904-1914,* London: George Allen & Unwin.

Hollis, Martin and Steve Smith. 1990.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 Oxford: Clarendon.

Jackson, Patrick T.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Milton Park, Abingdon, Oxon; New York : Routledge.

Keohane, Robert. 2005.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Oxford : Princeton University Press.

Klotz, Audie and Cecelia Lynch. 2007.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M. E. Sharpe.

Kostagiannis, Konstantinos. 2018. *Realist Thought and the National-State: Power Politics in the Age of Nationalism,* Palgrave Macmillan.

Lakatos, Imre. 2000. "Lectures on Scientific Method," In Matteo Motterlini (ed.), *For and against Meth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yne, Christopher. 2004a. "China's Role in American Grand

Strategy: partner, regional power, or great power rival?," in Jim Rolfe (ed.), *The Asia-Pacific: a region in transition.* Honolulu, HI: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_____. 2004b. "Iraq and Beyond: 'old Europe' and the end of the U.S. hegemony," in Christina V. Balis and Simon Serfaty (eds.), *Visions of America and Europe: September 11, Iraq and Transatlantic Relations.* Washington, D.C.: CSIS Press.

_____. 2004c. "The War on Terrorism and the Balance of Power: the paradoxes of American Hegemony," in T. V. Paul •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6c. *The Peace of Illusions: American grand strategy from 1940 to the presen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10. "The Unbearable Lightness of Soft Power," in Inderjeet Parmar and Michael Cox (eds.), *Soft Power and US Foreign Policy.* London; New York: Routledge.

_____. 2011b. "The Real Post-American World: the Pax America's end and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in Sean Clark and Sabrina Hoque (eds.), *Debating a Post-American World.* London: Routledge.

Layne, Christopher and Bradley A. Thayer. 2007. *American Empire: a debate,* New York: Routledge.

Mearsheimer, John J. 2011a. *Why Leaders Lie: the truth about ly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14a.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 updated edition,* NY: W. W. Norton & Company, Inc.

_____. 2018a.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07.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Miller, Benjamin. 2021. *Grand Strategy from Truman to Trum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ore, George E. 1903. "The Subject-Matter of Ethics," in George E.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Monteiro, Nuno P. 2014. *Theory of Unipol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ebuhr, Reinhold. 1960.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Scribner.

Pashakhanlou, Arash H. 2017. *Realism and Fear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Popper, Karl. 1992.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Routledge.

Posen, Barry R. 1986.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New York: Corenell University Press.

Prifti, Bledar. 2017.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Russell, Bertrand. 1917. *Justice in War Time*, Chicago: Open Court.

Tang, Shiping. 2010b. *A Theory of Security Strategies for Our Time: defensive re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Vasquez, John A. 1998. *Power of Power Politics: from classical realism to neotradi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t, Stephen M. 1990.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02a. "The Enduring Relevance of Realist Tradition." in Katznelson Ira and ilner Helen V.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3,* New York: Norton Press.

_____. 2005. *Taming American Power: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ew York: Norton.

_____. 2018.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Williams, Michael C. 2005. *The Realist Tradition and the Limi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liams, Paul D. (ed.). 2013.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 학술논문

1) 국문

김영호. 2004.「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제1호.

설인효 • 이택선. 2012.「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방어, 공격적 현실주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분쟁해결연구』, 제10집, 제2호.

양준희. 2009.「과학적 이론으로서의 현실주의와 포퍼의 반증가능성」.『한구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이근 • 전재성. 2001.「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제1호.

이용욱. 2014.「서문: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세계정치』, 제20권.

이혜정. 2015.「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장노순. 2003.「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론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전재성. 1999.「E.H.카아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제3호.

_____. 1999.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 메타이론적 검토와 실천지(prudence)의 의미」.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_____. 2014.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2호.

정준표. 2003.「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대한정치학회』, 제11집, 제2호.

2) 영문

Alenezi, Danah Ali. 2020. "US Rebalance Strategy to Asia and US-China Rivalry in South China S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ffensive Realism." *Review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REPS* (February).

Babík, Milan. 2013. "Realism as Critical Theory: the international thought of E. H. Car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5, No. 4.

Barkin, Samuel. 2009. "Realism, Prediction, and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Vol. 5, Iss. 3 (July).

Bennet, Andrew. 2013. "The Mother of All Isms: casual mechanisms and structured plu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Brown, Chris. 2013. "The Poverty of Grand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Christensen, Thomas J. and Jack Snyder. 1990.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Spring).

Copeland, Dale C. 2000b. "The Constructivist Challenge to

Structural Realism: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Fall).

_____. 2001. "Theory and History in the Study of Major War." *Security Studies,* Vol. 10, No. 4 (June).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Studies,* Vol. 10, Iss. 1.

Dimuccio, Ralph B. A. 1998. "The Study of Appeas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emics, Paradigms, and Problem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5, No. 2 (March).

Dunn, Bill. 2018. "On the Prospects of a Return to Keynes: taking Keynes's political philosophy seriously," *Global Society,* Vol. 32, No. 2.

Elman, Collin. 1996. "Horses for Courses: why nor Neorealist theories of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 6, No. 1 (September).

_____. 2004. "Extending Offensive Realism: the Louisiana purchase and America's rise to regional hegemon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8, No. 4 (November).

Fischer, Markus. 1992. "Feudal Europe, 800-1300: communal discourse and conflictual pract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_____. 1995. "Machiavelli's theory of foreign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 5, No. 2 (December).

Glaser, Charles L. 1995. "Realist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3 (September).

Grieco, Joseph M.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Hamati-Ataya, Inanna. 2012. "Reflectivity, Reflexicity, Reflexivism: IR's 'reflective turn' - 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4.

Hoffman, Mark. 1987. “Critical Theory and the Inter-Paradigm Debat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6, Iss. 2.

Jalil, Ghazala Y. 2019. “Chiana‘s Rise: offensive or defensive realism.” *Strategic Studies,* Vol. 39, No. 1.

Kahler, Miles. 1998.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Autumn).

Karagiannis, Emmanuel. 2013. “The 2008 Russian-Georgian War via the Lens of Offensive Realism.” *European Security,* Vol. 22, Iss. 1.

Kim, Tongfi. 2011. “Why Alliances Entangle But Seldom Entrap States.” *Security Studies,* Vol. 20, No. 3 (August).

Kirshner, Jonathan. 2012. “The Tragedy of Offensive Realism: classical realism and the rise of Chin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Iss. 1 (March).

_____. 2019. “Offensive Realism Thucydides Traps, and the Tragedy of Unforced Errors: classical realism and US-China relations.”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Vol. 1.

Kocher, Matthew A. • Adria K. Lawerence, and Nuno P. Monteiro. 2018. “Nationalism,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France under Nazi Occup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2 (Fall).

Kupchan, Charles A. 2003. “Review: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by John J. Mearsheimer.”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5, No. 3 (September).

Labs, Eric J. 1994. *Fighting For More: the sources of expanding war aims,* Ph.D.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_____. 1997. “Beyond Victory: Offensive realism and the expansion of war aims.” *Security Studies,* Vol. 6, No. 4 (June).

Lake, David A. 2011. "Why 'isms' Are Evil: theory, epistemology, and academic sects as impediments to understanding and progr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2 (June).

Lande, Eivind. 2018. "Between Offensive and Defensive Realism - the Japanese Abe government's security policy toward China." *Asian Security,* Vol. 14, Iss. 2.

Layne, Christopher. 1990/91. "America's Stake in Soviet Stability." *World Policy Journal,* Vol. 8, No. 1 (Winter).

_____. 1993.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Spring).

_____. 1996. "Less is More: minimal realism in East Asia." *The National Interest,* No. 43 (Spring).

_____. 1997a. "A House of Cards: American strategy toward China." *World Policy Journal,* Vol. 14, No. 3 (Fall).

_____. 1997b. "From Preponderance to Offshore Balancing: America's future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1 (Summer).

_____. 1998. "Rethinking American Grand Strategy: hegemony or balance of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Policy Journal,* Vol. 15, No. 2 (Summer).

_____. 2000. "US Hegemony and the Perpetuation of NATO."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3, No. 3.

_____. 2002a. "Offshore Balancing Revisited."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2.

_____. 2002b.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December).

_____. 2006a. "The Unipolar Illusion Revisited: the coming end of the United States' unipolar mo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 No. 2 (Fall).

_____. 2006b. "Impotent Power? Re-examining the Nature of America's Hegemonic Power." *The National Interest* (September/October).

_____. 2006d. "Iran: The Logic of Deterrence." *The American Conservative*, (April 10).

_____. 2007a. "Who Lost Iraq and Why It Matters: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World Policy Journal,* Vol. 24, No. 3 (Fall).

_____. 2007b. "Review: Regime Change: U.S. strategy through the prism of 9/11."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5, No. 4 (December).

_____. 2008a. "It's Over, Over There: the coming crack-up in Transatlantic rel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Hague, Netherlands),* Vol. 45, No. 3 (May).

_____. 2008b. "Security Studies and the Use of History: Neville Chamberlain's grand strategy revisited." *Security Studies,* Vol. 17, No. 3 (September).

_____. 2008c. "China's Challenge to US Hegemony." *Current History,* Vol. 107, No. 705 (January).

_____. 2009a. "America's Middle East Grand Strategy After Iraq: the moment for offshore balancing has arrived."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5, No. 1 (January).

_____. 2009b. "The Waning of U.S. Hegemony: myth or real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Summer).

_____. 2011a. "The Unipolar Exit: beyond the Pax Americana."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4, No. 2 (June).

_____. 2012a. "This Time It's Real: the end of unipolarity and the 'Pax Americ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No. 1 (March).

_____. 2012b. "The Global Power Shift from West to East." *The National Interest,* No. 119 (May/June).

_____. 2015a. "Obama's Missed Opportunity to Pivot Away from the Middle East." *Insight Turkey,* Vol. 17, No. 3 (Summer).

_____. 2015b. "Avoiding a Sino-American Confrontation." *Atlantisch Perspectief,* Vol. 39, No. 4.

_____. 2015c. "Sleepwalking with Beijing." *The National Interest,* No. 137 (May/June).

_____. 2017. "The U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and Grand Strategy: how American elites obstruct strategic adjustment." *International Politics (Hague, Netherlands),* Vol. 54, No. 3 (May).

_____. 2020a. "Preventing the China-U.S. Cold War from Turning Hot."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3, No. 3.

_____. 2020b. "Coming Storms." *Foreign Affairs,* Vol. 99, Iss. 6 (November/December).

Lee, Dong Sun. 2017. "America's International Leadership in Transition: from global hegemony towards offshore leadership."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4, No. 1.

Lee, G. Geunwook. 2002. "To be long or not to be long: that is the question: the contradiction of time-horizon in Offensive Realism."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Levine, Daniel J. and Alexander D. Barder. 2014.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American Schoo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state of grand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0, Iss. 4.

Lieberman, Robert C. 2009. "The 'Israel Lobby' and American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7, No. 2 (June).

Lundborg, Tom. 2019. "The Ethics of Neorealism: Waltz and the Time of International Lif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5, Iss. 1 (March).

Mearsheimer, John J. 1984/85.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3 (Winter).

_____. 1994/95.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3.

_____. 1998. "Teaching Morality at the Margins." *Philosophy and Literature,* Vol. 22, No. 1 (April).

_____. 2001a. "The Future of the American Pacifier." *Foreign Affairs,* Vol. 80, No. 5 (September/October).

_____. 2002. "Hearts and Minds." *The National Interest,* No. 69 (Fall).

_____.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Vol. 105, No. 690 (April).

_____. 2008. "Rivalry in the Offing." *China Security,* Vol. 4, No. 2 (Spring).

_____. 2009c. "Reckless States and Re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No. 2 (June).

_____. 2010a. "Sinking Ship." *The American Conservative,* (August).

_____. 2011b. "Imperial by Design." *The National Interest,* Vol. 111 (January).

_____. 2014b. "America Unhinged." *The National Interest,* No. 129 (January/February).

_____. 2014c. "Taiwan's Dire Straits." *The National Interest,* No. 130 (March/April).

_____. 2015. "What is America's Purpose." *The National Interest,* No. 139 (September/October).

_____. 2019b. "Realism and Restraint." *Horizons,* Iss. 14 (Summer).

_____. 2019c.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4 (Spring).

Mearsheimer, John J. and Zbigniew Brzezinksi. 2005. "Clash of the

Titans." *Foreign Policy,* Iss. 146 (January/February).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02a. "Can Saddam be Contained? history says yes." *Foreign Policy Bulletin (Washington, D. C.),* Vol. 14, No. 1.
_____. 2002b. "'Realists' Are Not Alone in Opposing War With Iraq."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49, Iss. 12 (November).
_____. 2003a. "An Unnecessary War." *Foreign Policy,* No. 134 (January-February).
_____. 2013. "Leaving Theory Behind: why simplistic hypothesis testing is bad for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Iss. 3.
_____. 2016.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5, No. 4 (July/August).
Monteiro, Nuno P. 2011/12. "Unrest Assured: why unipolarity is not peaceful."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3 (Winter).
_____. 2017. "Review: All Measures Short of War: the contes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ternational Politics Reviews,* Vol. 5.
Monteiro, Nuno P. and Alexandre Debs. 2014a. "The Strategic Logic of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Fall).
_____. 2014b. "Known Unknowns: Power Shifts, Uncertaint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8, No. 1 (Winter).
_____. 2018. "Cascading Chaos in Nuclear Northeast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Iss. 1.
Monteiro, Nuno P. • Matthew A. Kocher • Adria K. Lawrence. 2018. "Nationalism, Collaboration, and Resistance: France under Nazi occup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2 (Fall).
Myšička, Stanislav. 2021. "Offensive Realism and the Future of

China's Rise." *Pacific Focus,* Vol. 36, Iss. 1.

Oren, Ido. 2009. "The Unrealism of Contemporary Realism: The Tension between Realist Theory and Realists' Practic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7, No. 2 (May).

Pashakhanlou, Arash H. 2013. "Back to the Drawing Board: A Critique of Offensive Realism."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7, No. 2.

_____. 2018.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ealism." in Davide Orsi • J. R. Avgustin and Max Nurnus (eds.). *Realism in Practice: An Appraisal,* E-International Relations.

Payne, Rodger A. 2007. "Neorealists as Critical Theorists: The Purpuse of Foreign Policy Debat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5, No. 3 (September).

Popescu, Ionut. 2019. "American Grand Strategy and the Rise of Offensive Realism."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34, No. 3.

Posen, Barry R. 1993a. "The Security Dilemma and Ethnic Conflict." *Survival,* Vol. 35, No. 1 (March).

_____. 1993b. "Nationalism, the Mass Army, and Military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_____. 2002a. "The Best Defense." *The National Interest,* No. 67 (Spring).

_____. 2002b. "The Struggle Against Terrorism: grand strategy, strategy and tac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_____. 2003.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 (Summer).

_____. 2004. "ESDP and the Structure of World Power."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39, No. 1.

_____. 2006b. "Is There a Responsible Exit From the Strategic Ambush in Iraq?." *Middle East Policy,* Vol. 13, No.

2 (Summer).
_____. 2006c. "European Uni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response to unipolarity?." *Security Studies,* Vol. 15, No. 2 (July).
_____. 2007. "The Case for Restraint." *The American Interest,* Vol. 3, No. 2 (November).
_____. 2008. "Restraining Order." *The American Interest,* Vol. 3, No. 3.
_____. 2009. "Emerging Multipolarity: why should we care?." *Current History (1941),* Vol. 108, No. 721.
_____. 2013. "Pull Back: the case for a less activist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92, No. 1 (January/February).
_____. 2016. "Foreword: military doctrine and the management of uncertaint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No. 2.
_____. 2018. "The Rise of Illiberal Hegemony: Trump's surprising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7, No. 2 (March/April).
_____. 2020a. "Europe Can Defend Itself." *Survival,* Vol. 62, No. 6 (November).
_____. 2020e. "Do Pandemics Promote Peace?: why sickness slows the march to war." *Foreign Affairs* (April).
_____. 2020f. "Scarcity and Strategy: the foreign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Sven Biscop and Alexey Gromyko (eds.), "Biden's World? View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the European Union." *Security Policy Briefs* (December).
Posen, Barry R. and Andrew L. Ross. 1996/97.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Powell, Robert. 1993. "Gun, Butter, and Anarch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1 (March).

_____. 1994.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Neorealist-Neoliberal deb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Quackenbush, Stephen. 2004. "The Rationality of Rational Choice Theor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0, No. 2 (April).

Rahman, Md. Mizanur. 2019. "The US State-building in Afghanistan: an offshore balance?." *Jadavpu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3, No. 1.

Rathbun, Brian C. 2007. "Uncertain about Uncertainty: understanding the multiple meanings of a crucial concep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1, No. 3 (September).

Schmidt, Brian C. 2004. "Realism as traged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3 (July).

Schweller, Randall L. 1996. "Neorealism's Status-Quo Bias: What Security Dilemma?." *Security Studies,* Vol. 5, No. 3 (Spring).

Slater, Jerome. 2009. "The Two Books of Mearsheimer and Walt." *Security Studies,* Vol. 18, Iss. 1.

Sullivan, Michael P. 2005. "'That dog won't hunt': the cottage industry of realist criticism, or must you play that Waltz agai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Vol. 8, No. 4 (Winter).

Taliaferro, Jeffrey W. 2000/01.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t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3 (Winter).

Tang, Shiping. 2010a. "Soci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Mearsheimer to Jervi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6, Iss. 1 (March).

Toft, Peter. 2005. "John J. Mearsheimer: an offensive realist between geopolitics and p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Vol. 8, No. 4 (Winter).

Walt, Stephen M. 1985.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Spring).

_____. 1988. "Testing Theories of Alliance Formation: the case of Southwest As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2 (Spring).

_____. 1989. "The Case for Finite Containment: Analyzing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4, No. 1 (Summer).

_____. 1991.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June).

_____. 1992. "Revolution and War." *World Politics,* Vol. 44, No. 3 (April).

_____. 1997a.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Spring).

_____. 1997b. "The Progressive Power of Real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4 (December).

_____. 1999a. "Musclebound: the limits of U.S. powe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5, No. 2.

_____. 1999b. "Rigor or Rigor Mortis?: rational choice and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April).

_____. 2001. "Nothing Revolutiona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No. 4 (October).

_____. 2001/02. "Beyond bin Laden: reshaping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_____. 2002b. "American Primacy: its prospects and pitfall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55, No. 2 (Spring).

_____. 2005. "In the National Interest: a new grand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Boston Review (Cambridge, Mass. : 1982),* Vol. 30, No. 1 (February).

_____. 2009a. "Alliances in a Unipolar World," *World*

Politics, Vol. 61, No. 1 (January).
_____. 2011. "The End of the American Era." *The National Interest,* No. 116 (November).
_____. 2013. "Ideology, Realpolitik, and US Foreign Policy : a discussion of Frank P. Harvey's explaining the Iraq war - counterfactual theory, logic and evidenc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1, No. 2.
_____. 2018.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can realism explain it? should realism guide it?."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2, No. 1.
_____. 2019a. "The End of Hubris: and the new age of American restraint." *Foreign Affairs,* Vol. 98, No. 3 (May/June).
Walt, Stephen M. and Joshua Muravchik. 2008. "The Neocons vs. The Realists." *The National Interest,* No. 97 (September/October).
Waltz, Kenneth N.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tter." *Adelphi Papers*, No. 171.
_____. 1997. "Evaluating Theor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4.
Wendt, Alexander. 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Summer).
Williams, Donald C. 1930. "The Definition of Yellow and of Good."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27, No. 19.

3. 기타

1) 보고서

Cordesman, Anthony H. 2000. *Iran and Nuclear Weapons: background paper for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cClam, Reginald J. 2016. *Balancing on the Pivot: how China's rise and offshore balancing affect Japan's and India's roles as balancers in the 21st century,* Alabama. AL: Air University Press.

Posen, Barry R. 2006d. *A Nuclear Armed Iran: a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policy problem*, 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Wright, Donald P. et al. 2010. *A Different Kind of War: the United States Army in operation ENDURING FREEDOM (OEF) october 2001-september 2005,*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Wright, Donald P. and Timothy R. Reese. 2008. *On Point Ⅱ: transition to the new campaign, the United States Army in operation IRAQI FREEDOM may 2003-january 2005,*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Press.

2) 인터넷 자료

Beckley, Michael and Hal Brands. 2020. "Competition With China Could Be Short and Sharp: the risk of war is greatest in the next decade." *Foreign Affairs,* December 17.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12-17/competition-china-could-be-short-and-sharp (검색일: 2021년 9월 29일).

Crist, Judith. 2014. "Hearts and Minds: the right side of history." *Criterion,* June 23. https://www.criterion.com/current/posts/210-hearts-and-minds-the-right-side-of-history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Layne, Christopher. 2002c. "A New Grand Strategy," *The Atlantic,* January.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02/01/a-new-grand-strategy/376471/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Mearsheimer, John J. 2004. "Real World." *Letter Published in the*

New Republic, August 9. https://www.mearsheimer.com/publications/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_____. 2005a. "Hans Morgenthau and the Iraq War: realism versus neo-conservatism." *Opendemocracy.com,* May 19. https://www.opendemocracy.net/en/morgenthau_2522jsp/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_____. 2010b. "Trouble Brewing in the 'Hood'." *Sunday Morning Herald,* August 3.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trouble-brewing-in-the-hood-20100802-113ab.html (검색일: 2021년 9월 14일).

_____. 2011c. "Kissing Cousins: nationalism and realism," *Yale Workshop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y). https://www.mearsheimer.com (검색일: 2021년 07월 19일).

_____. 2016. "Donald Trump Should Embrace a Realist Foreign Policy." *The National Interest,* November 27.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donald-trump-should-embrace-realist-foreign-policy-18502 (검색일: 2021년 9월 14일).

Pollmann, Mina. 2017. "A Discussion on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Order with Barry Posen."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January 3. https://cimsec.org/barry-posen-draft/ (검색일: 2021년 9월 24일).

Posen, Barry R. 2006a. "Exit Strategy: how to disengage from Iraq in 18 months." *Boston Review,* January 2. https://bostonreview.net/forum/exit-strategy/barry-r-posen-responds-my-aim-advance-policy-debate-presenting-new-strategy%e2%80%94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_____. 2017. "It's Time to Make Afghanistan Someone Else's Problem." *The Atlantic,* August 18.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7/08/solution-afghanistan-withdrawal-iran-russia-pakistan-trump/537252/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University of California Television. 2009. "Conversations with History: Stephen M. Walt." https://www.youtube.com/watch?v=sSfeaI61RSY&t=2662s (검색일 : 2021년 07월 14일).

Walt, Stephen M. 2009b. “On Afghanistan Iraq, and the Lobby: a response to Peter Beinart.” *Foreign Policy,* December 9. https://foreignpolicy.com/2009/12/09/on-afghanistan-iraq-and-the-lobby-a-response-to-peter-beinart/ (검색일: 2021년 8월 30일).

_____. 2019b. “You Can’t Defeat Nationalism, So Stop Trying.” *Foreign Policy,* June 4. https://foreignpolicy.com/2019/06/04/you-cant-defeat-nationalism-so-stop-trying/ (검색일: 2021년 11월 3일).

_____. 2021b. “Xi Tells the World What He Really Wants.” *Foreign Policy,* January 29. https://foreignpolicy.com/2021/01/29/xi-tells-the-world-what-he-really-wants/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_____. 2021c. “The World Might Want China’s Rules.” *Foreign Policy,* May 4. https://foreignpolicy.com/2021/05/04/the-world-might-want-chinas-rules/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The Wilkie Collins Society. 2009. “Newsletter.” (Spring). https://wilkiecollinssociety.org/newsletter-spring-2009/ (검색일: 2021년 07월 11일).

3) 신문 기사

인남식.「탈레반, 아프간 장악 후폭풍… 中·러·인도·이란에도 위협」. 『조선일보』, 2021년 8월 16일.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8/16/6OAVV7IHONDM3EFLMV23WWD23I/ (검색일: 2021년 8월 17일).

McKinley, P. Michael. “We All Lost Afghanistan: two decades of mistakes, misjudgments, and collective failure.” *Foreign*

Affairs, August 16,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8-16/we-all-lost-afghanistan-taliban (검색일: 2021년 8월 17일).

Mearsheimer, John J. "Guns Won't Win the Afghan War." *New York Times,* November 4, 2001b. https://www.nytimes.com/2001/11/04/opinion/guns-won-t-win-the-afghan-war.html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_____. "Hollow Victory." *Foreign Policy,* November 2, 2009a. https://foreignpolicy.com/2009/11/02/hollow-victory-2/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_____. "Afghanistan: no more the good war." *Newsweek,* December 7, 2009b. https://www.newsweek.com/how-afghanistan-went-good-war-bad-75619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_____. "Iran Is Rushing to Build a Nuclear Weapon - and Trump Can't Stop It." *The New York Times,* July 1, 2019a. https://www.nytimes.com/2019/07/01/opinion/iran-is-rushing-to-build-a-nuclear-weapon-and-trump-cant-stop-it.html (검색일: 2021년 9월 10일).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Keeping Saddam Hussein in a Box."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 2003b. https://www.nytimes.com/2003/02/02/opinion/keeping-saddam-hussein-in-a-box.html (검색일: 2021년 8월 18일).

Monteiro, Nuno P. "Why We (Keep) Fighting," in Stephen M. Walt Guest Post, *Foreign Policy,* December 29, 2011. https://foreignpolicy.com/2011/12/29/why-we-keep-fighting/ (검색일: 2021년 8월 23일).

Neilan, Terence. 2001. "2 Planes Crash Into World Trade Cent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1, 2001. https://www.nytimes.com/2001/09/11/national/2-planes-crash-into

-world-trade-center.html?searchResultPosition=13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The New York Times. "War with Iraq Is Not in America's National Interest." September 26, 2002. https://radioopensource.org/wp-content/TimesAd_01.pdf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_____. "The Iran Nuclear Agreement is in America's National Interest." September 8, 2015. https://www.mearsheimer.com/wp-content/uploads/2019/03/NYT-Ad-Supporting-Iran-Nuclear-Deal.September-8-2015.pdf (검색일: 2021년 9월 8일).

Posen, Barry R. "We Can Live With a Nuclear Ira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06e. https://www.nytimes.com/2006/02/27/opinion/we-can-live-with-a-nuclear-iran.html (검색일: 2021년 9월 8일).

_____. "Courting War." *Boston Review,* March 3, 2020d. https://bostonreview.net/war-security/barry-r-posen-courting-war (검색일: 2021년 9월 8일).

Sinha, Anurag. "John J. Mearsheimer on 'Liberal Ideal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Yale Macmillan Center,* November 30, 2017. https://macmillan.yale.edu/news/john-j-mearsheimer-liberal-ideals-and-international-realities (검색일: 2021년 12월 27일).

Stout, David. "In Washington, an Attack on a Symbol of American Pow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1, 2011. https://www.nytimes.com/2001/09/11/national/in-washington-an-attack-on-a-symbol-of-american-power.html?searchResultPosition=2 (검색일: 2021년 8월 12일).

Walt, Stephen M. "Another bogus argument for war with Iran." *Foreign Policy,* March 1, 2012a. https://foreignpolicy.com/2012/03/01/another-bogus-argument-for

-war-with-iran/ (검색일: 2021년 9월 8일).
_____. "Mr. Obama Must Take a Stand Against Israel Over Iran." *Financial Times,* March 5, 2012b. https://www.ft.com/content/38c9382a-65f8-11e1-979e-00144feabdc0 (검색일: 2021년 9월 8일).
_____. "Dealing with a Chinese Monroe Doctrine." *The New York Times,* August 26, 2013. https://www.nytimes.com/roomfordebate/2012/05/02/are-we-headed-for-a-cold-war-with-china/dealing-with-a-chinese-monroe-doctrine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_____. "Trump's Iran Policy is Brain-Dead." *Foreign Policy,* January 3,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1/03/qassem-suleimani-trump-iran-policy-lacks-coherent-objectives-strategy/ (검색일: 2021년 9월 8일).

4) 영상 자료

Mearsheimer, John J. "It's Time to Take a Hard Line on Iran Debate #3 Unresolved U.S.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quared Debates*, September 28, 2018b. https://www.youtube.com/watch?v=Nmrrheucgf4 (검색일: 2021년 9월 8일).
_____. "U.S.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 Biden."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Webinar, November 18,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KaTGGdsomf4 (검색일: 2021년 9월 8일).
Posen, Barry R. "Offense or Defense: U.S. options and Iran's nuclear program." *Dartmouth College Seminar,* February 24, 2010. https://www.youtube.com/watch?v=iLkaji-IxBc (검색일: 2021년 9월 8일)
_____. "Maximum Pressure or Maximum Failure:

America's shrinking options on Iran."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Webinar, June 5, 2020b. https://www.youtube.com/watch?v=tX5UnRMCBxg (검색일: 2021년 9월 8일)

_____. "The Middle East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a conversation with Barry Posen and Stephen Walt." *Middle East Institute,* Webinar, April 16, 2020c. https://www.mei.edu/events/middle-east-era-great-power-competition-conversation-barry-posen-and-stephen-walt (검색일: 2021년 9월 8일).

Walt, Stephen M. "U.S. Foreign Policy and the 'Biden effect'." *Esade,* March 11, 2021a. https://www.youtube.com/watch?v=upSMUWKMuzw (검색일: 2021년 9월 27일).

Abstract

Offensive Realism's Ontological, Epistemological Extension via Axiology in its Practice

"Why are Offensive Realism's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foundations different in description and practice?"

Hyunsu Kim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2,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as planning to invade Iraq in an operation named Operation Iraq Freedom. Against the operation, 32 prominent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bought an ad in the *New York Times* to condemn the plan of war with Iraq. The ad attracted attention because the 'Neo-realist' argued that theorist practical intervention is not needed because of the power of international system's restricting power on states. After the ad, critical research has appeared with 'whether Offensive Realists can make practical arguments' and 'if they can whether the philosophical content of practice matches its description.' Despite the countless critical research, the studies on Meta-theoretical(ontology, epistemology, axiology) discrepancy between description and practice are at a fairly

low level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that have conducted meta-theoretic criticism, but these have focused only on revealing simple inconsistencies without philosophical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Offensive Realists' practice, which shares microscopic problem-solving axiology and critical axiology in part, has flexibly extended its ontology and epistemology. A researcher's axiology can modify a relation between an object(reality) and a subject(researcher), ontology, and their view of knowledge in reality, epistemology. This study disputes that the Offensive Realism's axiology has broadened its ontological mind-world dualism and epistemological phenomenalism.

Keywords: Offensive Realism, Description and Practice, Meta-theories, Axiology, Ontology, Epistemology

Student Number : 2019-24368